

JICA 파견국별 계획수립 연구보고서
봉사단원 사업의 국별·지역별 접근의 적용
조사연구보고서

2005. 12

한 국 국 제 협 력 단

KOICA 

- 목 차 -

총 론

1. 조사연구실시의 목적 및 배경

- (1) 목적
- (2) 배경

2. 조사연구의 개요

- (1) 검토내용
- (2) 실시체제
- (3) 실시일정

3. 조사연구결과 요약

- (1) 전체 요약
- (2) 각 분회의 조사결과

4.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과 제언

- (1)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
- (2) 제언

본 론

제1장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의 정리

- 1. 고찰 순서
- 2. 일반적 봉사단원 사업의 고찰
 - (1) 봉사단원의 정의
 - (2) 다른 공여국 등에 의한 봉사단원 파견사업
- 3.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정리
 - (1) JICA 봉사단원사업의 개요
 - (2) NGO와의 비교검토
 - (3) 타 기술협력체제와의 비교검토
- 4.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관하여
 - (1) 서문
 - (2) 협력대 사업의 특징
 - (3) 협력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 (4) 향후 방향성에 관하여
- (5) 장기적 전망을 지향한 논의를 위하여

제2장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접근의 적용방법의 고찰

1. 국별/지역별 접근에 관한 동향
 - (1) 대 아프리카협력에서 프로그램화에 관하여
 - (2) JICA 협력 프로그램속에서의 봉사단원사업의 방침의 기본인식
2. 현지조사
 - (1) 조사의 목적
 - (2) 모델국가 선정
 - (3) 조사방법
 - (4) 현지조사결과
3.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 적용
 - (1) 관계자간의 의식의 공유화
 - (2) 국별과건계획과 국별사업 실시계획과의 관계
 - (3) 요청 배경조사와 통일요망조사와의 관계
 - (4) 봉사단원사업과 타 사업의 연계방식

제3장 국별 접근을 기반으로 한 신규 파견 검토 접근

1. 고찰 순서·시점
 - (1) 배경
 - (2) 검토 절차
2. 현상
 - (1) 협력대사업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검토과정
 - (2) JICA의 타 사업에서 검토 절차
 - (3) 타 기관에서 검토과정
3. 분석
 - (1) 판단기준의 정리
 - (2)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및 「국별 접근의 시점」에서 본 각 판단기준의 검토
4. 「신규 파견국 수립 가이드라인」 시안과 그 적용
 - (1) 가이드라인 시안
 - (2) 수립과정의 시안
 - (3) 아프리카지역에의 적용 사례

(4) 타지역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참고자료

1. 국내에서 협력대사업의 개요

- (1) 모집
- (2) 선발
- (3) 기술보완연수
- (4) 파견전 훈련

2. 해외에서 협력대사업의 개요

- (1) 부임시기 및 활동기간
- (2) 대우·각종제도
- (3) 파견대상국
- (4) 신규 파견국의 선정
- (5) 부문별 파견실적
- (6) 팀 파견, 그룹 파견
- (7) 안전대책
- (8) 건강관리

3. 귀국후의 진로

4. 국내에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개요

- (1) 모집
- (2) 선발
- (3) 파견전 연수

2. 해외에서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개요

- (1) 부임시기 및 활동기간
- (2) 대우
- (3) 파견대상국

현지 사례조사

제1절 현지 조사 일정

제2절 가나 방문

1. 현지 조사 기록 (사무실용)

- (1) JICA 가나 사무소 방문(1차)
- (2) JICA 가나 사무소 방문(2차)
- (3) NGO 현지 사무소 방문

2. 가나 현지 조사 기록 (프로그램용)

- (1)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 (2)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2)
- (3) 기초 교육 확충 관련 프로그램 (1)
- (4) 기초 교육 확충 관련 프로그램 (2)
- (5) 빈곤층의 생계 향상 관련 프로그램 (1)
- (6) 소규모 관개농업 기술 개선 관련 프로그램
- (7) 쓰레기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
- (8) 직업훈련소 신축 관련 프로그램
- (9) 야구 관련 프로그램

제3절 잠비아 방문

1. 잠비아 현지 조사기록 (사무소 등)

- (1) JICA 잠비아 사무소 방문 (1차)
- (2) JICA 잠비아 사무소 방문 (2차)
- (3) 일본 NGO 방문 (1차)
- (4) 일본 NGO 방문 (2차)
- (5) 잠비아 교육부 방문

2. 잠비아 현지 조사 기록 (프로그램명)

- (1) 소농 지원 프로그램
- (2)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관련 프로그램
- (3) 가정연료 개선 프로그램
- (4)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 (5)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2)
- (6)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3)
- (7) 기타 프로그램 (1)
- (8) 기타 프로그램 (2)
- (9) 기타 프로그램 (3)
- (10) 기타 프로그램 (4)
- (11) 기타 프로그램 (5)
- (12) 기타 프로그램 (6)

☐ 영국/프랑스

1. 영국 현지 조사기록 (사무소 등)

2. 프랑스 현지조사 기록 (사무소 등)

(1) 프랑스 해외봉사단파견 기관 방문

(2) AFVP 방문

☐ 니제르

1. 니제르 현지 조사 기록 (사무소 등)

(1)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방문 (1차)

(2)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방문 (2차)

(3) UNDP 방문

2. 니제르 현지조사 기록 (프로그램용)

(1) 초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2) 전염병 대책 및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3)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본 론

제1장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의 정리

1. 고찰 순서

본건 조사연구에서 JICA 봉사단원 사업에의 국별 접근의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있어서, JICA가 관장하는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으로서 보고서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우선 다른 공여국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장에서 「봉사단원」하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타국 공여국은 어떻게 원조를 전개하고 있는지에 이어, 개요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어서, JICA의 관장하는 봉사단원 사업인 청년해외협력대 및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을 중심으로, 사업의 개요에 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각각의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역사적 배경 및 성립, 사업의 법적 위치부여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직종별의 특성에 관하여 정리한다.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JICA가 관장하는 봉사단원 사업을 NGO와 비교하는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JICA가 관장하는 봉사단원 사업을 전문가 파견사업 등의 다른 기술협력 체계와 비교한 경우의 특징 및 고려해야 할 연계 형태 등에 관하여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기술한 내용을 기초로, JICA가 관장하는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관하여 제언을 정리하며, 제2분회에 의한 보고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한다.

2. 일반적 봉사단원 사업의 고찰

(1) 봉사단원의 정의

「봉사단원」에 관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사전인 코지엔(廣辭苑)에서는 「1 지원자. 봉사자. 2 자진하여 사회사업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자발적인 자세와 봉사적인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또한 「국제봉사단원」라는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 「그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람들과 생활과 노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배우는 가운데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각각의 지역 개발과제에 도전하는 자」
- 「헌신, 존경, 직업정신으로서 표현되는 가치관과 인간성을 갖춘 자」
- 「다양한 형태나 참가자격이 있지만, 자발적 의사로 공공성이 강한 활동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상, 국제봉사단원 가이드 : Japan Times사, 2000년 4월 발행)

또한, 2000년(2002년-평성 12년) 11월에 멜버른에서 개최된 「국제봉사단원 파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봉사단원」 혹은 「국제봉사단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오고 있다.

- 봉사단원은 빈곤이 삭감되어, 인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에 중요한 공헌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 국제봉사단원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람들과의 생활과 노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 배워가면서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각각의 지역의 개발과제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 또한, 국제봉사단원은 헌신, 존경, 직업정신으로서 표현되는 가치관과 인간성을 갖춘 자로 정의한다.
- 국제봉사단원은 그 참여적 활동을 통하여, 모국과 파견국 쌍방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아울러, 봉사단원 활동의 경험은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상을 근거로 하면, 봉사단원이라는 말은, 사회공헌, 지역주민과의 일체성, 봉사정신을 시작으로 하는 풍부한 인간성, 자신도 성장하는, 등이라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국제봉사단원의 무대는 「개발도상국」, 시선은 「주민과의 접촉, 공유」, 활동분야는 「공공성」, 목적은 「상호이해나 국제협력」, 그 밖의 유의점(혹은 단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으로서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자발성(자기의사)」

「자신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다른 공여국 등에 의한 봉사단원 파견사업

영국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및 미국 Peace Corps의 사업개요에 관하여 표1-1에 정리하였다.

<표1-1> 영국 VSO와 미국 Peace Corp의 비교 연구

구분	영국 VSO	미국 Peace Corps
1. 역사 (사업개시 연도)	1958년(원래, 대학전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으로서 시작) 1962년(대졸후 사회경험으로서의 체제도 시작)	1961년 3월 1일 (2001년 3월 1일에 40주년 기념)
2. 지금까지의 파견실적 (대상국·인원수)	2만9,000인 현재 2,000인(57%가 여성) 97/98년 예산 : 2,700만파운드(그중 DfID에서 2,000만파운드) 한편, 지출은 해외실적(35.5%), 모집 훈련(24.7%), 운영행정(9.9%)	15만5,000명, 134개국 현재 7,000명(77개국) 2000년 예산 : 2만4,400불
3.1 파견이념 및 기본자세	기술교환(Sharing Skills) 능력구축 국제이해촉진	요구에 합당한 사람의 파견 미국적 사고, 사람에 대한 이해촉진 미국의 다양성, 민족의 이해
3.2 전략(비전) 파견목적 및 계획	교육보건의료·수입 혹은 고용기회의 향상 사회참여의 증대 지속적 이용과 환경보존의 촉진 사회·경험·환경에의 위기 회피 Strategic Plan for 1998-2003 구축 또한 인권에 관한 VSO 정책 포함	미국과 개도국과의 결속강화 최빈국의 개발에의 공헌 우정과 국제적 평화의 촉진
	대원의 자원(talent·기예능력, 의식, 책임, 흥미)	풀뿌리 활동이 전제 민주화촉진, 불평등, 억압, 성(gender), 환경, 빈곤을 초점
4. 파견패턴 및 특징 (연령·직종, 대우, 기타 특성)	평균연령 : 35세(응모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원숙한 인재를 채용 17-70세까지 응모가능)	평균연령 : 28세(18세이상부터, 중심은 25세, 다만 79세 사람도 있는 것으로, 50세이상도 7%)
	국제적(캐나다, 네덜란드에서도 모집) 국적도 다양(기본적으로 영국 혹은 EEC·Commonwealth 가맹국시민) 남녀차별을 없음(남성 929명, 여성 1,010명, 97년도 파견)	대부분 독신(93%) 여성이 많으며(61%가 여성) 소수민족(15%) 고학력(82%가 대졸, 13% 석사) 미국 국적소유자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동구·러시아(74개국에 파견 중)	77개국에 파견 중
	교육센터 많음(영어교사 외)	교육센터(40%), 다음으로 보건의료(18%), 환경(17%), 비즈니스관련(13%), 농업(9%), 기타(3%)
	대원파견이외에도 프로그램실시(동구, 구소련지원), 경제학자파견	일본과 같이 시니어제도나 해외 시니어단원 제도는 없지만, 연령으로 보아 "Senior Volunteers"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다

구분	영국 VSO	미국 Peace Corps
5. 파견시스템	수당은 145-833S(파견국측에서 현지 통화로 지불) 고용주(상대국 파견기관)에 공표 (요청종류, 이력서) + 비용부담(숙박, 생활비) 대원 1인당 1년간 1만1,430파운드 비용 대원에의 자금(500+300+1,500파운드)	수당은 적다(80-665US\$: 단 현지통화로 현지구좌에 입금) 임지의 여행 자유 중도귀국은 30% 규정월액
6. 귀국 후 진로	귀국 후 프로그램이나 진로지원이나 상담	대원지원실(RVS)가 있으며, 진로상담이나 정보제공, 워크샵 제공을 행함 Career up의 수단
		역사가 길어서 진학부터 그 후의 취직처도 다양하다. 예 : 연방정부의 지사·의원, 국제분야(UNICEF 등), NGO/NPO, 교육직, 작가, 통신, 비즈니스관계(은행장)
7. 각국에서 봉사단원의 흥미나 위치부여	NGO(정식으로는 Charity 단체)이며, Lottery에서도 지원을 받음	미국에서는 NGO라 부르지 않고, 통상 PVO(Private and Voluntary Organizations)으로 부름. 이것은 미국건국의 역사, 커뮤니티형성 과정에서, 정부에의 대항, 공공부문과의 구별을 인식하는 것으로 독립한 단체라는 것을 나타냄
8. 각국에서 정부와의 관계·위치부여·역할	정부 DfID에서 3/4이상의 자금을 얻고 있으며, DfID와 공동보조 Board of Trustee에도 DfID가 참가	100% 정부원조. USAID나 국제기구로부터 프로젝트자금원조를 받고 있는 연차총회에는 대통령도 출석
9.1 근년의 경향·전략	동유럽(동구)프로그램·단기프로그램(STP: 3-18개월)·학생 해외체험 프로그램 실시	미국 국내의 학교와 개도국의 연계 프로그램(World Wise School Program)
9.2 신규파견국의 판단	국별전략 수립 UNDP: Human Development Index가 협력종료를 위한 지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체코, 피지, 헝가리에서 철퇴를 계획. EU에 가맹한 국가로부터는 EU가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철퇴예정	

구분	영국 VSO	미국 Peace Corps
10. 모델국(이번 조사에서 사례 조사하는 가나 등 3국)에서의 활동내용	잠비아 Zambia	
	1958년에 당국에서 최초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님. 중고등교육분야(중고등학교나 College의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와 영어교사 파견)이 중심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함. Advisor나 Manager라는 타이틀로의 파견이 많다. 그밖에 약제사를 교육기관에 파견하기도 하고, 직업훈련분야에 파견	1994년에 파견개시하여 당국에서 가장 최근의 단체이다. 촌락을 중심으로 영양개선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농촌부의 급수우이생·보건 교육, 또한 농림수산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빈곤도가 높은 주(동부주·루아브라주, 북부주, 북서부주)에만 대원을 파견하는 것이 특징. 현재 112명이 활동중(11년도 연차보고서)
	니제르 Niger	
	파견하지 않음	약 110명을 환경, 보건,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 파견. 대원은 전기, 수도가 없는 곳에 그룹파견되지만, 동일 지구에 이주하는 것이 아닌, 거점으로서 현지사무소겸 유숙소를 설치하여, 그 근교에 있는 촌락에 개별로 배치되고 있다.(11년도 연차보고서)
	양 단체 모두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의 분야에의 파견이 많음. VSO는 영어교사도 파견	
	68명(2000년-평성12년도), 반수이상인 북부 3주에서 활동. 그중 교육분야(영어, 과학 및 수학교육)에의 파견이 많은 40명 정도. 기타 분야는 토목, 농업, 수관리관련, 약제사·임상등 의견 관련, 비즈니스분야에 파견	북부 3주를 중심으로 158명(2000년-2002년-평성 12년도). 과학 및 수학교육교사, 미술등 교육분야 이외, 식림관련·촌락개발관련, 공중위생, 수관리관련, 중소기업육성, 청소년육성등의 대원을 파견. 비교적, 전문지식과 관계없는 직종에의 파견이 많음

3.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정리

(1) JICA 봉사단원사업의 개요

1) 청년해외협력대

① 역사

1955년-소화30년 중반은, 미국에서는 케네디대통령이 취임전에 제창한 Peace Corps구상이 실현하고, 1955년-소화 30년대말까지에 46개국에 약 1만 4천명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Peace Corps의 창설은 당시의 일본의 청년단체에 의한 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협력대 파견의 실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1962년-소화37년에는 청년단체와 대학교관유지가 일본청년봉사대 구상을 계획하여, 추진협의회를 개설했다.
- 1963년-소화38년에는 추진협의회는 미국Peace Corps의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청년봉사대계획을 정리하여 일본 청년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희망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1964년-소화39년에는 자민당의 정책조사회 내에 청년해외봉사대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는 아시아지역 및 아프리카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 접수후보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청년해외협력대의 기본요령이 완성되어 1965년-소화40년도에 7,300만엔의 예산이 계상되었다.

또한 일본청년해외협력대의 파견업무는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1965년-소화40년 4월20일에 일본청년해외협력대사무국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같은해 10월에는 각의결정에 의해, 일본국 정부로서 협력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하여 국가 정부간에 협력대의 파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같은해 12월 라오스에 5명의 대원이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이후, 실시체제로서는 1974년-소화49년 8월1일에 국제협력사업단 청년해외협력대사무국으로서 인계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2년-평성 12년에 사업개시 35주년이 되었다.

② 지금까지 파견실적(예산 포함)

2002년-평성12년 12월 5일 현재, 2,619명(그중 여성 1,332명)이 파견되었으며, 누계로는 21,079명(그중 여성은 7,412명)이다.

2002년-평성1212년도 예산에 관하여, 대원의 모집선고 훈련, 파견 및 귀국대원대책에 관한 경비를 총계하면 약 163억엔이다.

③ 파견이념(법적위치부여)

국제협력사업단법 제1조(목적)에는 「국제협력사업단은, (중략) 청년의 해외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여, (중략)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경비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제21조(업무의 범위)에서 협력대에 관련된 업무로서 「개발도상지역의 주민과 일체가 되어 당해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적위치부여를 기반으로 한다면, 청년해외협력대사업을 둘러싼 이념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청년이 협력활동의 주체가 되며, 사업단이 지원자와의 입장에 된다.
- 청년의 활동의 목적은, 개발도상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지역의 인재육성, 국가형성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
- 그 밖의 기술협력사업과 달리, 반드시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도상지역의 주민과 일체가 되어」청년이 활동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전술한 것과 같이, 본건 사업의 발족에 즈음하여, 일본으로서 정부차원에서 검토,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발족이후에도 협력대사업은 일본국이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성·의의로서, 상대국 정부의 공적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로서 유효한 사업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체제 및 제도를 담보한데 더해 실시하는 측이 효과적이라는 등의 이유가 고려된다.

④ 협력대사업의 기술협력이외의 측면

협력대의 경우에는 그 활동은 반드시 기술협력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활동을 통하여 상대국의 사람들과의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직종에 따라서는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문화교류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사정 소개, 일본문학 등을 수업에서 담당하는 일본어 교사 대원 및 일본의 전통적 붓글씨(書道)의 기술을 구사하여 지도하는 디자인 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도 상대국의 조직속의 일원으로서 멤버가 되어 활동하는 것도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단에 서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대원 등의 예가 있다 따라서 협력대의 활동방침은 법적근거를 기초로 하면서도 상당히 다양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⑤ 국내 및 해외에서 협력대 사업의 개요에 관하여 별첨 자료1(31-36항)와 같이 정리하였다.

2)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① 역사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은, 1990년-평성 2년도에 「시니어 해외전문가」로서 발족하였다. 동 사업발족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다.

-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기술협력요청의 내용이 다양화하며, 세분화된 전문기술·지식이 필요로 하는 요청 및 개발도상지역의 발전단계에 따라 탄력적인 지도가 필요시되는 요청 등이 증가해왔다. 이를 위해, 일본의 중고령층이 지니고 있는 폭넓은 기술·지식 및 개발도상국에의 기술협력에서 그 적응력 및 유연성 등을 개선하여 평가될 수 있었다.
- 일본 국내에서도 사회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상대적으로 중고령의 「실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층중에서, 퇴직후 등에 봉사단원로서 개발도상국에 부임하여, 일본국의 경제발전과 유사한 궤적을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국가형성의 업무에 오랜 기간 배양해온 자신의 기술 지식,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왔다.
- 1990년-평성2년 당시에는 이미 실버층의 봉사단원 파견사업을 실시하는 조직도 있었지만, 재정기반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는 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사업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경위를 기초로 도입된 「시니어 협력전문가」 제도는, 1996년-평성8년도에 협력대의 시니어판인 봉사단원사업과 위치부여되어 「시니어 해외Volunteer」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업실시주관도 파견사업부에서 청년해외협력대사업국으로 이관되었다.

② 지금까지의 파견실적

본사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니어 협력전문가가 탄생한 1990년-평성2년도에는, 등록자수는 93명, 파견대상국수는 페루, 파라과이, 말레이시아의 3개국이었지만, 익년 1991년-평성 3년도에는, 등록자수가 501명, 파견대상국수는 4개국(서사모아가 추가)으로 증가하고, 파견자수는 12명이 되었다. 그후, 서서히 사업이 확대되어 1999년-평성11년에는 등록자수는 2,707명, 파견대상국소는 17개국(실적은 15개국), 파견자수는 87명이 되어, 사업개시부터 1999년-평성11년도까지의 파견자수의 누계는 338명이 되었다.

2002년-평성12년 12월1일 현재, 파견국은 16개국, 파견중의 시니어 해외Volunteer는 267명이며, 귀국단원 242명을 합하면 509명의 누계가 된다.

③ 파견이념(법적 위치 부여)

1990년-평성2년도에 본건사업이 「시니어 협력전문가」로서 발족할 즈음에, 전문가파견사업과 동일조항의 국제협력사업단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사업발족에 즈음하여 단법상의 근거와 위치부여했다. 본 사업은, 청년해외협력대사업과는 법적인 근거가 차이가 있다는 것, JICA의 봉사단원 사업으로서 위치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법의 법적근거가 동일 전문가파견사업과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청년해외협력대와 동일한 단법상의 위치부여로 모두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시니어 해외Volunteer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부여되어 있다.

「본 사업은 Volunteer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 이전을 통하여 개도국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하는 자신의 강한 희망을 가진 자의 활동을 촉진, 조장하기 위해 이러한 인재를 모집, 선발, 연수하여 파견하는 것이다.」

④ 시니어 해외Volunteer사업의 기술협력이외의 측면

파견국에 대해서는, 시니어 해외Volunteer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전문성에 한정하지 않고 활동으로서, 일본어나 꽃꽂이 등 문화교류, 유도 등 스포츠 진흥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인생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노하우에 의한 축적이 파견국의 사람들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등의 좋은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시니어 해외 Volunteer 본인에 의해서도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생활방식을 재발견하고, 귀국 후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는 귀국단원(OB, OG)이 많이 있다.

⑤ 국내 및 해외에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개요에 관하여 별첨 자료 2(37-38항)와 같이 정리하였다.

3) JICA 봉사사업의 직종별 특성

① 청년해외협력대

[농림수산부문]

개발도상지역에서 요구가 높은 제1차 산업분야에 대한 요청은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요청 수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응모자 또는 적격자를 확보할 수 없는 직종도 적지 않다(야채, 과수, 농업토목, 수의사, 양식 등)

다만, 이중에서 요청 수에 비해 응모자가 상당히 많은 직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전략개발보급원이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경험 등이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 따라서 응모하기 쉬운 직종이며, 협력대 사업의 대표적인 직종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가공부문, 보수조작부문, 토목건축부문]

이러한 부문에는 전문성이 강한 직종이 많으며, 응모자격조건에도 자격 또는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활동으로서는 기술이전이라는 성격이 비교적 강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보건위생부문]

보건위생부문에 관해서도 전문성이 강한 직종이 많으며, 응모자격조건에 당해 직종의 면허 및 실무경험이 필요로 하는 요청이 적지 않다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등 요청수에 비해 응모자가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직종도 드물게 보인다

보건위생부문중 직종에서 응모자가 많은 것은 간호부이다. 간호부의 경우, 간호부 면허에 더하여 당해 분야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많으며, 실제의 현장에서는 맨파워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교육문화부문]

7개 부문 중에서 누계로 본 경우 및 파견 중 활동 단위 실적으로 본 경우 어느 쪽이든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교육문화부문이다.

그중에서도 응모가자 많은 직종의 하나가 청소년활동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소개,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의 이벤트의 기획, 운영 등의 협력을 행하는 본건 직종에 관해서는, 자격, 경험 등이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응모하기 쉬운 직종이며, 협력대 사업의 대표적인 직종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또한 본건 부문에 관해서는 일본어교사, 초등학교 교사,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라는 교실형의 직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직종에 대한 응모자도 많이 있다. 이러한 직종에 관해서는, 대원 스스로 교단에 서서, 수업을 행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기술이전이라기 보다는 일손을 제공하는 맨파워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에 관해서는 파견국에 따라서는 교사자격증(교원 면허)이 없어도 교단에 서는 것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자격, 경험 등이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응모가능한 직종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스포츠부문]

파견중 대원을 7개의 부문별 비율로 보면, 스포츠부분은 교육문화(36.6%), 농림수산(18.3%), 보건위생(17.8%)에 다음으로 제4위(9.5%)이며, 2002년-평성 12년도 가을 모집에서 보아도 총계 100건을 초월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JICA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이 정도로 많은 스포츠 부문의 인재를 파견하는 체제는 달리 없으며, 협력대 사업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유도, 가라데(空手道) 등 일부의 직종에 관해서는 일본의 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는 의미에 일치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시니어 해외 Volunteer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에 관해서는, 계획·행정, 공공·공익사업, 농림수산, 광공업, 에너지, 상업·관광, 인적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9개 부문이 있다.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에 관해서는, 파견실적이 협력대와 비교하면 현재까지의 시점에서는 아직 그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부문·직종별 특징의 분석은 향후 맡겨질 수 있지만, 인적자원부문 속에 문화·스포츠라고 하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봉사단원 사업으로서의 특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NGO와의 비교검토

여기에서는, (해외파견에 있어서의) NGO와 협력대와의 비교를 행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중에서 추출된 협력대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NGO와 협력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결국, 개도국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봉사단원 활동이라는 면에서도 청년육성이라는 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결국에는 국가가 협력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일본의 국익·외교의 일환이 되는지의 여부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국익·외교의 일환으로서의 봉사단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개도국이 필요로서 말해도 외교상의 이유에서 협력을 중단하기도 하고 실시를 대조하기도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국의 국별원조계획속에 봉사단원 사업도 몇 가지 형태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대 사업은 말하자면 국제협력 봉사단원의 「입문과정」이 되는 면도 있어서 안 된다. 사실 일본의 국제협력 NGO의 다수에서 협력대 OB/OG가 중심적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특필할 가치가 있다.

<표 1-2> 다양한 측면에서의 NGO와 협력대의 비교(일반적 경향)

구 분	NGO	협력대
형태	시민-시민의 협력	국익, 외교의 일환
활동내용	풀뿌리, 주민참가형	풀뿌리, 주민참가형
대우	무상	최저한 생활수당
파견기간	단기	2년간
보상제도	거의 없음	공제, 노재
사업규모	소(중)규모	소~중
지원체제	취약	우수
협력의 대상	풀뿌리 수준이 중심	상대국 정부기관이 중심
참가하기 쉬운 정도	용이 (곤란)	중간 정도

(3) 타 기술협력체제와의 비교검토

1) 전문가파견사업

① 전문가와의 비교

협력대사업과 기술협력 전문가와의 최대의 차이점은 Volunteer인지의 여부다. Volunteer는 일반적으로 자발성, 무상성, 시한성, 공공성의 유무에 따라 정의되고 있지만, 확실히 자발성, 무상성의 두 가지 점에서 전문가와 협력대는 두드러지게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협력대의 캐치프레이즈로서 「오지 전진주의(오지로 향해 나아감)」, 「민중 지향」 등이지만, 후자는 협력의 한사람의 수법, 형태에 있어서 반드시 협력대만의 것은 아니다. 전문가로서도 주민참가형의 접근의 중요성은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높지만, 동일 분야에서 전문가와 협력대와의 연령이 역전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이며, 또한 최근의 시니어 해외봉사단원(SV)의 존재에 따라서 그 기술 수준의 경계선은 애매해졌다.

<표1-3>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가와 협력대의 비교(일반적 경향)

구 분	전문가	협력대
관련자	생업, 비즈니스	자발성
보수	유상(전문, 경험의 대가)	무상(생활비만 지급)
협력의 주체	국가 정부(G)	일본 청년(시민)
정부와의 관계	G - G	시민 - G - G - 시민
협력대상자	지도자층, 엘리트층	중견층, 민중지향
요구되는 기술수준	높음	낮음 ~ 중정도
평가	성과중시	동기주의(자바라적 참가의 정신을 중시)
경험	풍부	낮음 ~ 중정도

② 시니어 해외봉사단원과 전문가

기본적으로는 상기 협력대와 같은 모양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자료 4 참조)

- 전문가에 비해 인적교류의 측면이 강하다.
- 협력대사업과 같은 모양의 전문가에게는 없는 문화 스포츠의 분야가 있다.
- 귀국후의 활동, 생활에 있어서도 시니어 해외Volunteer OB/OG의 사람들이 전문가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일본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큰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개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도 공적인 부분 및 사적인 부분에 걸쳐 지역 및 일본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고려되어 국비에서 파견된 봉사단원로서의 귀국후 효과는 충분히 상정된다.

<표1-4>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의 특징(일반적 경향)

분류	요점	특징	전문가와의 비교
현지에서의 활동/생활	기술협력	전문성이 높음	유사
		경험이 풍부	유사
		대상자의 폭이 넓음	유사
		연령효과가 있음(상대국 중년층 이상에 대한 파급효과도 포함)	보다 큼
		기자재비 등의 활동비	상당히 낮음
	인적교류	이문화 이해의 촉진	유사
		활동에 자유도가 높음	보다 큼
		폭넓은 연령층과 교류 가능	보다 큼
	직종	파견대상기관이 폭넓으며, NGO, 기업단체 등	보다 폭넓음
		대상수준이 풀뿌리에서 중앙정부까지 가능	보다 폭넓음
		직종의 폭이 넓음	보다 폭넓음
	문화, 스포츠	국위의 발장, 국민으로서의 의식증대	SV만
		일본문화의 전파, 전승이 가능	SV만
	처우	현지생활비등 파견수당	상당히 낮음
귀국후 활동/생활	사회성	사회적 평가, 발언력이 높음	보다 높음
		국가에의 면적 파급효과가 높음	보다 높음
		일본사회 전체에의 긍정적으로 영향	보다 높음
	생활방식	사회환원의식의 증대	보다 높음
		시야의 확대	유사
		적극성의 증대	보다 높음
		봉사단원의 체현	보다 높음
장래 전망	국내	일본사회의 개혁에 공헌 → Opinion leader	보다 높음

③ 고려되어야 할 연계의 형태

○ 연계의 가능성

상대국 정부의 요청 순서에는 대원과 전문가가 동일한 배속기관에서 활동하고 연계를 도모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협력형태이다. 또한 배속기관은 차이가 있어도 대원이 기획, 실시하는 강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출석하기도 하며, 또한 전문가가 실시하는 이벤트로 대원이 참가하는 등의 연계도 있을 수 있다.

시니어 해외봉사단원과 전문가와의 연계는, 국별 사업실시계획의 프로그램에서 체계의 하나로써 가능하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연계효과는 증대되고 있다고 상정된다. 프로그램을 의식하고 요청안건 발굴 등을 실시하는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자문가, 시니어 해외Volunteer를 현장형으로서 요청하고 있는 사무소도 있다.

○ 연계를 행하는데 있어서 유의사항

전문가와 대원의 연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전문가와 대원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업무내용, 배속기관의 수준, 활동지역(수도, 지방 등)).
- 전문가 및 대원이 파견전부터 상호 업무내용, 파견형태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다.

또한, 시니어 해외Volunteer와 전문가의 연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 대원과 같은 모양으로 업무내용, 배속기관, 활동지역 등의 점에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과 전문가와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 대원과 전문가의 유의점과 같은 모양으로 배속기관 업무내용, 활동지역 등 전문가와의 연계의미를 명확히 한다.
- 전문가 파견의 대체로서 시니어 해외Volunteer의 요청이 많다. 이 경우, 시니어 해외Volunteer는 전문가와 비교해 현지 업무비나 기자재비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견기관 측에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파견기관 측의 설비, 기자재, 체제 등을 수요조사·요망조사시에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기술협력체제

①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

전술한 것처럼 전문가와 대원 또는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의 연계에 관해서는,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따르다면, 효과적인 실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에서는 전문가가 복수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JICA Volunteer의 기대되는 업무, 위치부여를 잘 정리하는데 더해, 쌍방이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② 무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에서 건설된 건물 중에 대원 또는 시니어 해외Volunteer가 활동하기도 하며, 또한 무상자금협력에서 공여한 기자재의 활용에 관련된 협력을 JICA Volunteer가 실시하는 등의 연계가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무상자금협력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장래적인 협력의 가능성으로서 JICA Volunteer의 파견에 관하여 상대국과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NGO와의 관계(개발복지지원, 개발파트너 사업)

NGO에 대원 또는 시니어 해외Volunteer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비교해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청 배경조사를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반면 기동력 및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는 NGO의 경우 이점이 있으며, JICA 봉사단원을 배속시키는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JICA 사업 중에 현지 NGO가 관여하는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서 개발복지지원, 개발 Donor 사업이 최근 창설된 사업이며, 앞으로는 JICA Volunteer를 잘 끌어들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④ 풀뿌리 무상

재외공관 주도의 체제이지만, 풀뿌리 수준의 지원을 행하는 사업이며, 현지 주민과 일체가 되어 활동을 행하는 JICA Volunteer와 연계를 도모하는 예는 지금까지에도 가지가지 나타나고 있다.

4.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관하여

(1) 서문

협력대도 발족 이래 36년차를 맞이했다. 매년 8,000명을 넘는 일본의 젊은이가 응모하고 2002년-평성 12년말에 3,000명 가까운 협력대원이 60여개국의 개도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협력대 사업은 이와 같이 커다란 규모에서 개도국에 일본인을 파견하

고 있으며, 또한 「얼굴이 보이는 원조」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ODA 예산의 감축, NGO의 활성화, 시니어 세대의 봉사단원 활발화, 개도국의 요구의 다양화 등, 협력대를 둘러싼 환경은 사업발족 당시에 비해 격변하고 있다.

(2) 협력대 사업의 특징

협력대 사업의 특징으로서 우선 파견이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술한 것처럼 개발도상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활동을 행하는 대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협력대 사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술협력과 청년육성이 일체가 된 국제협력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해외에서의 2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상대국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원 자신이 각종 만남 속에서 성장해가며 그 후 인생설계에 도움이 되는 혹은 귀국 후에도 일본과 해외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청년사업』이나 『국제교류』에도 기여하는 상승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업발족 이래, 협력대 사업의 목적을 기술협력(국제협력)인지 혹은 청년육성(국제교류)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의 협력대는 그 어느쪽이든 한편의 목적은 아니며, 양자가 자동차의 바퀴가 된 국제협력사업이다. 사업발족 이래 70개국 이상에서 2만명을 넘는 협력대원을 파견하고, 개도국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 협력대 사업이 지닌 이 특이한 성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명기하고자 한다. 개도국의 풀뿌리수준의 요구와 일본 청년의 Volunteer 정신을 매칭시켜 그 양자의 만남 속에서 주로 해외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청년육성(국제교류)」가 달성된다고 하는 상승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이와 같은 협력대 사업이 지닌 복합적 성격은 미국의 Peace Corps에서도 같은 모양이며, Peace Corps의 목적으로서 개도국 사람들의 생활 향상, 미국인의 개도국 이해 촉진, 개도국민의 미국 이해촉진의 세 가지가 병렬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흥미가 깊다.

<참고>

위에 나오는 협력대의 복합적 성격은 협력대 발족 당시부터 이하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중점치에 변화도 있지만 사업 발족 당시부터 「청년육성」, 「국제교류」, 「국제협력」이 병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특필한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JICA 설립 당시에 이 유일한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해 「주역은 청년, JICA는 지원자」로 정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청년의 해외협력활동을 촉진·조장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어느 것으로 해도 통상의 기술협력사업과는 차이가 나는 사업으로서 JICA 안에 위치부여되고 있다.

· 坂田道太 전(前) 중의원의장(1964년 3월 자민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의 청년으로 헌신하는 기쁨이나 자신을 시험해보는 기쁨을 체험하고 동시에 그것이 일본의 국제협력관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족한 것이 협력대였다.」(협력대 20주년지)

·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 이사장 宛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의 문서(1965년 5월)

「개발도상에 있는 제국의 요청에 기초하여 기술을 몸에 익혀 심신과 함께 건전한 청년을 파견하고, 상대국 사람들과 생활과 노동을 함께 하면서, 상대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에 협력하고 이러한 제국과의 친선과 상호이해를 깊게함과 동시에 일본 청년의 폭넓은 국제적 시야의 자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국제협력사업단법(제21조 1항 2호)(1974년)

「개발도상국지역의 주민과 일체가 되어 당해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에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청년의 활동을 촉진 및 조장한다」

(3) 협력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ODA를 둘러싼 변화(성과주의, 평가의 중시)

협력대사업도 ODA의 일환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이상,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도는 그것을 위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가 엄격히 추궁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ODA 예산이 이제까지와 같이 성역이 아니고 반대로 삭감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ODA를 보는 국민의 눈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봉사단원 사업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격한 환경에서 돈벌이가 아닌 봉사단원로서 뛰어 들고 있다는 미담(美談)이며, 또한 한사람 한사람의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상이 있었다. 그러나 NGO의 존재가 커짐에 따라 세금을 사용하는 봉사단원와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협력대 사업에서 성과 및 평가의 중요성이 일찍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ODA를 둘러싼 변화로서는, 그밖에도 개발 이슈의 대두(빈곤, 환경, gender, 평화구축 등) 등도 들 수 있다.

2) 일본사회의 변화

① 시니어 세대의 봉사단원 증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에 촉발되어 시니어 세대의 봉사단원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Peace Corps는 연령에 구별하지 않지만 협력대는 청년으로 그 대상 범위를 좁힌 것도 있으며, 20세 ~39세로 연령제한을 행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오랜 기간이 경험, 지식을 개도국을 위해 발휘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시니어 세대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JICA로서도 1990년-평성2년도부터 시니어 해외 Volunteer(SV)의 파견을 개시한 경우도 있다. 2002년-평성12년도에 전년대비 4배인 400명, 13년도도 500명 파견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제 곧 협력대 사업에 필적할 만한 사업규모로 되고 있다.

② 개발교육지원의 중요성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이 본격 도입되어, 국제이해교육(개발교육)이 학교교육현장에 점점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00년 11월의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제언에는 봉사활동의 의무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 교육계의 움직임에 맞추어 협력대의 일본국내에서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애초 일본에 「개발교육」활동을 도입한 것은 협력대의 귀국단원(OB/OG)라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협력대의 경험을 일본 국내로 환원해 가는 것은, 협력대사업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개발교육을 어떻게 협력대 사업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하는 것도 긴밀한 과제이다.

③ NGO의 성숙

협력대 발족당시, 해외에서의 봉사단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은 대부분 협력대 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일본의 NGO는 그 수에 있어서도 규모에 있어서도 구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신(阪神) 오사카 및 고베 등 칸사이지방)대지진 이후 「봉사단원」, 「NGO」는 지명도도 높아 일본사회에서 착실히 침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서 봉사단원 활동하는 기회는 대폭 증가하여 긴급원조나 개발원조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NGO도 증가하고 있다. 요 몇 년 협력대예의 응모자가 한계점에 달한 상태이며, 참가자측으로부터 보면 협력대는 수많은 해외 봉사단원의 하나의 옵션으로 매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는 협력대라고 하는 하나의 해외 봉사단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의 의미가 엄격히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NGO를 통한 ODA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NGO 보조금, 개발도

너 사업, Japan Platform 등)이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현행과 같은 JICA가 봉사단원을 직접 파견하는 방법에서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NGO에 대하여 자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환하고, JICA도 funding agency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역시 NGO의 성장 그것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협력의 다양화 및 장기간의 협력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종래 협력대가 들어갔던 분야 및 국가에서의 활동(예 : 난민구제, 거리 청소년-street children의 지원, 로컬 NGO를 비롯한 비정부기관에의 파견, 분쟁지역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정부간 협력과 민간협력과의 연계도 가능하게 되는 등의 플러스면도 있다고 생각되는 취지를 부연하고자 한다.

④ 지원자의 변화

근년, 여성 지원자 증가, 비기술계 지원자의 증가, 개발을 학습한 자를 시작으로 하는 지원자의 고학력화라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일본 국내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특징의 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3) 일본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변화

협력대 사업발족당시는 일본의 사회경제구조가 개도국의 구조와 그만큼 괴리가 있지만, 수원국의 요구도 다양화 및 고도화하여 또한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 등도 있으며, 그 괴리는 한층 확대하고 있다. 이 결과, 야채, 도작 등의 농업분야, 1차 산업분야 대원의 확보는 상당히 곤란하게 된 반면,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나 일본어 교사 등의 분야에서는 반대로 요청 개척이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불균형은 요청개척, 모집, 선발, 훈련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약 5% 정도의 대원이 얼마간의 기술보완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사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기술」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 활동이나 소아마비 대책 등의 직종이 급증하고 있다. 「기술과 열의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 협력대 사업의 근간이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협력대 사업속으로 어떻게 위치부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의문시되고 있다.

(4) 향후 방향성에 관하여

전술한 것처럼, 성과의 중시, 시니어 세대 Volunteer 증가, NGO의 성숙 등, 봉사단원 사업을 둘러싼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변화 속에서 봉사단원 사업방식을 음미하고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도모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봉사단원 사업에 기대되는 것은 상당히 다양화하고 있지만 향

후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각각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 - 풍부한 봉사단원 사업」이 향후 과제일 것이다.

1) 보다 효과 높은 협력을 목표로

ODA의 효율적, 효과적 실시의 관점에서 봉사단원 사업이라고 해도, 보다 높은 협력효과와 그 평가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각 봉사단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술 수준 및 기술이전능력을 요구하며, 전문가와 역할은 다른 것으로 하나의 종류로 동일한 형태의 output(성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국가에서 협력대원을 「시니어·전문가」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 측면을 중시한 견해일 것이다. 또한 시니어 해외 봉사단원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높은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둘째로 각 봉사단원 사업을 보다 상위의 개발계획이나 국별 협력계획 등에 명확하게 위치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별 협력계획 수립 단계에서 요망조사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봉사단원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봉사단원 사업과 기타 사업과의 연계도 한층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특히 종래 그 위치부여가 애매했던 스포츠나 예술계의 직종에 관해서도 「기초교육의 강화」 등의 상위목표 속에서 위치부여하고, 우선도가 높으면 오히려 전문가 파견이나 무상자금협력(폴뿌리 무상 등) 등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높이면서 plan do see의 사업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팀 파견에 관해서는 일부 평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봉사단원 사업을 프로그램이나 국별로 평가하는 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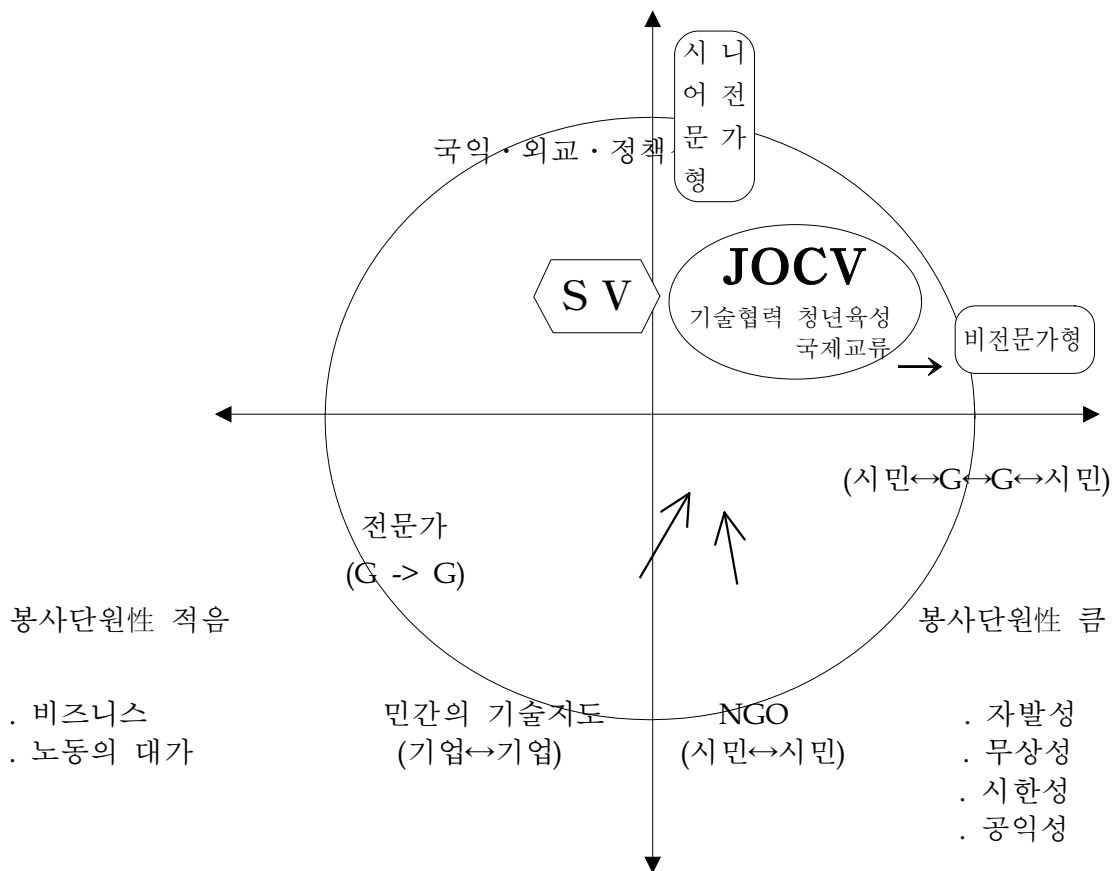
<표1-5> 「시니어 전문가형 협력대」와 「비전문가형 협력대의 비교」

	시니어 전문가형 ¹⁾	비전문가형
전문성, 기술	중시	불문
활동형태	기술이전형	격차를 메우는 gap filling형
활동기간	장기간	단기간 ~ 장기간
선발	기술면 중시	인품 중시
평가	기술이전의 평가	프로그램 평가
귀국후 대책	Career path 정비	개발교육지원

2) 보다 문호를 넓히는 봉사단원 사업을 목표로

NGO의 성장에 따라, 국민이 해외봉사단원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NGO도 싹트고 있다. 현상의 일본의 NGO를 시야에 넣으면서 JICA의 봉사단원 사업을 되돌아보면 「해외봉사단원의 입문과정」, 「국가의 봉사단원(외교의 일환)」 등의 특수성(비교우위성)이 두드러졌다.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해외봉사단원의 기회를 일정 규모로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면 JICA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발교육지원 등의 일본의 교육계의 기대나 시니어 세대의 자기실현 등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단원 정신이 풍부한 시민이 참가하기 쉬운 각종 제도의 정비나 파견직종의 다양화(청소년 활동이나 소아마비 대책 등의 특별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는 직종)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시니어 전문가형」은 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예비군적인 타입의 협력대이며 「비전문가형」은 보다 국민으로 해외봉사단원의 문호를 넓히는 타입의 협력대이다.



국익·외교·정책성 작음(비ODA)

<표1-6> 일본의 인적 국제협력

3) 협력대 사업과 SV 사업의 통합을 목표로

영, 미, 불 등의 봉사단원 사업과 비교하여 연령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SV 사업의 성립이 「시니아 - 협력전문가」에서 출발한 것을 말하며, 이미 도상국측에도 SV 참가자측에도 「봉사단원사업」으로서 침투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각종 대우, 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약속의 체결방법, 사업단법의 재검토 등을 시야에 넣어 폭넓은 논의를 행할 필요가 있다.

(5) 장기적 전망을 지향한 논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봉사단원 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약간 부기하고자 한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봉사단원 사업에는 향후 다양한 방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의 하나하나가 충분한 논의와 실천 속에서 음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봉사단원 사업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그 변화는 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예산의 대폭 삭감, 실시체제의 대폭 재검토 등), 봉사단원사업의 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례를 들면, 이미 기술한 것처럼 협력대 사업에 관해서도 「국가의 봉사단원」으로서 「청년육성/국제교류」와 「기술협력」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협력대가, 한편에서는 보다 국민에게 해외Volunteer의 문호를 넓히는 형태의 협력대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벡터와, 한편으로 보다 전문성을 중시하여 전문가 예비군적인 타입의 협력대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벡터(Vector)가 공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것으로 해도 파견규모나 파견기간 특히 모집 선발, 훈련까지를 일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표1-5 및 표1-6)2).

2) 양자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활동형태, 활동기간 등을 비교한 것이 <표1-5>이다. 또한 협력대와 SV를 NGO나 전문가와 비교하면서 2차원상으로 표현한 것이 <표1-6>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시니어 전문가형」과 「비전문가형」으로 호칭한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봉사단원 파견사업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전개하는 즉 일본이 협력대 등을 파견하는 국가가 제3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가능성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협력대사업의 역사와 실적을 기반으로, 국민적인 논의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21세기의 봉사단원상을 모색해갈 필요가 있다.

제2장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의 적용방법의 고찰

1. 국별/지역별 접근에 관한 동향

(1) 대 아프리카협력에서 프로그램화에 관하여

1) 원조국, 기관에서 최근의 경향과 일본 측의 대응

1990년대 후반부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하 「SSA」)에서는, 원조의 framework가 크게 변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선 이 움직임을 프로젝트형 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원조에의 변환 관점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① 긴밀한 공여국 협조

199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두드러지지 않는 반성, 대폭적인 ODA 예산 삭감 등을 배경으로, 원조협조의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다. 1996년에 채택된 DAC 「신개발전략」의 구현화라는 문맥에서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② 부문별 수준의 활동에서의 중점 이행(프로젝트형 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원조에의 이행)

원조협조의 체제로서 정착하고 있지만, 「Sector Program(SP)」이다. SP는 「프로그램 실시국의 오너십 및 해당국과 지원 공여국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Sector 전반을 망하는 정책·전략, 중장기적인 sector 개발계획의 체제, 국가예산에 들어맞는 재정·지원계획, 행동계획, 실시수속을 수립하고, 해당국과 공여국에 의해 실시되는 개발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해당국 정부가 오너십을 갖고, 공여국의 지원 하에 수립한 교육부문 개발계획을 관계가가 공유, 공여국은 동 계획의 우선도에 따라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실시 모니터링, 평가 및 조달, 재정관리(common basket이라는 지원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다)등에 관한 공통의 실시수속을 채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통상, MOU형으로 공여국의 commitment를 확보한다).

이러한 SP 도입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형 원조에의 비판이 근거가 된다.

- 개도국의 오너쉽이 육성되지 않는다(공여국 주도경향)
- sector 전체의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복수의 공여국에 의한 프로젝트의 proliferation)
- 공공지출계획과의 정합성 결여(recurrent cost)
- 개도국측의 원조조정능력부족(프로젝트의 중복)
- 상이한 원조절차(개도국에의 과도한 인적·물적 부담)

일본/JICA에서 「프로그램형 원조」라는 것은 광의로는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루는 「바스켓형」의 원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세계은행 등이 주창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는, 자금이 제공되는 프로젝트가 특정화하지 않는, 비프로젝트 원조 혹은 재정지원형 원조를 의미한다. 세계은행, 영, 북구 여러국가등의 SP 추진 공여국은 프로그램형 원조에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르면 공여국측은 피원조국이 sector 포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능력구축을 지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로 이행하는 것으로 진정한 오너쉽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1999년 9월의 세계은행·IMF 합동개발위원회에서 HIPC(중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에 의한 채무삭감의 적용 및 세계은행·IMF 유자를 받는 전제로서 빈곤삭감 전략서(PRSP)의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재 SSA 각국에서 PRSP의 수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PRSP는 SP의 상위계획으로서 위치부여되고 있으며, SP와 같은 모양, 원조협조체제하에 수립·실시·모니터링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③ 일본의 대응

일본으로서는, 원조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조협조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sector program 등의 일련의 협조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따라서 「one fit all」적인 재정지원형 원조에의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 짓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형 원조의 유효성은 계속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각 공여국의 비교우위가 발휘되어 피원조국이 원조 모니터링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best mix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SP는 교육, 보건, 농업, 진로 등의 sector에 있어서 수립·실시되고 있다. JICA로서는 sector 프로그램 중점국(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을 중심으로 SP의 수립·실시·모니터링·평가 등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SP에 따른 JICA

사업의 전개를 행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SP의 문제점, JICA로서의 대응 과제도 명확해지고 있다. 문제점으로서, SP의 원칙에 반하여 공여국 주도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SSA 여러 정부의 계획 수립·실시 등에 관련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JICA로서는 상대국 정부의 능력구축을 어떻게든 도모해가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SP가 특정 sector에 집중하고 있는 것(예를 들면, 교육부문에서 기초교육), 재정원조 지원이외의 지원방식을 반대하여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도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으며, JICA도 시의적절하게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설명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JICA가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우리 협력의 예측성의 향상, 수속절차의 공통화(common basket, 재정지원에의 대응)에 관해서는, 일본 전체(all Japan)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개발조사체제에 의한 「탄자니아 지방 개발 sector 프로그램 수립지원조사」를 개시하였지만, SP의 수립·실시·모니터링·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지원을 통하여 전술한 신규 원조형식의 유효성을 검증해왔다고 생각한다.

2) JICA의 노력과 「협력 프로그램」

JICA는 국별·지역별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지역 4부의 신설을 시작으로 하는 조직개혁을 실시하였다. 국별·지역별 접근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이미 1997년-평성 9년도부터 과제별 수요조사-요망조사의 도입, 1998년-평성 10년도부터는 국별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실시했지만 이제까지의 노력의 현상 및 과제에 관하여 개관해보고자 한다.

과제별 요망조사에 있어서는, 전술한 체제별로 검토를 다시하고, sector/과제의 전체적 파악·분석에서 출발하여 개발과제를 추출하고,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원조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고, 「JICA 협력 프로그램」(주: 「JICA 협력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접근」 등의 호칭에 관해서는, 「sector·프로그램형 원조」나 그 밖의 JICA 여러 사업과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작성된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까지 체제(형태)별로 발전시켜왔던 JICA 사업을 「특정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투입이 계획된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안건들」로서 받아들여 수정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평성 12년도의 요망조사에서는, 「JICA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 검토하여 그 후 형태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안전의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러한 「의식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프로그램별 요청, 채택(국제약속의 형성), 예산·사업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사업실시계획에서는 과제별 요망조사와 연동하여 향후의 예정을 포함한 5년간의 rolling plan으로 계획을 기재하는 것으로, JICA에 의한 협력의 중기적인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JICA 협력 프로그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형성단계에서 목표 및 측정가능한 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연구가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1)에서 기술한 프로그램형 원조와 「JICA 협력 프로그램」 혹은 「JICA 프로그램·접근」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JICA 협력 프로그램」은 「특정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투입이 계획된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안전들」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JICA의 「in kind 협력」의 범주에서 JICA 사업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형 원조」는, 전술한 것처럼, 해당국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술한 「프로젝트형 원조」에의 비판에 대해 정의가 다른 「JICA 협력 프로그램」의 도입을 갖고 설명할 수 없다. 국제적 원조조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도 재정지원형 원조의 tool을 지니면서 「in kind 협력」을 실시해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JICA 협력 프로그램」에서 봉사단원 사업의 위치부여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2002년-평성 12년도부터 명시적으로 봉사단원사업을 국별사업실시계획에 위치 부여해간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과제별 요망조사와 봉사단원사업의 요망조사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 등으로 「JICA 협력프로그램」에 봉사단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SSA에 있어서는, 특히 풀뿌리에 도움이 되는 협력(out reach형 협력)의 한 형태로서 현지 NGO가 실시하는 개발복지지원의 유효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봉사단원사업도 같은 형태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현지 NGO에 비해 봉사단원 사업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형성단계부터 투입의 하나인 체계로서 검토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 중에는 독단적으로 활동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대국의 카운터파트,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자조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처지가 낫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남용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대원이 있다. 그러한 개별 활동에 한

계를 느끼고, 커다란 틀 속에서의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보건, 교육, 촌락개발 분야 등의 확실히 빈곤사각의 핵이 되는 분야이며, 인재육성, 제도구축의 전단계의 기반 구축이 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가하고자 한다.

(2) JICA 협력 프로그램 속에서의 봉사단원사업의 방침의 기본인식

상기 (1)에서 기술한 것처럼, JICA 전체로서 노력하고 있는 국별·지역별 접근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원 사업도 이 방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 봉사단원사업에 관하여, 국별사업 실시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봉사단원사업에는 기술협력 이외의 측면(봉사단원 자신의 성장, 국제이해의 촉진 등)이 있는 것 또는 국민참여형 사업에서 공모제를 위해, 인재의 확보·파견시기 등에 불확정 요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엄밀한 계획에 따라 파견에 곤란이 수반하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봉사단원사업을 국별사업 실시계획 속에서의 「JICA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전면적으로 위치부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스포츠 부문 등 국별 사업 실시계획 속에서 원조 중점분야로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취급에 관해서는, 폭넓은 인재육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파견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낮춘다는 것은 아니다.

2. 현지조사

(1) 조사의 목적

제2분회에서는 제1분회에 의해 명확하게 된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국별사업 실시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중점 sector의 분석이 이루어진데 더해 JICA의 rolling plan으로 어떻게 다른 체제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다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1) 국별사업 실시계획과 청년해외협력대 국별 파견계획

상술한 기본인식에 입각하여 국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에 봉사단원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받아들여 rolling plan으로 적극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무소도 있지만, 전체로서는 개발과제의 정리 속에서 봉사단원사업을 어떻게 국별사업 실시계획의 rolling plan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따라서 현지조사에서는 실제로 현지에서 국별사업 실시계획, 국별 파견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사무소 직원, 협력대 행정원(조정원),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협력대원과 의견교환을 행하여 국별사업 실시계획 및 국별 파견계획의 수립에 맞추어 어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즉, 국별사업 실시계획 속에서의 봉사단원사업의 위치부여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국별 파견계획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정리한다.

2) 요청배경조사 방식

1999년-평성 11년도 기구개편을 행하여 JICA는 지역부를 설치하고 국별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지역인 아프리카지역, 특히 sub사하라·아프리카 여러 국가는 채무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PRSP의 수립과정에 있다. JICA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그 체제속에서 수립하고 있는 현상에 있으며, 봉사단원사업에 관해서도 커다란 framework 속에서의 위치부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인 요청배경조사 방식에 관하여 통일된 요망조사와의 관련도 포함하여 고찰한다.

3) 기타 체제와의 연계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전문가 등 JICA의 기술협력 체제, 무상자금협력, 혹은 타 원조기관, 국제기관 등과의 연계·정보교환이 예상된다. 과거에 전문가, 무상자금협력과의 연계안건으로서 협력대원 파견을 실시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예가 드물게 보이기 때문에 협력대 사업은 다른 체제와는 일정의 거리를 두고 실시해 왔다.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연계방식에 관하여 고찰한다.

(2) 모델국가 선정

현지조사는 특히 일본의 협력 속에서 봉사단원사업이 점하는 비율이 높고 정부의 원조 흡수 능력이 타 지역에 비교하여 높지 않으며, 풀뿌리의 일반 주민(농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요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

다.

대상국에 관해서는, <표2-1>과 같이 아프리카 내에서 지역배분, 대원파견의 역사·실적, 치안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나, 잠비아, 니제르 3개국을 선정하였다.

(3) 조사방법

1) 정보수집

① 국별 사업실시계획의 rolling plan에 있어서 봉사단원을 다룬 것을 1999년-평성 11년 청년해외협력대 연차보고서(「그룹 또는 팀 방식 파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전문가, 무상자금협력,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등, 기타 JICA 사업부 및 국제기관과의 연계」), 국별 파견계획, 국별 개요 및 행정원 업무 최종보고서 등에서의 기술과 비교하여 조사사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을 고른다.

② ①의 과정에서 채택된 봉사단원 및 관련 전문가, 기획조사원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당해 봉사단원의 보고서에서 개요를 파악한다. 또한 관련된 다른 체제의 안건에 관해서도 지역부 담당자로부터 개요 설명을 받는 것과 함께 참고자료로부터도 개요를 파악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대원, 전문가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의 확인작업·의견교환을 행함과 동시에 사무소 관계자 등과의 의견교환을 실시한다.

2) 분석 및 그것을 기초로 한 검토·고찰사항

① 상기 사례연구 중에서 국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직종 파견 형태, 전개 형태를 연구하고, 기술협력으로서 명확하게 위치부여된 부분을 확정함과 동시에 대원의 TOR에 관하여 검토하고 어떻게 모집요항에까지 반영시킬 것인지 고찰한다.

② 그 과정에서 다른 체제와의 연계를 실시할 경우의 효과적 실시방법에 관한 유의점, 제언을 실시한다.

③ 청년해외협력대 국별파견계획과 국별사업 실시계획 및 요청배경조사와 통일요망조사의 효과적 연계방식을 고찰한다.

표2-1> 현지조사국 선정을 위한 국별비교표

	GNP (LDC)	NDS/ PRSP	국 별 사 업 실 시 계 획	대 원 파 견 수 () 누 계	파 견 협 정 체 결 년	팀/그룹파견유무	비고	검토 효과
(서부)								
세네갈	530		○	59(422)	1979	파텍주(그룹)		
코트디부아르	700		○	40(143)	1989	무, 단 보건·의료관계 대원이 많으며, 연계활동사례 있음	99.12월, 쿠데타로 신규안전정지중(JOCV는 인도적원조로 신규도 계속)	
가나	390	◎	○	63(698)	1977	북부빈곤지역 대상으로, 지역사회개발-촌락개발보급원, 공중위생 중심의 그룹파견 검토중		◎
(니제르)	190L		●	61(271)	1983	녹색추진협력프로젝트(팀), 소아마비대책(그룹)	국별사업실시계획수립대상국은 아니지만 JICA 내부자료로 계획존재	○
(부르키나파소)	240		-	4(4)	1998	무	행정원사무소	
(동부)								
에티오피아	100L	○ (NDS)	○	16(326)	1971	녹색추진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에리트리아 분쟁으로 중지	6월 에리트리아와의 평화협정체결을 기반으로 외무성에서 향후 경험대처방침 결정중	
케냐	350		○	95(1,088)	1966	과학 및 수학교육, 자동차정비 그룹화 진행중	치안에 문제 있음	△
(지부티)	-L		-	2(2)		무	행정원 사무소	
(남부)								
말라위	200L		○	83(1,107)	1971	로비지구 적정원예기술보급팀		
탄자니아	210L	◎	○	49(917)	1966	무	10월말 대통령선거	
잠비아	330L		○	62(804)	1970	몬다지역 농촌개발계획(그룹) 점토콘로제조기술보급계획(그룹)		◎
짐바브웨	610	○ (NDS)	○	68(336)	1988	무	6월말 총선거 실시. 향후 치안동향에 요주시	
(보츠와나)	3,600		-	32(122)	1992	무		
(나미비아)	1,940		-	-	-		파견협정미체결(교섭중)	
(남아공)	2,880		○	-	-		파견협정미체결(교섭중)	

주 : GNP는 1인당, L은 LDC 인정국. PRSP : 빈곤삭감전략보고서.
NDS : 신개발전략모델국

3) 협의항목

① 사무소

- 국별사업 실시지침 수립시의 봉사단원사업의 위치부여 및 향후 방침
- 청년해외협력대 국별파견계획과 국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방법 정합성의 모색 방법
- 요청배경조사방식 및 통일요망조사와의 관계

② 봉사단원, 전문가, 기획조사원 등

- 각 sector의 상황 확인(국별사업 실시계획과의 정합성의 확인을 포함)
- 전문가와의 연계에서 효과에 관한 검토
- 팀 파견, 그룹 파견의 유효성

(4) 현지조사결과

현지조사결과의 상세에 관해서는, 자료편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현지조사결과를 기초로, 금후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공약수로서 범위를 좁혀 기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1) 국별사업실시계획, 국별파견계획에 대한 의의

봉사단원로서 파견된 협력대원 및 행정원에서 국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봉사단원에게 그 의의가 낮다.

이러한 봉사단원의 실시계획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사무소, 봉사단원 쌍방에 있어서 폭넓은 정보의 수집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실시 계획의 제도 그 것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봉사단원가 활동하는 경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되며, 그들의 활동의 원활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계속적인 협력의 실현에도 연결된다.

따라서 봉사단원 관계자에 대한 국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에 의해 도출된 구체적인 그 방책에 관해서는 「2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접근의 적용 (1) 관계자간의 의식의 공유화」에서 후술한다.

2) 국별사업 실시계획안에 유용한 봉사단원 파견분야·형태

봉사단원체제의 특징 및 현행 국별사업 실시계획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의 봉사단원 체제의 실시, 특히 요청 개척에 있어서 방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LLDC의 많은 아프리카의 현상을 기반으로 하면, 빈곤대책에 공헌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국별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방침에 따라 요청 개척이 중요하다.

요청주의와 공모제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봉사단원체제는, 모든 직종이 국별사업 실시계획에서 채택되고 있는 개발과제의 해결로 직접 기여하는 것만이 아니지만, 반드시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 않아도 되는 대원은 사회적 약자로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

이러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국별사업 실시계획안에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로서는, 의료보건, 교육, 촌락 등을 들 수 있으며, 예를 들면, HIV/AIDS 계몽활동지원, 공중위생의 계몽활동, 취학 전·초등·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 지역사회개발-촌락개발보급원과 각종 농업대원과의 연계, 농업기술 보급지도 등의 대원파견이 고려된다.

환경에 대한 노력에 관해서는 대원의 모집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며 JICA의 체제의 하나로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분야에서는 전문가와의 연계도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파견형태의 관점에서 기술하면, 팀 파견이나 그룹 파견에 의한 협력활동은 그 투입 규모에서 고려하면, 국별사업 실시계획에서 제기되는 개발과제의 해결에의 기여가 보다 기대된다. 또한, 그룹까지는 도달하지 못해도 동 지역에서 다른 업종간 대

원(보건사, 야채, 지역사회개발-촌락개발보급원) 동료의 협력에 관해서도 현금 수입 향상에 유효하게 공헌하고 있으며, 촌락의 생활향상에 대한 유효한 투입수단이며, 이러한 형태에서의 파견도 전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원 동료의 협력 관계는, 니제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야와 같은 비교적 작은 지역 사람이 마라데이와 같은 큰 지역보다도 대원동료의 자발적 협력을 발생하기 쉬운 것 같다.

어느 것이나 대원에 대해서는 파견 전에 확실하게 국별사업 실시계획에서 위치부여 등의 정보를 주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팀, 그룹과 마찬가지로이다.

팀, 그룹 파견에 관해서는, 현재 사무국내에서 그 방식에 관하여 검토중이지만 현지조사를 접수하여 이하의 제언을 행하고자 한다.

팀 파견에 관해서는, 현행 예산에서는, 대원의 파견에 관한 경비 이외에 현지 업무비 20만엔/월, 및 특별 기자재비 570만엔이 10개 팀에 대하여 인가되고 있다. 향후에 대해서는, 팀 수의 감소, 그룹 파견 혹은 그룹형식 파견의 증가 경향으로 예산재편성을 행하며, 현지의 요구에 보다 적합한 예산구설기자재비에서 현지 업무비에 재편성, 로컬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3) 시니어 해외Volunteer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에서 새로 도입될 예정의 시니어 해외 Volunteer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프리카라는 일본 측의 투입 규모가 한정적인 지역에서는, 대원과 마찬가지로 JICA의 유효한 체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발이 용이한 분야도 존재하며, 그러한 분야와 국별사업 실시계획의 합치하는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문가와 경력 등이 유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견 시에 TOR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문가 advisor형으로 한다면,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은 현장지원형으로 하는 함께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요청 배경조사를 위해

요청 배경조사는 프로젝트 형성과 마찬가지로의 위치부여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

었다. 그 경우 청년해외협력대 파견사업비는 과거에 파견인수의 증가로 많은 예산 조치가 있었으며, 안전 발굴과 관련된 예산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각 모집기에 요청배경조사에 있어서는 행정원이 일상 업무에 쫓기는 가운데, 경험에 비추어 실시해온 것이 현상이다.

향후에는 상황은 상당히 엄격히 하면서 우선은 청년해외협력대 사업비에서의 예산 요구를 검토하면서, 원조효율촉진비의 유효활용을 사무소, 사무국, 지역부와 논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사원·advisor형 전문가에서의 조언, 로컬자원의 활용(해외 전문 행정원, 재외 프로젝트형성조사 등)이다.

한편, 순회지도조사의 TOR로서 프로젝트 형성조사(요청배경조사)의 TOR도 채택하는 등 기존의 예산의 유효이용도 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제도,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의해 행정원 업무의 경감을 행할 필요가 있다.

(예 : 귀로변경 폐지, 부임국외 연수여행의 재검토, 귀국제도의 재검토, 여권의 재검토, 해외 사무소로 권한이양 등)

5) 대원, 전문가의 연계·교류촉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점은, 전문가, 대원에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 파견전 연수, 대원파견전 훈련에서의 브리핑시에 정보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자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견교환을 대원총회의 분과회 실시 시에 행하던지 통상의 분과회에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무소의 관여도 필요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특히 불어권 아프리카에서는, 협력대 귀국단원(OB·OG) 출신의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 파견중인 전문가 사이에서 대원을 전문가의 노른자로 생각하여 무엇인가 키우고자 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이것은 사무국으로서 상당히 믿음직스러운 점이며, 이러한 전문가에 관해서는 사무국으로서도 정보교환을 도모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본 조사결과와는 다르지만, 세네갈 사무소가 실시하고 있는 일본인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서의 세네갈 현지인 기술고문의 활용을 시행하고 있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으로서 향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전문가와 대원과의 연계에 관해서는, 과거에 목적인 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예도 있으며, 그것이 기억으로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향후 봉사단원과 다른 체제(주로 프로젝트기술자·전문가)와의 연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초기단계(대원 요청 전, 프로젝트 개시 전)에서 연계여부의 충분한 검토 필요
- 봉사단원과 전문가의 업무내용·위치부여의 명확화를 도모하며, 관계자 모두에 의한 인식 공유화 필요
- Volunteer와 전문가의 업무·분야를 중복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유지
- 같은 지역에 파견하지 않는다. 파견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 활동현장수준 등에 특히 명확한 구별을 부여한다.
- 봉사단원을 다른 체제의 부정적으로 답습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 봉사단원을 프로젝트기술자·전문가의 지휘명령 계통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모집선발 단계에서 명시하여 납득한 인원을 파견한다
- 가능한 범위에서 속인적인 성격이 잘 맞는지에 관해서도 감안한다.

3.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 적용

(1) 관계자간의 의식의 공유화

1) 기본방침

국별·지역별의 실정·원조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분석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전개해 가며 국별 접근 강화의 방향성을 JIC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봉사단원 사업에도 구체적으로 반영해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관계자(사무국, 타 사업부, 재외 사무소, 봉사단원, 전문가 등)간에 우선 같은 방침의 철저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2) 절차

본부에서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이 본 조사연구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관계 사업부, 재외 사무소에 대하여 동 방침을 명확히 한다. 재외 사무소에서는 사무소 직원,

행정원, 기획조사원 등이 포함된 관계자가 본 조사연구결과를 이해하고 항구적인 정보교환·조정체제의 정비를 함과 동시에 전문가·봉사단원간의 이해촉진을 위한 장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보급단계의 정보 공유화를 촉진한다. 구체적인 방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무국직원 : 사무국내에서의 브레인 스토임 등
- 타 사업부 직원 : 직원연수에서의 소개(도입연수, 재외부임시 브리핑, 지역부 및 관계부와의 의견 교환)
- 행정원 : 행정원 파견전 연수
- 전문가등(기획조사원, 무상조사원) : 전문가 파견전 연수 등
- 봉사단원 : 파견전 훈련, 연수

3) 유의사항

원칙적으로는, 모든 봉사단원사업을 국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그 방법이나 정합성의 모색방법에 관해서는 국별 상황·판단에 달려있다.

(2) 국별파견계획과 국별사업 실시계획과의 관계

1) 기본방침

해당국에 있어서 봉사단원사업의 특성·과거의 지식과 견해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혹은 향후의 봉사단원사업의 전개를 명확히 하는데 더해 국별사업 실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지닌 새로운 파견계획의 포맷(안)을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국별사업 실시계획 수립 49개국(JICA 재외 사무소 소재국)에 관해서는 그 별책으로 첨부하여 전 사업단 및 외무성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국별사업 실시계획 수립 49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미 파견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국가(주재원 사무소, 행정원 사무소 소재국)에 관해서는, 협력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별사업 실시계획의 일부(개발과제 매트릭스와 사업 실행계획rolling plan)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① 국별파견계획의 확충

- 파견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거 5년 정도를 소급하여 직종별 혹은 과제별(요 검

토), 소속기관별로 정리하여 이하의 관점에서 개요를 기술한다

- 당해 소속기관에 대한 파견계획의 기술(언제 파견하고,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의 투입에 대한 평가를 행한다.
- 상기를 기초로 하면서 향후 파견계획을 기술
- 국별사업 실시계획과 연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요지를 기재하는 난을 만든다.
- 과거 5년 및 향후 3년 정도의 바 차트를 작성한다.
- 국별파견계획의 구체적 장부 이미지는 <표3-1>과 같다.³⁾

<표3-1> JICA 봉사단 신규파견국 판단 기준

기준 항목	판단 기준
안전 확보	① 안전상황(정세 및 치안/일반 범죄/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가 ② 긴급 시 대응이 확실히 가능한가(의료/통신/운송)
우리나라의 지원체제	③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사무소가 있는가
원조방침과의 적합성	④ 우리나라ODA대강에 따른 원조대상국인가 ⑤ 국별 원조 방침에 적합한가
상대국의 수원 태세	⑥ 봉사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적정한 기술력) ⑦ 봉사단 파견 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가(신속한 수속 / 비용 동시 부담)
봉사사업 투입의 유효성	⑧ 다른 사업형태(프로젝트 등)와 비교해 봉사사업의 투입이 효과적인가 ⑨ 다른 사업형태(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⑩ 단원 확보가 쉬운 직종/분야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는가 ⑪ 파견규모의 일정 수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생활환경 등	⑫ 의식주 환경에 문제가 없는가

3) <표3-1>에 관하여 이번에는 잠비아를 예로 들어 작성하였다. 이 예에서는 1996년-평성 8년도 1차대부터 12년도 2차대(과거 5년)의 전 파견대원을 대원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접근하여 데이터를 포함하여 그룹화한 것이다 그룹 구분은 지역별, 분야별 등의 형태가 예상되지만, 잠비아에서는 그룹 파견, 교육관계(협력기간이 긴 교육기관 理數科), 환경·관광, 농업, 촌락, 자동차정비, 기타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2002년-평성 12년도에는 각각 그룹별로 이제까지의 평가를 재외사무소에서 행하였다. 이것은 5항목 평가와 같은 엄밀한 것이 아니라 대원 소속기관으로서의 타당성, 직종의 타당성, 이제까지의 대원파견에 의해 얻은 성과를 수행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의 파견계획에 관해서도 기재한다. 바 차트에 관해서는 작성시점에서의 요청안건 및 상기 계획을 반영하는 형태로 바를 넣는 것으로 한다.

	⑬ 생활/활동에 관한 언어 습득이 쉬운가
기타	⑭ 외교정책, 파견국/인원수 확대, 지역 균형

또한, 훈련생, 대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대원 활동 보고서를 읽을 경우에도 당해 대원의 위치부여를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당해 소속기관에의 파견계획의 재검토, 당해 대원의 연장 타당성 등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대원에 있어서도 자신의 요청이 소속기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sector 혹은 해당국의 개발과제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활동의 지침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절차

① 2001년-평성 13년도 국별파견계획

- 2001년-평성 13년도 국별파견계획은, 국별개요만을 작성하여 「대원파견의 현상」에 관하여, 국별사업 실시계획, 국별파견계획을 기반으로 기재하여 향후 사업전개에 관해서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 종래 작성해온 표에 관해서는 우선 사무국(안)을 작성하여 2001년-평성 13년도 행정원 회의의 장 등에서 논의하고 2002년-평성 14년도 국별파견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2년-평성 14년도 국별사업 실시계획 이후

상기 과정에서 작성한 국별파견계획 및 국별 개요를 국별사업 실시계획의 별책으로서 위치부여해 2002년-평성 14년도판 이후를 작성해 간다.

(3) 요청 배경조사와 통일요망조사와의 관계

1) 기본방침

통일요망조사만의 요청개척으로 하는 것은 국내에서 연회의 모집·선발을 실시해 가는 현상에서는, 요청개척에서 파견까지의 시간이 현상보다 더욱 길어지는 등 어려

운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급하게 통일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통일 수요조사-요망조사 시에는 봉사단원가 무엇인가 관련성을 갖고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건이 있다면 그것을 청취하면서 재외사무소, 사무국은 물론 봉사단원의 요청배경 조사시에는 유의한다

요청배경조사에 있어서는 전문가(특히 advisor형), 기획조사원, 재외전문행정원, 프로젝트형성조사(재외실시도 포함) 등과 연계를 도모하며 전략적인 요청 배경조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재외사무소에 지시한다.

2) 절차

① 단기적 대응

· 지역부측 action

봉사단원파견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무국과 의견교환을 행한다. 이러한 안건 발굴에 관해서는 advisor형 전문가, 기획조사원, 해외전문행정원, 프로젝트 형성조사(재외 실시도 포함) 등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다.

· 사무국측 action

지역부 주최의 안건 검토회, 프로젝트 형성조사 등의 연간계획에의 코멘트 의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봉사단원 파견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행정원과 정보를 공유화한다.

② 장기적 대응

· 지역부측 action

통일된 수요조사-요망조사와의 동시 실시의 가능성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 사무국측 action

통일 수요조사-요망조사와의 동시 실시 가능성 유효성, 또는 그 경우의 모집선발 방식에 관하여 검토한다.

3) 유의사항

행정원은 JICA 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봉사사업을 받아들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더해 사업의 핵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관련시킬 수 있도록 사무의 합리화, 제도 재검토, 파견 전 연수의 개선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4) 봉사단원사업과 타 사업의 연계방식

1) 기본방침

프로그램화를 추진해가는 가운데 무상자금협력,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 등의 대형 투입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가(특히 분야별 advisor형 전문가) 또는, 그 부대업무인 개발복지 지원사업과의 연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욱 커다란 구조에서의 프로그램 협력에 관해서도 현재 지역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봉사단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계를 추진해 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2) 절차

① 파견 중 봉사단원への 대응

의견교환, 정보교환의 장 제공을 사무소 주도로 행하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측에서의 적극적인 연계에 관한 제안을 촉구한다. 예를 들면, 직종별로 분과회를 운영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에서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의 참가를 촉구해가며 혹은 대원 총회에서 전문가에게도 출석을 촉구하여 일상의 업무보고 등을 받는 등 연계 요소 구축을 첫 번째로 실시한다

② 향후 파견되는 봉사단원への 대응

파견전 훈련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사업단의 사업내용과 협력활동」, 「해외과 오리엔테이션」, 「부임국 사정」의 강의 시간에 관하여, 해외과 관계자로부터 충분히 훈련생에 대하여 부임국의 국별 사업 실시계획 타 기술협력의 노력 상황 JICA 봉사단원사업과의 정보교환의 필요성·연계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그 중요성의 인식을 정착시킨다.

현지에 있어서는 도착 시 브리핑에서 해당국에서의 JICA 전체의 협력안전의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이해를 보다 높여간다. 현지에서의 정보교환 등은 상기 ①과 같다.

③ 연계안전의 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계안전의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상기 ①, ②의 과정 제안되는 경우, 재외사무소 주도의 조사(기획조사원, 재외 프로젝트 형성조사, 재외전문행정원 등)에서 제안된 경우, 본부 주도(프로젝트 형성조사 등)의 조사에서 제안된 경우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된 안전에 관해서 유효한 연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에서의 검토·의견조정을 행하며, 실시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2001년-평성 13년도이후의 모델협력 프로그램에의 대응

현재 JICA에서는, 업무개혁의 일관성 있게 국별 접근의 강화를 위해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있으며, 2001년-평성 13년도 실시를 목표로 모델 협력 프로그램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모델 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형태에서의 안전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무국으로서도 이 흐름에 유의하면서 정보입수, 제공을 행할 필요가 있다.

3) 유의점

어떠한 형태의 연계에 있어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사무국의 참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파견되는 대원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집은 모집안내서에 기재할 때 기대되는 업무를 프로그램과 관련해 명확히 기재하고, 선발은 지원자의 의향·자질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훈련중의 예비단원-후보생에 대한 브리핑에 관해서는 정보제공, 사무국이 기대하는 내용에 관하여 인식을 심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제3장 국별 접근을 기반으로 한 신규 파견 검토 접근

1. 고찰 순서·시점

(1) 배경

협력대사업이 시작한지 35년을 넘어 이제야 협력대원을 시작하는 하는 JICA 봉사단원이 활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는 60개국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편으로 파견

요청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정체결이나 파견개시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도 30개국에 넘는다.

봉사단원사업의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투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의 「전략」적 시점과 치안이나 생활환경 등을 시작으로 하는 「제약」의 시점의 쌍방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로 종래부터 그와 같이 실시해왔다고 생각되지만 정책결정 차원의 판단이 최우선시되어 사업을 개시한 예도 부정할 수 없다.

본 조사연구에서 제1분회의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및 제2분회의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의 적용」이 검토된데 대해 그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국별 접근을 기반으로 한 협력대 신규파견국 검토 접근」의 재검토를 시도하는 것을 본 분회에 부여하는 임무이다.

(2) 검토 절차

본 분회에서는,

1) 우선, 이제까지의 협력대 사업, 그밖의 JICA 사업 및 타국 봉사단원 파견기관의 파견국 결정 접근을 검토하며,

2) 그 검토결과에서 판단지표 및 기준을 철저히 하면서 그러한 것을 타 분회에서 실시된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의 적용」의 검토결과를 사용하여 검증하며,

3) 그러한 것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의 기본으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가이드라인(안)의 아프리카지역에의 적용을 시도하며, 또한 타지역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본 검토는 협력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시니어 해외 봉사단원에 관해서는 검토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현상

(1) 협력대사업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검토과정

1) 협력대 여명기

1964년-소화 39년, 협력대사업이 발족하는데 있어서 파견된 사전조사단은 4만 23명의 관, 민, 학식경험자가 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10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세이론, 파키스탄, 인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을 조사대상국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① 접수환영의 기운의 유무, ② 기술협력 전문가 및 청년 기술자의 활동상황 시찰, ③ 접수 수속에 관한 구체적인 제문제, ④ 풍토적 기타 객관적 제조건, ⑤ 미국 Peace Corps 및 현지 지도원과의 회견이며, 조사 결과, 각 국별 특성이나 요청이 명확해지며, 접수조건, 생활환경이 파악된다.

그 다음해 1965년-소화 40년 5월 단계에서의 비공식 파견요청은 동파키스탄(9 동파키스탄은 현재의 파키스탄, 서 파키스탄은 현재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11), 라오스(15), 필리핀(10), 인도네시아(15), 인도(5), 가나(6), 에티오피아(무제한), 케냐(7~8), 나이지리아 등이었지만(괄호 안은 요청인수), 이 안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케냐에는 급속하게 대원이 파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신규파견 저원의 확대와 함께 파견국의 증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사관을 통하여 협력대 사업의 주지, 대원파견에의 요청이 계속되어 파견국이 확대되었다. 파견국 중에는 파견협정의 체결을 예상하고 대원의 모집 선발, 훈련이 이루어진 국가도 존재한다.

2) 1976년-소화 61년도

1976년-소화 61년 5월에 작성된 미파견국 대책 검토자료에 따르면 파견국수 확대에 관해 당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였다.

향후 신규로 파견국을 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한다.

① JICA 직원의 정원급증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재외공관이 있는 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협력대원에 의한 협력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봉사단원 협력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GNP Per Capita의 낮은 국가에서 우선한다.

③ 아프리카 파견국수의 배증계획과의 관계에서 아프리카를 우선한다.

동(안)을 접수하여 협력대 사무국이 작성한 대처방책(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파견국 증가는 연간 3개국 정도, 1991년-소화 66년을 목표로 하여 파견국 수를 50 개국으로 한다.

② 협력대 파견국은 원칙적으로 GNP Per Capita가 US\$ 2,000이하의 국가에서 특히 LLDC를 우선한다.(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OPEC 11개국 및 NICS는 원칙적으로 대상외로 한다.)

③ 아프리카 파견국수의 배증계획과의 관련에서 당면 아프리카지역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지역과의 균형도 계산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대상국이 적어지고 있지만 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며, 파견대원의 규모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한다.

⑤ 대양주, 중남미에 관해서는, 치안, 긴급시의 통신·수송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⑥ 중근동 및 아프리카의 일부는 전문가에 가까운 기술력을 구하는 경향이며 협력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면서 검토한다

⑦ 프랑스어권에 관해서는 대원활동의 곤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에 있기 때문에 긴급히 그 구체적인 예를 조사한다. 또한 불어권에 대한 파견 직원의 확보 육성에 노력한다.

1986년-소화 61년 당시, 39개국과 파견협정을 체결한 대원 파견중인 국가는 32개국이었지만, 그 이후 50개국째 파견은 1991년-평성 3년이며,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1993년-평성 5년 8월에는, 대원 파견 요청국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망에서 검토가 요망되는 국가」의 3종류로 분류하여 사전조사단의 파견 등에 관하여 검토한 「미파견국의 대응」이라는 자료가 작성되었지만, 여기에서 신규 파견국에의 대응을 구체적인 지표로 검토한 기록은 아니다.

3) 1996년-평성 8년도

1996년-평성 8년도에는 신규파견 요청국 40개국(비공식 포함)에 관하여 처음으로 국별로 우선도를 평가, 검토하였다. 사무국내에서의 검토를 기본으로 평가표를 작성

(종합평가 A : 1개국, B : 13개국, B 마이너스 : 2개국, C : 24개국)하여 외무성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외무성으로부터는 최우선국 3개국, 우선국 8개국, 및 기타로 분류한 대처방침이 제시되었다.

당시의 개별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을 A ~ C의 3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 ① 치안 : 일반 범죄, 정치불안 상황 등
- ② 행정능력 : 협력대의 접수체제
- ③ 보건, 위생상태 : 질병, 의료시설 등의 상황
- ④ 의식주 환경 : 영양면도 포함한 건강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의식(식수 포함) 주의 입수 난이도
- ⑤ 사업전개의 가능성 : 협력대원의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제사정, 산업구조 등을 감안한 대원수의 확대 가능성

이러한 검토에서의 특징은, 상대방 정부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것, 사업전개의 가능성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쉬운 보건위생이나 교육분야의 파견확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순위를 A로 하는 것이나, 종합평가에서 A : 우선도는 높음, B : 조건에 따라 파견 검토, C : 당면 파견은 곤란으로 하고, 순위 C 안에는 특히 「파견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명기된 국가가 존재하는 점이다. 또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상정이 다소 들어있는 것이나, 많은 정보 부족 국가에 관해서는 그것을 이유로 파견 곤란한 것으로 한 것도 특징이다.

이 평가에서 C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후일 협력대 파견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서는 지부티, 베네수엘라, 키르기스 등이다.

파견국 선정 시에는 외교적 배려가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면, 1994년-평성 6년 10월에 독립한 대양주 팔라우의 경우, 일본계 대통령이 선출되자 일본의 원조 확대가 시도되어 협력대 사무국도 즉석에서 사전조사를 파견하고 대통령을 시작으로 하는 커다란 기대가 주어졌던 결과, 1996년-평성 8년에는 파견 협정이 체결되었다.

4) 1997년-평성 9년도

1996년-평성 8년도의 검토후, 외무성 기술협력과와 향후의 대응에 관하여 협의하

고, 미파견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단에 관해서는 일본에서의 파견에 한정하지 않고 겸할 대사관이나 JICA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우선도의 검토를 위해 1997년-평성 9년도에도 30개국을 대상으로 신규파견국 개시 요청국 우선도 평가(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해의 검토에서 뚜렷한 특징은, 처음으로 협력대 사무국내 뿐만 아니라 기획부 지역 1~3과, 의료협력부의 협력을 얻어 작성된다는 점이다.

이 평가(안)에서는 1996년-평성 8년도의 항목이 약간 재검토되어 치안, 지원체제, 보건위생 상황, 의식주 환경, 사업전개의 가능성의 여러 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A~C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특기사항이 추가되었다.

- ① 치안 : 일반범죄, 정치불안상황
- ② 지원체제 : 협력대의 지원체제(대사관, 재외사무소의 유무)
- ③ 보건위생상황 : 질병, 의료시설 등의 상황
- ④ 의식주 환경 : 이전과 동일, 의식주의 입수 난이도
- ⑤ 사업전개의 가능성 : 파견직종에 관계없이 단순히 파견가능인원수로 평가

이러한 개별평가와 종합평가의 연관성은 불명확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전개 곤란(B : 4개국, C : 26개국)이 되지만, 평가가 어려웠던 국가가 있었어도 그 후 파견협정이 체결된 곳도 있다.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세인트 빈센트) 예를 들면, 지부티의 경우, 협력대의 접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지만 아프리카 개발회의 등에서의 대응이나 내전 등의 부정적 조건 감소에 따라 방향이 크게 전환하여 2002년-평성 12년 7월에는 대원 파견이 개시되었다.

당시에는 사업전개의 가능성(파견가능 인원수의 다수 모집)이 중요한 요점이었던 것으로 보아 「지방전개가 가능하여 60명 정도의 파견이 가능」 하여 처음으로 A의 판단이 있었으며, 「10인 정도의 파견에 한계」로 한 C가 되면 「사업전개곤란」으로 판단되어, 파견 개시의 검토는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5) 2002년-평성 12년도

새로운 5개국(마다가스카르,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간에 파견협정이 체결되었던 2002년-평성 12년도에는 본 조사연구와 병행하는 형태로, 파견 요청국 36개국(비공식 포함)에 대한 신규 파견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치안상황(안전관리과), 지원체제(재외사무소과), 원조방침(지역부), 생활환경(협력대사무국), GNP Per Capita, 인간개발지수, 인구의 6항목에 의한 개별 평가를 함께 종합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종래의 검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① 개별항목에서 JICA내의 전문부서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all JICA에 따라 평가하는 자세가 강화되었다. 특히 원조방침과의 연관성에서는 국별 접근의 시점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② GNP Per Capita, 인간개발지수 등의 정량적 지표가 도입되었다

③ 인구를 지표로 하는 것으로 사업투입의 cost performance(협력대 신규파견에는 행정원의 파견이나 사무소 개설 등의 비용이 수반한다)를 고려하여 포함한다.

④ 검토의 전제로는 「타 기술협력 체제에 선구적으로 협력대원이 파견된 경우가 많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선구적인 협력대의 파견계획에 의해 그 후의 해당국에 대한 기술협력 실시방침이 어느 정도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2002년-평성 12년도에 이미 파견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관해서도 신규 파견의 방식이 다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검토의 최종 단계에서 타 관계부서간 서로 논의에 상당한 힘을 불어넣었지만, 모든 개별평가를 정량적으로 종합평가에 결부시키는데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2) JICA의 타 사업에서 검토 절차

일본 ODA의 실시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JICA 사업을 실시할 경우의 검토 절차는 대충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원조대상국이라는 것의 확인

ODA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면서 해당국이 원조 대상국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원조대상국이라는 것의 인식은, 단순히 해당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닌 보다 상세한 경제지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무상자금협력과 유상자금협력에서는 공여의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소득수준에

격차가 주어져 있다. 전자의 무상자금협력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그 범주(일반, 문화, 수산, 풀뿌리무상 등)에 의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2) 해당국의 현황 확인(ODA 대강)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국내문제를 포함하는 국가가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인 압력 등의 수단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는 예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동향(군사지출의 추이, 무기의 수출입), 민주화나 인권보장의 동향에 이어 적시적절하게 모니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본의 ODA 대강의 원칙에 비추어 원조의 가부에 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국의 상황에 호감이 가는 움직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외교수단과 병행하여 원조는 그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서 공여되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가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검토되는 것이 있으며, JICA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조를 실시해 가는데 더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1993년-평성 5년의 군사정권 수립이후 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나이지리아에 대한 신규원조의 정지 조치(긴급적 혹은 인도적 성격을 지닌 것은 제외)에 관하여 1999년-평성 11년에 민정이관을 위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그후의 오바산조 대통령의 민주화 노력을 환영하면서 동년 5년의 민주화 과정의 완료를 받아들여 원조실시의 재개가 결정된 예 등이다

이상은, 주로 일본의 원조방침, 원조 대상국의 검토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JICA 사업 중에 봉사사업 이외의 체제에서 검토 과정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봉사단원사업과의 비교대조로서 가장 관련성을 갖는 것은 전문가 파견사업일 것이다. 어느 것도 「사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협력이 실시되는 것이며, JICA를 대표하는 사업이다.

전문가 미파견국에 대한 신규파견의 검토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규정이나 집무참고자료 등 문서로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검토해왔다고 생각되지만, 그 경우 어느 경우에도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해당국의 치안상황

검토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해당국을 관할하는 일본 대사관의 위험도 정보가 판단기준이 된다.

2) 요청내용의 검토

해당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일본의 협력방침, 원조 중점 분야에 합치한 것인지의 검토

3) 전문가파견의 필요성의 검토

당해 요청에 대한 일본의 협력으로서 전문가 파견이 가장 적합한 체제인지 여부가 다른 대체 체제(예를 들면 연수생 초청)에서 협력을 실시하는 경우와 비교검토도 포함되어 검토한다.

4) 상대방의 접수체제의 정비 상황 확인

상기 3)과도 관련된 것으로 전문가 파견이 효과적인지 여부는 파견된 전문가의 자질의 문제는 별도로 요청 분야에서의 상대방의 노력 의욕이나 접수 체제의 정비 상황에 의한 경우가 크다. 따라서 신규 파견의 경우, 파견 예정국의 소속기관에 관한 정보수집이 중요하며, 사무소 또는 대사관, 또는 필요에 따라 일본 조사단에 의한 상세한 요청배경조사를 실시한다

5) 생활환경 확인

전문가의 경우, 수도 혹은 지방에 있어서도 비교적 중핵이 되는 도시가 근무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 환경, 생활물자의 공급 상황 등, 상기 4)의 조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한다. 역시, 생활환경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단기, 장기별로 상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전문가의 신규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3) 타 기관에서 검토과정

본 項에서는, 이번 조사연구에서 수집한 정보 및 2002년-평성 12년도에 별도 실시한 특정 테마 평가 「말레이시아/중소득국에서 협력대사업의 방식」에서 검토된 정보를 기반으로 타 공여국이 실시하는 봉사단원 사업에 관하여 검토한다.

1) Peace Corps (미국)

Peace Corps의 파견 개시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에 기초한 요구가 높은 국가에 파견하는 것에 대한 견해이며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파견을 중지하는 경우의 관점으로서, 파견국내의 불평등, 인권 억압, gender 배려, 공산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상 파견국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외교 방침에 있는 것처럼, 의 모토에서도 민주화, 국제적 평화의 촉진이 대전제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에 의한 판단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

2) AFVP(Association Francaise des Volontaires 여 Progres, 불란서 발전 봉사단원 협회, 불란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요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대전제로서 파견한다. 철회의 기준은, 안전성(민주주의 인권문제를 포함), 정치상황(국교 단절 등), 상대국의 판단에 의한다. 또한 AFVP의 파견국은 정부의 외교방침과의 강한 연계가 보인다.

3)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영국)

VSO의 파견의 철회에 관해서는, 강하게 말하자면 UNDP의 인간개발지수가 협력종료를 위한 지표가 되는 듯 하다. 다만,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 모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가 있는 국가, 분쟁 당사국, 민주화가 추진되지 않는 국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국가에는 파견을 행하지 않는 듯 하다. 또한 예전에 영국령이었던 국가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분석

(1) 판단기준의 정리

3-2에서 살펴본 각종 유의점을 현행 협력대 사업의 배치된 상황에 비추어 분류해보면 <표3-1>과 같다.

<표3-1> 협력대 신규파견국 검토에 관한 기준

기준항목	판단의 기준
안전확보	① 안전상황(정치치안/ 일반범죄/ 교통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음 ② 긴급시의 대응이 확실히 가능(의료/ 통신/ 수송)
일본지원체제	③ 일본 재외공관/ 사무소가 존재
원조방침 등과의 정합성	④ 일본 ODA 대강에 따른 원조대상국임 ⑤ 국별 원조방침에 정합함
상대방의 접수체제	⑥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이 이해됨(적정한 기술력) ⑦ 봉사단원 파견협정을 준수함(신속한 수속/ 비용부담)
봉사단원 사업 투입의 유효성	⑧ 다른 체제와 비교한 봉사단원사업 투입이 유효함 ⑨ 다른 체제의 계기가 되는 가능성이 높음 ⑩ 봉사단원가 확보하기 쉬운 직종/ 분야의 요구가 있음 ⑪ 파견규모의 일정 확대가 기대됨
생활환경 등	⑫ 의식주환경에 문제가 없음 ⑬ 생활/ 활동에 관한 언어학습이 용이
기타	⑭ 외교정책, 파견국/ 인원수 확대, 지역 균형

(2)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및 「국별 접근의 시점」에서 본 각 판단기준의 검토

여기에서는, 3-3(1)에 열거한 각 기준항목에 관하여, 제1장 및 제2장의 고찰 결과 등을 사용하여 검토를 추가하였다.

1) 안전확보(① 및 ②)

작금의 상황을 돌이켜볼 것도 없이 이러한 지표는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절대조건이다. 특히 협력대사업에 있어서는 풀뿌리 수준의 상대방 주민과 함께 활동·생활하는 것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 다른 체제 이상으로 정성들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일본의 지원체제(③)

상대국에서 일본 재외공관이나 JICA 사무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은, 사전의 정보수집·상대국과의 절충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나, 미설치국에 비해 파견개시시의 사무소 개설 등의 비용이 저렴하는 것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봉사단원 파견의 필요성이나 장래적인 파견 규모 확대의 가능성 특히 현행과 같이 모든 파견국에 봉사단원 행정원의 배치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논의(다음 9)참조)와의 비교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절대조건은 아니다.

3) 일본 ODA 대강 및 원조 대상국과의 정합성(④)

JICA 봉사단원 사업이 ODA의 구조안에서 실시되는 이상 이 조건은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장래적인 시점으로서 제1장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보다 해외봉사단원의 문호를 확대하는 형태의 협력대로 특화할 수 있는 vektor」가 존재하는 것이면, 장래적인 비 ODA 대상국에 대한 JICA 봉사단원 파견의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현상에서도 협력대 사업예산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엔 봉사단원 파견사업이나 JICA의 다른 체제의 대상국에 타국의 해외 영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제 약속 형성상의 과제는 남아 있는 것) 「보다 요구가 높은 『지역』에의 파견」에 관해서는 향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국별 원조방침 등의 정합성(⑤)

JICA 봉사단원사업에의 국별 접근 적용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현재 JICA 봉사단원가 미파견된 다수 국가에서는 국별 사업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협력실적이 적기 때문에 all JICA의 원조방침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된다.

이 경우 특히 봉사단원사업에 특화한 원조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협력 체제안에서의 봉사단원사업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제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all JICA에서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이 이해되는데 더해 원조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하기 7) 참조)

역시, 문화·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 등, JICA 사업안에서도 봉사단원 사업에 한하여 협력실적이 현저한 것이 있지만 제2장에서도 다룬 것처럼 이러한 것을 원조방침의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의 「인재 육성 협력」으로 받아들이는데 더해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상대국 및 접수기관의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에의 이해(적정한 기술력)(⑥)

특히 청년층인 협력대원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가능성과 한계나 JICA의 다른 협력사업과는 다른 활동지원의 방안에 관해서는 상대국에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사전의 조사나 파견개시후의 요망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담보 가능하며 신규 파견 검토시의 절대조건은 아니다

6) 상대국 및 접수기관의 파견 협정의 준수(⑦)

봉사단원 파견과 관련한 상대방 부담 등, 쌍방의 책임분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많은 대상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운 현상에서는 이 기준은 상대적인 비교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조건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부 국가와의 협력대 파견협정에 관하여 주거 제공이 상대국측의 의무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경비부담하는 현상을 보면, 주거제공으로 대체하는 상대방 부담(예를 들면, 지원경비) 등, 별도의 방법에서의 역할분담을 검토하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7) 봉사사업 투입의 유효성(⑧ 및 ⑨)

상기 4)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봉사사업 투입의 유효성은 타 협력체제와의 비교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단독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봉사단원사업이 일본 및 상대국의 쌍방에서 「얼굴을 보이기 쉬운」 원조인 것도 서로 어울려 당해사업의 선행이 그 국가에 대한 일본 원조의 이미지나 협력분야/과제의 방향성을 일정 정도 특정화할 가능성을 감추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한편, 일본 무상자금협력 등과 같이, 적절한 경제적 통계 지표를 사용하여 대상국을 한정하는 것도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봉사단원 확보가능성(⑩)

봉사단원 사업이 일본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에서 살펴보면, 직종/분야별로 일본 봉사단원 인재의 확보 용이성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며, 그 의미에서도 상대국에서 수요를 직종/분야에서 확인하고, 일본에서의 공급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9) 파견규모의 일정 확대 (⑪)

봉사단원 행정원의 파견 비용이나 사무소 미설치국에서 일본의 거점 개설 비용을 고려하면, 이 지표의 우선순위는 높으며 예를 들면 2002년-평성 12년도의 검토에서 활용된 「인구」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당할 것이다.

따라서 「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중시하는 것으로 하면, 작은 나라에 대한 봉사

단원 투입의 의의나 효과가 높은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현행과 같이 「봉사단원 행정원을 반드시 배려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면 근린 사무소의 겸임국 지정을 기본으로, 업무 조정형 시니어 대원을 상대방 정부내에 배려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안은 검토할 것이다. 더욱이 사무소가 이미 설치된 국가에서 행정원 이외의 요원이 봉사단원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10) 생활환경(⑫ 및 ⑬)

국민이 유지하는 봉사단원사업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보아도 안전확보나 건강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에 의식주 환경을 과도로 중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모집·선발에서 적격자를 확보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학 습득의 난이도에 관해서도 훈련 비용과의 비교상 검토해야 하는 지표는 있다는 것, 현재의 미파견국을 보는 한에 있어서는 주요 언어에서의 훈련·활동은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신규 파견국 검토에서 커다란 장벽은 없다고 생각한다.

11) 기타(⑭)

정책에 의한 배려(지역 균형 등) 및 파견 인원수/ 국가수의 확대에 관해서는 본 검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 「신규 파견국 수립 가이드라인」 시안과 그 적용

(1) 가이드라인 시안

3-3에서 검토한 기준을 사용하여 수립 가이드라인의 하나의 예를 <표3-2>에서 보여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 시안은 설정하는 전제조건에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할 것도 없다.

<표3-2> 협력대 신규파견국 수립 가이드라인 시안

지표중시의 우선도	지 표
절대조건	· ODA 대강에 따른 원조 대상국이다 · 안전상황(정정치안/일반범죄/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다 · 긴급시의 대응이 확실히 가능하다(의료/통신/수송) (가) · GNP per capita가 US\$1,460이하*
높음 ↑ ↓ 낮음	· 해당국에 관한 일본/all JICA의 원조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봉사단원사업투입의 우위성이 인정된다 · 상대국이 봉사단원사업의 특성(및 한계)을 이해하고 있다 · 봉사단원 요망직종/분야가 우리측 인재확보사정에 합치한다 · 일정의 파견규모확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인구」를 지표로 한다) · 상대국이 파견협정을 준수할 수 있다(수속 · 업무 · 경비분담) · 재외사무소/재외공관이 이미 존재한다.

* GNP per capita의 설정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행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상자금협력의 예가 되는, 국제개발협회가 설정한 2000년도의 무이자용자적격국 기준을 사용한다.

(2) 수립과정의 시안

상기 가이드라인 시안을 사용한 검토를 행하기 위해서 기초로 해야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을 all JICA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봉사단원 및 그 지원요원에 대하여 all JICA에서의 협력 시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등을 강화한다 (상세는 제2장 참조)

2) 봉사단원 미파견국을 포함하여 일본/JICA의 협력실적이 적은 국가에 관해서는 지역부 주도에서의 정보수집(현지조사 포함)을 강화하고, 국별사업 실시계획에 준한 협력방침을 모든 국가에 대해 수립한다

3) 지원제도의 정리(봉사단원사업안에서의 통일되지 않은 제도의 정리, 공제제도 등을 포함한 타 인재파견과의 제도정리 등)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원요원의 정리(봉사단원 행정원, 기획조사원 등)를 검토한다.

4) 1)~3)을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파견국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관계성청과의 조정을 모색한다.

5) 상기를 기초로 기파견국을 포함한 봉사단원 파견계획(파견종료 포함)을 수립하고, 관계성청과의 조정을 모색한다.

(3) 아프리카지역에의 적용 사례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검토해 온 협력대 신규파견에 관한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시안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규파견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지역에서 협력대 미파견국 중 이제까지 파견요청이 있었던 17개국(다만, 미파견국이지만 이미 E/N체결이 끝난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및 체결교섭중인 나미비아를 제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시안에서 추출된 주요 지표를 적용한 결과가 <표3-3>이다.

동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원조 정지중인 시에라리온을 제외한 16개국이 일본의 원조 대상국(콩고민주공화국에 관해서는 위험도 4~5이며 실질 파견 불가능)이지만, 이중에서 치안문제 등 안전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 및 GNP per capita가 US\$ 1,460이상의 국가를 제외하면 모잠비크, 말리,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스와질랜드의 5개국이 검토대상으로 상위를 차지한다. 이 5개국간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지원체제, 인구 등의 지표에서 편의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번의 가이드라인 시안의 적요에 있어서는 절대조건이 되는 긴급시 대응의 상세에 관해서는 미확인이며, 또한 지표로서 우선도가 높은 일본/all JICA의 원조방침에 관해서도 국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나이지리아 이외의 국가에 관해서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충분한 검토결과는 없었지만,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표에서 협력분야(요구)에 관하여 기초생활분야(BHN)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은 아프리카지역에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BHN이외에서 입수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구에 관하여 기재한 것이다. 한편, 모집에 관하여 BHN 분야에서 촌락 개발이나 간호부(사)라는 직종에 관해서는 응모자도 많은 파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봉사단원의 요구 파악/모집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제2장에서 기술한 국별 접근 적용의 중요성 가운데 향후, 요망조사방법의 개선 등에 의해 봉사단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JICA사업 안에서 봉사단원사업의 위치부여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의 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역시, 아프리카지역에서의 검토를 행하는 경우, 안전상황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치안문제의 개선에 의해 파견대상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현재 파견중인 국가에서도 치안상화아의 급격한 악화에 의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긴밀 혹은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3-3> 협력대 신규파견국 검토(아프리카지역)

No.	국명	원조 대상	안전 상황	긴급시 대응	GNP /인	원조 방침	협력분야 (요구)	모집가 능성	지원 체제	인구 (천인)	비고
1	모잠비크	○		요 확인	210	未	인적자원, 농업, 기초인프라	기초인프라 곤란	대사관, 관할 (사무소)	16,947	
2	말리	○		요 확인	250	未	농업		관할 (사무소)	10,596	
3	모리타니	○		요 확인	989	未	수산	수산분야 곤란	“	2,529	
4	카보베르데	○		요 확인	1,200	未	농업, 수산	수산분야 곤란	“	416	
5	스와질란드	○		요 확인	1,400	未			“	989	
6	에리트레아	○	요 확인	요 확인	200	未			“	3,879	
7	중앙아프리카	○	치안 문제유	요 확인	300	未			대사관	3,480	
8	나이지리아	○	“	요 확인	300	有			사무소	120,817	
9	케냐	○	“	요 확인	530	未			대사관	7,082	
10	레소토	○	“	요 확인	570	未			관할 (사무소)	2,058	
11	카메룬	○	“	요 확인	610	未			대사관	14,303	
13	적도기니	○	“	요 확인	1,110	未			관할 (사무소)	431	
15	베냉	○	“	요 확인	380	未			“	5,948	
16	가봉	○	“	요 확인	3,300	未			대사관	1,180	
17	세이셸	○		요 확인	6,420	未			관할 (사무소)	79	
12	콩고민주(공)	○	치안 문제유	요 확인	680	未			대사관	48,216	위험도 4-5
14	시에라리온	×	“	요 확인	140	未			관할 (사무소)	483	원조 정지중

(4) 타지역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표3-3>에서 배열한 신규 파견국 수립에 관한 기준을 기초로 하면 아프리카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같은 모양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번 검토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요망이 있는 것의 미파견국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표3-2>의 시안의 「절대조건」 4항목(원조 대상국, 안전상황, 긴급시의 대응 그리고 GNP US\$ 1,460이하)를 고려하는 것에 의해 파견 가부는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기준에서 이미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들도 같은 모양으로 검토하는 것에 의해, 파견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경우에 따라, 파견 종료까지 시야에 넣어두는 것이 되며, 말하자면 「졸업국」에 관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인구가 많은 국가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없었지만, 도서국 등 작은 국가에 관하여는 단순한 적용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인구가 적은 섬 국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에 20명 대원으로 가정하고, 인구 5,000명에 1명의 대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는 존재감은 크며, 일본과의 관계에 크게 공헌이 예상된다. 대원의 존재감에서 생각해 보면 사업의 홍보 경비를 포함하여 홍보 노력 등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종합적인 비용 실적은 높다고 생각된다.

니제르

1. 니제르 현지 조사 기록 (사무소 등)

(1)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방문 (1차)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2월 8일(금)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명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일시	2000년 11월 28일(화) 9:30~11:00
방문지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면담자	아사히 소장, 아사미 조정원, 翠川(취천) 조정원, 이케우치 행정원

□ 시찰/ 협의 내용

니제르는 주재원사무소이지만 국별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다. 지금까지 실시한 가나, 잠비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니제르에서는 어떤 파견전략을 가지고 파견해왔는가에 대해 협의했다. 곧 커다란 틀에서 대원의 수요요청 배경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조정원의 의견을 들었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파견기관의 상황을 살펴보면 반드시 확실하게 정해진 전략을 가지고 수요요청 배경조사를 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파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선이나 면과 같은 그림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 한 개의 점처럼) 건건별로 파견되어 왔다. 앞으로는 눈앞의 효과만을 생각한 수요 요청 배경조사를 실시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계획을 짰 다음 그 계획을 바탕으로 대원을 파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원조가 될 것이다. 지방으로 대원을 배치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 파견 대원의 경우 니아메에 있는 감독국과 지방에 대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한 것이 된다. 한편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야 등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분야 다원 사이의 협력도 지역사회개발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파견하는 것도 전략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처럼 대원사이의 협력 관계는 가야 같은 비교적 작은 지역이 마라디와 같은 큰 지역보다도 대원끼리 자발적인 협조를 하기 쉽다. 어느 쪽이든 대원에게 파견 전에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팀제 단위 파견처럼 제약이 많은 방식이나 개별 일반 단위 파견보다는 1번과 같은 형식의 그룹 또는 그룹 파견¹⁾ 쪽이 바람직하다. 또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한다.

3. NGO 등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계몽활동에 대한 경비 부담이 제약이 되는데도 JOCV는 (사실 일본의 원조는 꽤 많은 금액 예산 배정에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른 공여기관은 니제르의 국가 사정을 감안해 상당한 부분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4.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현재 WHO와 소아마비 대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UNDP와 함께 취학전 교육(예를 들면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연계해 갈 예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파견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특기사항/총괄

1. 수요요청 배경조사는 프로젝트 형성 조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조정원의 의식 개혁 및 업무 부담 완화, 또 해외 전문 조정원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 업무(귀국, 현지지원비, 파견국외 휴가 등)별로 분담되어 있는 조정원의 업무 분장을 재검토하여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재분류할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업무 분장 명확화는 나아가 조정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위기 관리시의 연락체계는 6시간 이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행하는 경우 또 대원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국토가 넓고 대원 활동 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니제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도 필드(현장참여)형 시니어 대원을 배치해 각종 지원을 했으면 한다. 한편 시니어 대원의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전 훈련 및 연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2)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방문(2차)

1) 옮긴이 주: 그러나 JICA의 그룹 파견 제도는 2005년 현재 팀제 파견으로 흡수 통합되었음.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전문가
방문지명	JICA 니제르 주재원 사무소
일시	2000년 11월 30일 (목) 8:20~11:00
면담자	쿠니히로 전문가(수리환경 어드바이저), 니시다 전문가(농업개발 어드바이저), 스기야마 전문가(기술협력 어드바이저)

□ 시찰/ 협의 내용

1. 조사단이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
2. 그 후 전문가 측에서 협력대사업의 현재 흐름과 동향에 대해 질의응답. 특히 조사단 측에서는 모집 안내서에 국별 전략을 넣는 방안과 수요요청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넣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

니제르의 대원상과 제언

1. 대원 개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에 임하는 자세 등이 크게 다르므로 자각이 떨어지는 대원도 있는 반면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대원도 있어 크게 개인차가 난다. 파견 전 국내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며, 본부 사무국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대원 모집인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대원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은 힘든 실정이다. 농업 대원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경우 파견 전 국내 훈련이나 기술 보완 연수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1년 정도의 재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완 연수를 했다는 정도로는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한편 대원에 따라서는 사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다.
4. 팀제 단위 파견의 경우에는 대원 간에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감독을 충실히 한다면 문제는 없다.
5. 카레고로의 팀제 단위 파견에 대해서도 8년간 계속 이 팀제 파견을 지켜봐왔던 사람이 대원 중에서도 현지 사무소 직원 중에서도 본부에서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진행돼 왔다. 따라서 기술고문이나 기술을 확실히 살펴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단 기술고문도 현지 사정을 모르는 경우에는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현지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6. 역대 니제르 대원 파견 실적을 정리하고 있다. (기술 자문-어드바이저-전문가가 현재 작업 중) 이러한 역대 실적과 활동 내용은 앞으로 국별 실시계획에 반영해 전략을 수립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문가 모두 입을 모았다.
7. 자동차정비 대원처럼 무상협력사업과 연계가 밀접한 대원도 있어 JICA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8. 빈곤 완화, 사막화방지와 같은 흐름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일본이 어떠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취할 것인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9. 상대국 정부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카레고로의 경우, 코워커-카운터파트-와 함께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측에 일본의 의도와 실적이 지금까지 얼마쯤 되는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10. 니제르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대원을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명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대원사이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전문가가 대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또 대원과 지역사회개발 그룹이 하나가 되어 전문가의 인솔 아래 다른 지역사회개발 현장을 보여준

다. 이 경우에는 대원 대신에 부인 그룹에게 지도 또는 설명을 하는 사례 소개도 있었다.

12. 대원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대원이 바로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원 쪽에서 상담을 청해오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에 응한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 상하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되며, 전문가는 대원이 희망사항에 되도록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3. 농업 대원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교통수단이 없어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도 못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 대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본부 사무국 쪽에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14. 니제르 내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사무소 직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원도 함께 관리하는 회합 같은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전문가는 3명 모두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데 환영 의사를 표했다.

15. 니제르 등 서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전문가를 좀 더 육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6. 국별 실시 중에는 센서스 등 국별 정보 또는 스쿨 매핑 (school mapping), 보건 지도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나 정리 분야에 대원을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와의 관계와 연계

1. 전문가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대원과 접촉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의 업무 범위와 교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대원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해 조언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2. 팀제 파견의 경우에는 전문가는 실질적인 운영(현장 관리)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임 초기에는 대원이 전문가의 위상이나 관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팀제 파견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틀을 잘 짜서 보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회계 관리도 산만한 상황이고, 회계 책임을 맡은 대원이 없는 것도 문제다. 파견을 시작하는 시기에 명확한 비전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JOCV 사업에 대한 기타 과제와 제언

1. 조정원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조정원사무소장의 부하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명확하지 않다. 권한도 명료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각 조정원이 자신의 담당지역 또는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위상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대원의 파견목적은 경험 쌓기, 2년간 건강하기만이라면 국별 파견계획에 따르는 것은 어렵다. ODA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이상 적어도 전략을 갖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원을 늘이는 것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질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을 관리하는데 중심을 두는 데서 성과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4. 대원에게도 파견 전에 전문가를 활용하고, 반대로 전문가에게도 대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상담에 응한다는 원칙을 정해 파견 전부터 이 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이 대원과 전문가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5. 수요요청 배경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오피서(시니어대원)를 뒤야 한다.
6. 팀제 파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풀뿌리 민간협력 차원이 강하므로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팀제 구성인원은 모두 시니어대원으로 한다든가 또는 귀국단원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예 인원을 갖추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신선하다. 또한 현장에 파견될 때에는 젊음이나 활기가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대원을 보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대원은 현장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와의 역할 구분(업무 분장)도 가능해 질 것이다.

□ 특기 사항/ 총괄

1. 'Volunteer'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은 (조사단이 방문한) 모든 나라 공통이었다.
2. 니제르의 경우에는 전문가도 적고 JICA 자체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실시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서 대원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대원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측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으며, 보다 현지사무소와 본부의 사무국가 이러한 전문가와 대원 사이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서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 교류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교류를 진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3. Local Cost가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조직의 흡수 능력이나 운영 방식의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원 각자가 활동 현장에서 제약을 받기 쉽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를 비롯한 무상, 풀뿌리 지역사회 협력 사업 및 All Japan²⁾으로 상황에 대처해가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4. 일본 측에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실시될 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국별 실시 지침을 비롯한 전략을 조속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UNDP 방문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2월 6일 (수)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국제기구와의 연계
방문지명	UNDP
일시	2000년 12월 1일 (금) 11:00~12:00
면담자	PhD. Mamadou I. OUATTARA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 Dr. Si야 Mohamed TOURE (UNV Programme Officer)

2) 역자 주: 일본 관련 원조 및 사업 모두가 하나가 되어

□ 시찰/협의 내용

1. UNV 잠비아 사무소장(UNV Programme Officer³⁾) TOURE씨는 지금까지 2명의 일본인 UNV가 활동했으며,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전하면서 현재 계획 중인 “Community 보육원 보급 실험 계획”에 대해서도 JOCV와 UNV의 협력관계 아래, 현재 수도 니아메의 유치원 감독국, 각 도의 감독국 또는 유치원에 파견된 대원들과 협력하여 지방의 취학전 교육 개선을 도모하고 싶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2. JICA 쪽에서 이번 인터뷰의 목표(Mission)가 “보다 효과적인 대원 파견을 위한 사무소, 전문가, 다른 원조기관과 협의”하기 위함임을 설명. 또 대원의 파견현황(35년간 2만명 이상의 대원을 파견했으며 현재 2,500명의 대원이 활동 중)을 보고한 다음, 이렇게 많은 수의 대원을 파견하게 되면 대원들의 지원 동기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설명. UNV와 협력할 경우 그 해당 대원들에 대해서는 훈련 중, 파견 전, 부임 시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3. OUATTARA씨가 UNDP의 니제르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UNDP의 니제르 전략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빈곤감소

수입향상,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의 정비, 조직 능력 향상.

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 농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주민 조직 기능 강화

여성의 활성화: 동물 사육, 직업훈련(4개 지역에서 실시: 장딜, 닌기니, 마라디, 방킬)

②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막화 방지, 음용수 · 농업용수의 확보, 태양 에너지의 활용, 도시 집중 주민의 생활 기반 개선, 기후변동 대책 등이 있겠으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담당 정부부처가 맡고 있지만, 총리실(수상부)을 총괄 창구로 하고 있다.

③ 민간 부문 (Private Sector)

3) 옮긴이 주: UNV Program Officer는 그 역시 UNV 단원이다. 다른 International UNV와 같은 생활비를 받는다. UNV의 종류에는 International UNV와 National UNV가 있고, National UNV는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International UNV와 National UNV의 생활비 차이는 크다.

니제르 현지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육성, 세금 징수를 위한 등록제도 정비 등.

④ Good Governance

의회와의 협력, 신문사와 협조, 정전(停戰)협정지구(망가지역 닝기미)에서의 프랑스, UNV, UNDP와의 협력을 통해 퇴역 장병 관련 협력 등.

4. 이에 대해 JICA 조사단측에서는 JICA도 UNDP와 비슷한 방침으로 협력을 실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사막화 방지 관련 프로젝트를 카레고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인 이외에는 다른 원조기관 관계자가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기회가 있다면 방문해 주시길 부탁했다.

□ 특기사항/총괄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 다른 원조기관과의 연계가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니제르 UNDP의 경우 일본인 Volunteer의 이해와 기대가 높고, 사무국 측에서의 사람 선발, 파견 전의 설명이 충분히 행해진다면 국제기구와의 연계에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 기대한다.

2. 니제르 현지조사 기록 (프로그램용)

(1) 초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프로그램 과제명	초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양성, 교육 내용 개선
프로그램명	초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취학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JOCV 파견 교사대원(일반대원/초등교육, 과학교육, 유아교육)
일시	2000년 11월 28일(화) 11:30~12:00 사이토, 타니다, 코유키

	15:30~16:00 요시다, 코유키 16:30~17:00 이시이, 佐復, 코유키
방문지	니아메 주변 대원 파견 학교
면담자	사이토대원 (99년2차대/ 초등교육), 타니다대원(00년1차대/ 초등교육), 요시다 대원(00년1차대/ 과학교육), 이시이대원(99년1차대/ 유아교육), 佐復대원(99년 2차대/ 유아교육)

□ 시찰/ 협의 내용

대원의 파견학교 시찰, 직장 및 주거지 시찰, 대원과 면담

니제르 학교 건설 계획(기초설계보고서: 93년 11월)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반다바리학교를 포함해 33개교, 중학교는 가웨예학교를 포함해 2개교(가웨예는 보통교실동에 교실 8개, 과학실험동, 관리 및 화장실동에 각 1개실)를 정비했다.

반다바리초등학교 교장 Madam. Hama Ramauou, 학부모회 회장 Dicko Abdul Mounir, 구청장 등과 함께 교내 견학

1. 반다바리 초등학교는 12개 교실 중 4개가 일본의 무상원조로 지어짐(90년도)
2. 반다바리 초등학교는 AFVP(프랑스의 봉사단 파견기관)가 예전에 270만CFA⁴⁾의 자금 원조를 했었다. 학부모회 활동의 일환으로 가정 텃밭, 가축 실습교육등을 위해 농기구를 구입하고 가축 축사를 건설.
3. 학생 수 약 800명, 교사는 모두 여성.

사이토 대원 및 타니다 대원 (반다바리 초등학교 근무) 면담 내용

1. 니제르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파견되었다.
2. 니제르의 교육 방침과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파견기관에 부임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고 학교건물이 없으며 4학년까지만 학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3.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어문제라든가 경험면에서 볼 때 니제르 현지인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대원이 어떻게 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색 중.

4) 역자 주: CFA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쓰는 통화단위이다. 예전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지역에서 주로 쓰고 있다.

4. 앞으로의 활동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들었다. 교장선생님께 12월에라도 상담을 드려 제안을 할 예정이며 되도록 실시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① 선생님들이 모두 여성이므로 체육 수업이나 찰흙 만들기, 장난감 만들기 같은 수업에는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처럼 현지인 선생님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② APP 활동은 있지만 아직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초등학교에도 못 가는 아이들을 포함해서)을 비롯한 이들에게 가정 과목 중심의 수업을 늘여나가고 싶다.

③ 화장실이 일본의 개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중인데, 앞으로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 지원 경비(교육 기자재 및 재료 등)의 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6. 시골에 가면 학교 건물이 없고, 급식에 쓸 양식이 없으며 젠더 문제⁵⁾도 있어, 여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7. 무엇보다도 니제르에는 학교가 적고, 학생을 모두 수용할 만한 학교 건물이나 교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으며, 진학률도 높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대원과의 교류

1. 이 학교에 현재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상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어 좋다. 학교의 상황을 들을 수 있다든지 해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편했다는 게 두 사람 모두의 일치된 의견.

2. 유치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유복한 가정이고 유치원에서 불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치원을 못 다닌 다른 아이들과는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Gender 문제, 여자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여학생의 등교를 가로막는 등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문제.

가웨예 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시찰

1. 가웨예(Gaweye) 중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 교사가 32명.
2. 학생수는 2배로 늘어나 임시 교실을 짓고 있다. (이미 몇 개 정도는 지어져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3. 1995년 무상협력사업으로 학교가 건설됐다. 과학교육 실험동도 건설.
4. 도서관도 지어져 있으나, 책이 없고 자재 창고가 된 상태.

요시다 대원 (과학교육/ 가웨예 중학교)과의 면담 내용

1. 대원은 과학교육 실험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과학교육 실험동은 이 나라의 다른 학교에는 없는 시설이다. 단, 오전 중에만 물이 나오고, 실험기자재를 사용해 수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실험도구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고, 보여주기만 한다. 또는 교사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2. 대원의 활동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3. 올해에는 파업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시교실도 아직 짓고 있는 중이어서 본격적인 수업 개시는 못 하고 있다.
4. 대원은 먼저 실험실의 재고관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참관을 하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는 간단한 실험 등을 해 볼 생각이다. 과학 실험실 담당 코워커(카운터파트)를 비롯한 학교측의 지원을 얼마나 받아서 실험 수업을 앞으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학생들에게 실험 수업이 잘 받아들여질까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대원은 약사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은 없다.
5. 니제르에서 중학교에 대원을 파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6. 파견 전에는 '과학교육' 분야 단원의 보고서를 읽은 정도이며 달리 참고가 될 만한 책이나 자료는 없었다.
7. 다른 대원이 와 주길 바라다거나 특별히 함께 활동하고 싶다거나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원 본인의 말.

유치원 감독관(Madam. Masaraki Maimouna: 전임자가 퇴직해 최근에 부임해 음. 예전에는 Zinder의 감독관이었음). 아미나 교육 지도관 동석

1. 2명의 대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니제르의 유치원 교육에 공헌하고 있다며 그 활동을 높이 평가.
2. 지난주부터 사육과 재배를 시작(비둘기를 키우고 유치원의 한 켠에 텃밭을 가꾸고 있음)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널리 펼치고 있다.

이시이 대원 및 佐復대원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1. 유치원 교사는 니제르에 7명(그 중 니아메에 2명 배치). 3년 전까지는 1명만 있었으나 요 몇 년 사이 대원수가 늘어났다(대원의 파견 분포를 각 지방별로 고려한 국별 파견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됨) 1992년부터 니아메에 대원이 파견되었으며, 지금은 2명으로 충분하다고 대원들은 말했다. 니아메에서의 활동은 순회교육 및 시내 250명의 유치원 교사와의 강습회 실시. 한편 지방 배치는 5명으로 5명 모두 아직은 알음알음으로 일을 찾아가는 상태.
2. 수도인 니아메(Niamey)와 지방에 파견하는 것은 활동 형태가 크게 다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수도 니아메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중심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시간이 많고 그만큼 밀접하게 된다.
3. 수요일 오후 장난감을 만드는 강습회를 열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모임이지만 니아메의 250명 중 유치원 교사 중 8명이 참가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참가 동기가 됐지만, 이번에는 만드는 즐거움과 실제로 응용해 보려고 하는 궁리를 짜내기도 했다.
4. 코워커 연수를 작년 2명 보냈는데 그 중 1명이 퇴직해, 올해에는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본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데도 신중한 입장이다.
5.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원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보고서 제출은 의무다. 또 다른 대원들에게도 보고서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기를 바란다.

각 대원간의 연계 및 교류

1. 다른 대원들 모두 어림짐작으로 일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대원들끼리의 업무 연계는 말하기 어렵다.
2. 지금까지 실시한 활동의 정리와 책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3. 대원 전체 모임 자리에서 여러 번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과 나뉘었던 점을 발표하는 등 의견교환을 했다. 또 출장을 갈 때에는 다른 대원의 활동 중 좋은 점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다.
4. 초등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사이트 대원의 파견기관에서 한 선생님이 JICA 대원의 강습회에 참고하고 싶다고 한다. 때마침 유아교육 분야 단원의 파견기관인 감독국의 1층이 초등학교로 수요일 오후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교실도 사용할 수 있어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

□ 특기사항/ 총괄

초 · 중등교육 대원 활동

1. 니제르에서 대원을 초 · 중등학교에 파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원 자신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견 전에 정보와 참고문헌을 배포할 수 있다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언어 문제나 제도를 이해하는 측면, 또 경험 면에서 대원이 현지인 교사를 대신해서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소속기관의 교장선생님은 대원 활동을 이해하며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동료 교사들은 아직 대원이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대원의 존재의의를 비롯해, 학교 내에서 활동의 지침과 접근 방법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1번에서처럼 다른 나라에서의 활동 사례(초등교육 분야 등)와 함께 대원에게 참고가 될만한 책이나 사례집을 파견 기간 중이라도 배포하고,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3. 아직은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대원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착오중인 현실이지만, 니제르의 교육제도와 활동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기초교

육 프로그램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렵겠지만 JICA가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분야(초중등교육)의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 대원 활동

1. 니제르에 유아교육 대원을 파견한 것은 꽤 역사가 길지만, 많은 인원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직 활동에서의 교훈이나 경험 축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활동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2. 수도에 파견되는 것과 지방에 파견되는 것은 활동 형태도 크게 다르므로 이런 점에서 교류 및 연계나 업무분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니어 대원이 없기 때문에 대원 사이에 자발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또 사무소에서도 참고 문헌 또는 사례집 작성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니제르의 유아교육 분야 대원 파견의 의의(목적)와 전략 수립도 생각하고 있다.

제언

1. 유치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원이 파견되는 이점을 활용해 니제르의 교육 제도 흐름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거나 카레고로의 팀제 단위 파견에도 초등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각 단원들간의 교류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상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교 건설은 절대적으로 학교 수가 부족한 니제르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자재 공여나 다른 학교와 설비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원들은 각각 파견기관의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시행착오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업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 명씩 따로 따로 파견하는 지역을 제한하거나 2명씩 파견하는 쪽이 정보의 공유, 절차탁마에 따른 효과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전염병 대책 및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 세부내용

과제명	① 기니아충 박멸 대책 강화 ② 농민 소득 향상에 따른 빈곤완화
프로그램명	① 전염병 대책 프로그램 ②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 (예전에 ①과 관련해 잔텔에서 '기니아충 박멸대책 음료수 공급계획이 실시됨), 전문가(농촌개발 어드바이저)
일시	2000년 11월 29일(수) 10:00~15:00
방문지	테라군 보건의료센터, 나카지마 대원 및 코바야시 대원 자택
면담자	Dr. Maman Elhadji Oumarou Peace Corps 기니아충 대책 분야 단원 후지다 대원(97년2차대/시청각교육), 나카지마 대원(98년2차대/식용작물), 코바야시 대원(00년2차대/야채) [아사히 소장 동석]

□ 시찰/협의내용

기니아충 대책 현황, Peace Corps 측 설명

후지다대원의 파견기관인 병원의 원장은 JICA전문가 아래에서 3년간 연수를 받은 다음 1년간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 JI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기니아충 박멸 문제에 대해 후지다대원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대원, Peace Corps, 니제르 현지인 Volunteer가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마을 지역사회에 들어가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Peace Corps의 항브라이 회의

항브라이는 Peace Corps의 현지 훈련소가 있는 곳의 지명으로 여기에서 관계자(니제르 현지인을 포함)가 모여 AIDS, Gender, 수입 향상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받고 있다. 니제르인 참가자에게는 교통비, 일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국의 원조로 정비된 댐 견학

이 댐은 개발조사 '티라베리도 사막화 방지 계획'의 후속조치 사업(Follow-up)으로 파견된 후카이 단기 전문가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웃 주민(부족)들의 특성(보수적이고 농동을 좋아하지 않음)을 무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규모는 세로 13km, 가로 3km다. 이 물을 사용한 농업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여 건의 어민이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정도.

나카지마, 코바야시 대원 자택에서 의견 교환

나카지마 대원

2년간의 활동 중 JICA의 다른 사업과의 교류는 아직 없었다. 개발조사로 대원의 활동 지역인 마을에 면담 조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한다. 나중에 당시의 면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마을 원로께서 질문하셨을 때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답할 수 없어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상대측에서 보면 대원도 JICA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그때그때 전달됐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마을에는 그 후 후속조치(Follow)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나카지마 대원은 마을에 들어가 직접 현장에서 농민들의 영양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부임 전부터 이웃 부족들에 대한 책을 읽었으며, 부임하면서부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부족에 대해서는 일의 방법, 협력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마을에서 활동하다보면 무상자금협력 사업과 같은 대형 원조에 의문을 느끼게 된다.

대원의 임지에서 가까운 편인 이웃 국가 부르키나 파소의 도이 마을에서는 꽤나 성공적인 양배추 재배 방법이 있지만, 부르키나 파소는 국외 연수 여행 국가⁶⁾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마을 주민의 활동을 참관할 수 없어 아쉬웠다고 전했다.

후지다 대원

독일 GTZ와 네덜란드의 SNV의 연계사업으로 실시된 종합 농촌 마을 개발 사업 중 참가형 개발 같은 사업이 JOCV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개 대원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력 있는 NGO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6) JICA에는 국외 연수여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1년 임기를 마치면 JICA의 재정보조 아래 부임국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는 이웃 국가로 연수 여행을 갈 수 있다.

Peace Corps에서는 이웃하는 국가들의 같은 분야 대원이 모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JOCV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바야시 대원

8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 곳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려운 환경이어서 건강을 해치고 말았다. 건기에는 온도차가 30도 가까이 나는 날도 있다. 활동은 이제부터이겠지만, 좀 더 공부하고 올 걸 하는 생각은 떨치기 힘들다.

□ 특기사항/ 총괄

1. 나카지마 대원의 말에서도 보듯이, 부족의 특성이 그 생활습관이나 근로 의욕 또는 센스에 질게 나타나는 니제르에서는 이러한 부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활동을 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다른 대원들이 뭔가 이런 부족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남기려했었으나 체계적으로 남아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JICA의 다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용한다는 조건 아래라면 분야와 상관없이 유효한 정보가 될 것이다.
2. 농업 분야 대원이 각지에 분포돼 각박한 환경 아래 활동을 지속해가고 있다. 니제르에서는 농촌의 소득향상에 따른 빈곤감소가 중요 과제가 되어 있으나, 한 명 한 명의 활동을 이어서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점으로서의 협력이 아니라 면으로서 넓혀가는 협력) 하겠다고 생각한다.

(3)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2월 5일 (화)

□ 세부내용

과제명	농민 소득향상을 통한 빈곤완화
프로그램명	농촌생활 향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JOCV 팀제 파견

일시	2000년 11월 30일 (목) 13:00~15:30
방문지	카레고로 녹색 추진협력 프로젝트
면담자	이노우에 대원(지역사회개발), 이노우에 대원(야채), 타가와 대원(지역사회개발), 히라 대원(야채), 와타나베 대원(임업-식림), 하라구치 대원(과실수), 토시마 대원(야채) [아사미 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내용

카레고로 도착 후, 대원 소개. 프로젝트 개요를 대원들이 설명. 그 후 현장 시찰 실시.

1. 활동 사무소 견학, 개량 아궁이 시찰
2. 나무심기(식림, 조림) 현장 시찰
3. 야채(양파 재배 농가 방문)
4. 대원 (와타나베) 자택 방문

이 프로젝트는 1993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2001년 6월에 종료예정. 현재 전문가 1명이 조연을 하고 있으며, 대원은 7명. 코워커 3명 (예전 삼림관 소속 코디네이터 1명. 현지 삼림관 및 현지 가축 지도원 각 1명)으로 실시중.

조사단 측이 조사내용 설명을 실시했으며, 계속해서 대원들과 면담을 실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파견전과 실제 활동의 차이점

1.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이 주가 된다고 사전 수요요청에는 써 있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의 활동도 포함돼 있었다(지역사회개발 대원). 단, 파견전 알고 있던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 대원이 대부분이었다.
2. 협력대를 받아들이는 처음 단계에서는 1명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던 대원이 많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팀이 파견된 것을 살펴보면 지금의 팀제 파견쪽이 좋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팀제 쪽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대원이 많다.

3. 대원 면접을 받을 때 팀제 파견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대원도 여러 명 있었다.

4. 팀제 파견으로 결정될 시점에 부모님께서서는 팀을 이뤄가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하시며 찬성하셨다고 하는 여자 대원도 있었다.

5. 파견국이 불어권이어서 좋았다고 말하는 여자대원이 있었다(귀국단원으로 이번이 2번째 파견).

팀제 파견의 이점과 단점(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각 대원에게 물어본 결과를 정리)

1. 장점(이점이나 좋았던 점)

① 스트레스 발산이 가능(같은 나라 사람들 누구에게나 상담할 수 있다)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다(다수 의견)

② 친구가 생긴다

③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일을 할 수 있다.(다수 의견)

④ 성과도 나오기 쉽다(농업 관계).

⑤ 파견될 당시 방향을 잡을 수 있어 활동이 순조롭다.

⑥ 과제가 정해져 있어 '할 일'이 있다. 일이 없어서 고민이 됐던 적은 없음 (다수의 의견)

⑦ 서로 다른 분야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2. 단점 (마이너스 면)

① 성과가 나왔는지 측정된다는 점

② 일본 사회 그대로 (외국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안 듦. 현지인과 섞이기 힘들)

- ③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협력대원'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다.
- ④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융통성이 적다. (개인으로 파견된다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펼쳐 활동할 수 있다)
- ⑤ 혼자라면 (자신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팀제일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다수 의견)
- ⑥ 나아가야 할 방향이 딱 한 가지로만 정해져버리면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다.
- ⑦ 할 일, '과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 ⑧ 마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 ⑨ 혼자서 활동하는 일반 대원들을 보면서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 ⑩ 아무래도 일본어 중심이 되어 현지어 어학능력이 늘지 않는다. (다수 의견)

전문가와의 관계 · 이점

1.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팀의 틀이 잡힌다. (대원들만 있으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2. 전문가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3.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벽에 부딪힐 때 상담을 구할 수 있다.
4. 대원은 현장을 맡고, 전문가는 니제르 측과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다가올 수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문가에게 상담 중.
6. 팀 안에서 전문가의 위상을 잘 모르겠다. (전임 전문가와 다른 점도 많다)

7. 연간 활동 계획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늘 하던 대로) 해 가고 있지만,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대원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기술 측면의 지원

1. 현재 상황에서 비취 볼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벽에 부딪혀 협력대 기술 고문에게 연락을 취해 봐도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니제르에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싶지만, 호의를 가지고 상담을 해 주실 것인가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예를 들면, 파견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도 된다는 승인이 있다면 더 좋겠다.

JICA 국별 실시 계획

1. 일본의 전략과 계획 등 큰 틀이 있는 편이 좋다. 물론 그러한 큰 틀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분야나 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모두 다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2. 현지 상황과 각국의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JICA 국별 실시 계획은 단원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보다.
4. 국별 실시 계획을 대원도 한 번쯤 읽어두는 것이 활동하기 편할 것이다. 시야가 넓어지는 좋은 면이 많다.
5. 대원의 위상을 명확히 하려면, 대원 자신도 사전에 국별 실시 계획을 충실히 읽고 자각을 해야 할 것이다.
6. JICA를 비롯한 일본의 중점 분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르쳐 줬으면 한다.

□ 특기사항/ 총괄

1. 모집 당시에는 혼자서 활동하기를 원했던 대원이 많았으나, 팀제 파견이 결정된 시점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원의 파견은 활동 지침이나 업무 내용을 비롯한 사전 정보를 알려준다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재 대원들은 사이가 아주 좋고, 팀 내에서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활동도 순조로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팀워크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 자주적인 대원 활동 속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향해 같은(일사분란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며, 이에 대해 배울 점도 많다. 단 팀제 파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대국 측과의 의견 조율,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리더십의 부재 등에 대해 대원만으로는 보통 잘 처리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대원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 또는 조정원 각각의 조언이나 지도 외에도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3. 팀제 파견은 활동 목적이 명확하여, 각 대원의 할 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원들에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4. 팀제 파견은 현지활동비(프로젝트비 등)와 활동의 폭과 같은 점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계 처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5. 전문가도 대원도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다가서기를) 머뭇거리는 등 관계 설정이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관계 구축, 연계를 위해 TOR(Terms of reference; 직무기술서 등)에 정식으로 교류와 연계를 기술하거나 확실히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6. JICA 국별 실시계획에는 모든 대원이 찬성했다. 이번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대원은 JICA의 전략과 시스템, 또는 현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파견 전에 정보로서 제공하든지 현지 도착 시에 사무소에서 오리엔테이션의 하나로 최신 정보를 가르쳐 준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본 자료집은 봉사단파견사업 업무 참고용으로, 아래의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 자료 원문 -

青 JR 01-02

ボランティア事業への國別・地域別アプローチの適用
調査研究報告書

2001年3月國際協力事業団
(現。國際協力機構 JICA)
青年海外協力隊事務局

「JICA 국별・분야별 접근」 번역자 및 편집・감수자

번역 부분	번역자	편집 및 감수자
총론 및 본론	고희숙	김보민
현지 사례 조사	김보민	

제1절 현지 조사 일정

□ 조사대원

- JICA - JOCV 사무국 해외 제2과 시라이 과장 대리
- 시니어 해외 Volunteer과 오부치 과장대리
- 해외제2과 오리다 직원
- 국내과 모리와라 (森原克樹) 직원
- 컨설턴트 IC Net 주식회사 마츠모토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 오부치 과장대리와 모리와라 두 조사대원은 잠비아에 다른 일로 조사차 출장 중 이 조사에 참가했으므로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 세부일정

	날짜		시간	일정 및 내용
1	11/4	토	AM	일본 (나리타) 출발 [오리다, 마츠모토 이하 같음]
2	11/5	일	PM	잠비아(아크라) 도착
3	11/6	월	AM	JICA 가나 사무소 협의
			PM	대원 및 전문가 의견교환회 관개 소규모 농업 진흥 계획 프로기사 현장 시찰 및 협의
4	11/7	화	AM	가족계획 및 영양 개선, 기생충 예방개발 복지 지원 현장 시찰. 조산 분야 대원, 기획조사원 협의
			PM	작물재배 분야 대원 및 콤포스트 개별 단기 전문가 현장 시찰, 협의
5	11/8	수	AM	VSO 가나 사무소 협의
			PM	초중학교 과학교육 개선 계획 프로젝트 기술협력사업 전문가 및 과학교육 시니어 대원, 과학교육 대원 협의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 기술협력 전문가 · 노구치 연구소 전염병 프로젝트 기술협력 전문가 협의
6	11/9	목	AM	노무라 대원 및 일반 단기 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사회개발 종합 프로그램 개별 전문가 협의
			PM	청소년 활동 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7	11/10	금	AM	교육 Adviser 개별 전문가, 초중학 과학교육 개선 프로 기사 전문가 및 과학교육 시니어 대원 협의 2차 JICA 가나 사무소 협의 몽 지역 농촌 개발 계획 JOCV 그룹 파견 현장 시찰 및 협의 [오부치, 모리와라]
			PM	JICA 가나 사무소 보고 [오리다, 마츠모토]

				기획 조사원 협의 [오리다, 마츠모토] 몽그 지역 농촌 개발 계획 JOCV 그룹 파견 현장 시찰 및 협의 [오부치, 모리와라]
8	11/11	토	AM	조사단 업무 회의 [오리다, 마츠모토]
			PM	생활환경 조사 [오리다, 마츠모토] 환경 교육 대원 현장 시찰 및 업무 회의 [오부치, 모리와라]
9	11/12	일	AM	가나(아크라) 출발 [오리다, 마츠모토. 아래는 같음.]
10	11/13	월	PM	잠비아(루사카) 도착 Advisor형 전문가 의견교환회
11	11/14	화	AM	시장조사 대원 현장 시찰 · 협의 지역사회 개발 대원 현장 시찰 · 협의
			PM	AMDA 잠비아 사무소 협의 [오리다]
12	11/15	수	AM	Primary Health Care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 Care International 현장 시찰, 전문가 등과 협의 [오리다 · 마츠모토. 아래 같음] SCDP (현지 NGO) 사무소 협의
			PM	점토화로-곤로 JOCV 그룹파견 현장시찰, 시니어대원 · 대원 협의 지역사회개발 대원 현장 시찰 · 협의 [오부치 · 모리와라]
13	11/16	목	AM	국내 이동 [오리다 · 마츠모토. 아래 같음]
			PM	생태조사 대원 · 코워커(카운터파트) 협의
14	11/17	금	AM	생태조사 대원 현장 시찰 · 생활환경 조사
			PM	(일본(나리타) 출발 [시라이])
15	11/18	토	PM	(가나(아크라) 도착 [시라이]) 조사단 자체 회의 [시라이, 오리다, 마츠모토]
16	11/19	일	PM	(가나(아크라) 출발 [오리다]) 자료 정리 [시라이, 마츠모토. 아래 같음]
17	11/20	월	AM	과학 및 수학교육 협력대원 활동 현장 시찰 및 협의
			PM	잠비아 교육부 인사차 방문 및 협의 과학 및 수학교육 협력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과학 및 수학교육 협력대원 의견교환회 (나리타 도착 [오리다])
18	11/21	화	AM	루사카시 초등학교 건설계획 무상사업 현장 시찰시라이, 마츠모토. 아래 같음]
			PM	시청각분야 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재 잠비아 일본대사관 보고 JICA 잠비아 사무소 협의 및 보고
19	11/22	수	PM	잠비아 (루사카) 출발
20	11/23	목	AM	영국 (런던) 출발

			PM	JICA 영국사무소 협의
21	11/24	금	AM	영국 (런던) 출발 → 프랑스 (파리) 도착
			PM	AFVP 사무소 협의 국제 Volunteer 정보센터 사무소 협의
22	11/25	토	AM	JICA 프랑스사무소 협의
23	11/26	일		자료 정리
24	11/27	월	AM	프랑스 (파리) 출발
			PM	니제르 (니아메) 도착
25	11/28	화	AM	JICA 니제르 사무소 협의 니제르 외무부 예방 JICA 니제르 사무소 협의
			PM	유치원 유아교육 분야 대원 및 초등학교 대원 과학 및 수학 교육 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26	11/29	수	AM	시청각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협력대원 현장 시찰 및 협의
			PM	이동
27	11/30	목	AM	Advisor형 전문가 의견 교환회
			PM	카레고로 녹색 추진협력 JOCV 팀제 단원 파견 현장 시찰 및 협의 JICA 니제르 사무소 협의
28	12/1	금	AM	UNDP 니제르 사무소 협의
			PM	JICA 니제르 사무소 보고 니제르 (니아메) 출발
29	12/2	토		이동
30	12/3	일	PM	일본 (나리타) 도착

제2절 가나 방문

1. 가나 현지 조사 기록 (사무소 등)

(1) JICA 가나 사무소 방문(1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7일 (화)
- 확인: 오리다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명	JICA 가나 사무소 (1차 방문)
일시	2000년 11월 6일 (월) 09:00~12:00
면담자	나베야 소장, 미야카와 차장 외 직원 2명, 행정원-조정원 1명, 의료 행정원-조정원 1명

☐ 시찰/ 협의 내용

1. 먼저 조사단이 조사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 미야카와 차장이 가나 사무소의 인원 구성 및 업무 분장에 대해 설명(직원은 소장 포함 총 4명, 행정원-조정원 3명, 기획 조사원 1명, 대원 현재 68명, 대원 68명 중 여성 34명). 이번 조사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2. 협력대 사업을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넣는 것에 대해

(1) Volunteer라고 하는 사업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협력사업과 똑같이 취급해도 될 것인가?

(2) 원조 상대국과 협의하면서 작성한다는 본래국별 사업 실시계획의 성격을 생각한

다면, JICA의 책임과 Commitment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모집과 파견 시기 등에 계획 수립에 곤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3. JOCV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의 방법은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가나에서는 전문가의 대부분이 JOCV 출신 대원 또는 JICA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4. 중점 분야를 감안해 국별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해도 상대국 측의 의사를 반드시 통일시킬 수만은 없으며, 계획과 요청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 국별 사업 실시 계획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상대국 정부와 본부 간에 의견 조정을 하며 수요를 채택하거나 사무소 측의 요청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국별 실시 계획에 따라 그 실용성부터 통일된 수요 조사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6.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대원 전문가, 기획조사원 등이 파견되고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를 일본에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개발도상국의 요청과 일본 측의 공급 불일치)이 생긴다. 어떤 방법으로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각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이다.

7. JOCV 사업과 개발 복지 사업 등에 풀뿌리 민간 협력과 인재 육성 사업은 손은 많이 가지만, 특히 실시 기관의 원조 흡수 능력이 낮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유효한 협력 방법이라 하겠다.

8. 전문가와 협력대의 연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뤄져 왔는가를 살펴보면 전문가가 대원을 손발처럼 부리려고 하기 쉽다는 점 생활비 등의 대우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과 같은 문제가 있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임지를 따로따로 한다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 무상 공여의 사후 조치로 대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Follow-up, 곧 뒤처리 식이 되어, 대원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원 의 활동의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이 있다

□ 특기사항/ 총괄

1. 국별 사업 실시계획에 Volunteer 사업을 넣을 때 JICA 측에 생기는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협력사업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단, 다른 협력 사업과 비교할 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2. 국별 사업 실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아 일부국가에서 실시중인 '프로그램정의 및 위상 정립과 활용 방법 등의 검토결과를 지켜봤으면 한다.
3. 일반적으로 원조 흡수능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Volunteer사업이라고 하는 풀뿌리 민간협력의 효과가 크다
4. 전문가와 JOCV 연계에 대해서는
 - (1)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하며, 상호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
 - (2) 같은 기관이나 임지에 파견하지 않는다.
5. JOCV와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JOCV에 부정적인 Follow-up적 업무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자재가 활용 가능할 경우, JOCV의 활동에 이득이 될 수 있다.

(2) JICA 가나 사무소 방문 (2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오리다 확인: 오리다,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금)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명	JICA 가나 사무소 (2차 방문)
일시	2000년 11월 9일 (목) 및 10일 (금)
면담자	미야카와 차장, 혼다 기획조사원, 행정원-조정원 1명, 의료 행정원-조정원 1명

□ 시찰/ 협의 내용

가나 협력 사업을 둘러싼 상황

1. 가나 측 협력대 창구 (재무부 Social Policy Unit)에서는 예전에 대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직종도 있었으나 창구 담당자가 바뀐 지금은 대원을 받지 않는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 단 가나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에 따라 이 재무부 Social Policy Unit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2. 과학교육 대원 등을 위시해 대원의 포괄적인 역할 및 활동 계획이 없다 대원의 후임 등 계속성은 대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사무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원수 파악을 위한 일람표 있음).
3. 풀뿌리 무상협력사업과 대원의 연계는 대원이 NGO나 인재의 소개,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나 대원이 소속된 기관, 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4. 현재 그룹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북부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안건이 있었으나, 말라리아 상황, 업무 전개 등을 감안해 취소)

국별 사업 실시 계획 수립 과정

1.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시간을 들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2. 올해 실시 지침은 원조 중점 분야를 포함해 가나의 Vision 2020이나 중기 수립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섹터별 접근 방식에 대처하기 위한 큰 틀을 정리했다.
3. 외무부 (대사관)의 국별 원조 방침과의 적합성도 감안하고 있으나 원조 방침 쪽이 개괄적인 것으로 필요부분을 반드시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초안(Draft)단계에서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5. 대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기관과 직종만이 아니라 대원 활동 상황에 맞춘 참여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에 SE(시스템 엔지니어)가 배치되어 있다. 전임 대원까지는 대원 활동도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보건소 시스템 구축이나 네트워크화가 우선 의제가 되어 EU에서 전문가도 들어오면서 활동의 중요성이 커져 실시 계획 중 '의료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정했다.
6. 대원 한사람 한사람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원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방침이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남아 있어 곤란하다.
7. Capacity Building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원 대부분이 딱 맞아떨어지기에 각 프로그램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
8. 개발 과제 매트릭스에서는 제일 처음 원조 중점 분야로 설정했을 때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고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그 분야를 선택했으며 그 분야의 중점 사항을 어떻게 추출해냈는지 전체적인 틀 짜기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 공여 기관의 협력 상황과 상대국 정부의 실제 협력 상황에 따라 매트릭스 속의 순서와 위상 설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또 JICA 협력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구성요소(component)나 프로젝트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9. 섹터 프로그램 접근법이 진척되고 있으나 그 중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나 섹터간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개발 종합 프로그램처럼 1개 섹터로 특화할 수 없는 것은 섹터 프로그램 몇 개에 이름을

끼워 넣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 지금은 진행 중인 각 프로젝트와 JICA 사업의 Justification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새로운 전략화를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협력대사업을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포함

1. 팀제 파견을 따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 있다.
2. 시니어 대원은 일반 대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시니어 대원만 따로 떼어 놓고 설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3. 일반 대원과 시니어 단기 긴급 대원은 후임 파견이 많으므로 그 때 그 때 새롭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
4. 일반 대원을 비롯해 어떤 틀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파견이 안 된다는가 하는)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시 계획에 포함된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파견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JOCV 국별 파견계획

1. 현황과 현실적인 예측 사항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작성한다
2. 연차 보고 내용에 전반부는 이미 들어가 있다. 후반부는 파견 인원수 예상치 등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현재 파견 중인 전체 대원의 바 차트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므로 국별 파견계획에도 바 차트 작성이 들어가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용하는 양식이 사무소가 이미 작성하고 있는 양식과 크게 다른 점이 불편하다.

시니어 해외 Volunteer의 분야

1. 경찰이나 소방 분야와 같이 계급 사회이며, 연공 서열 사회인 직종에는 시니어 Volunteer가 적당하다. 또 사범 대학 등에도 시니어 Volunteer 파견이 효과적이다.
2. JOCV가 파견되고 있는 곳 중에는 좀 더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있는 인재가 필요한 곳도 있다.
3. 예를 들어 가나 같은 나라에는 의료 사정을 감안해 60세 이상인 분들을 파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4. 이번 조사와 같은 내용 (특히 협력대의 의의 장점)을 상대국 정부로부터 듣는 것도 필요하다.
- 5 미국 Peace Corps가 상대국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국 민간인의 검토 의견(Review)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6.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내 학자 및 전문가 일반인들의 협력대에 관한 인식(크로스로드와 같은 JICA 발행 정기 간행물을 포함)을 한데 묶는 것도 필요하다.
7. 이번 조사와 관련해 5. 6과 같은 검토를 실시할 경우, 협력대 사업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나 부정적인 면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협력대 사업은 '기술 이전'과 '청년 육성'이라는 이면성이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와 '기술 이전'과 '국익'이라는 이면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여기서 국익이라는 것이 JICA 법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 9 협력대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직접적인 활동성과 뿐만 아니라 개발원조 인재 육성, 다른 국가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이 성과라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활동의 직접적인 성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원의 의료나 안전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할 때 이 부분도 충

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 특기 사항

위의 '기타'에 나온 코멘트에는 시사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이 코멘트들을 하나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NGO 현지 사무소 방문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9일 (목)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NGO 현지 사무소
방문지 명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가나 사무소
일시	2000년 11월 8일 (수) 9:00~11:30
장소	아크라
면담자	Adelaide Addo-Fening, Contry Director [동행자: 츠치모토 행정원-조정원]

□ 시찰/ 협의 내용

조사단이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가나의 국별 파견 전략

- 1 가나에서는 가나 국내의 3개 지역 사무소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97년부터 Country Strategy Paper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VSO 본부가 작성을 지시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 2 요즘은 5년에 1번 작성하는 Country Strategy Paper(가나편 입수 완료)와 1년에 1번 작성하는 Annual Country Plan (양식 입수 완료)가 있다. VSO의 전략과 가나의 정책 및 요청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이 전략의 중간 검토(Review) 중이다.
- 3 가나에서 작성해 영국에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 4 파견 계획 전체를 재검토할 경우에는 타겟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input)이 거둔 효과, 가나 국민만으로는 발전이 어려운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파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대원 파견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국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스포츠 분야 등

5 파견 기관 1곳에 Volunteer를 더 이상 파견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것이 미리 예정된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에는 후임 대원 파견이 결정된 시점부터 앞으로 대원을 파견 않을 것임을 기관에 통보하며,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즉 후임 대원의 파견기간이 끝나는 2년 후부터는 더 이상 대원 파견이 없을 것임을 통보. 이번이 첫 번째 대원 파견일 경우에도 더 이상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6 충분히 자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에는 파견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가나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원 파견이 가나 국민의 직장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7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한 지역 중에서도 특별 중점 구역을 설정하는 등), 분야, 대상을 좀더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북부의 3개주에 집중하거나 과학 및 수학 교육과 영어 교육 분야 대원 파견으로 대원 절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가나의 분야별 파견 상황 예시

가나에는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분야가 우선 분야다.

1. 교육 분야에서 대원이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국인 가나의 정책도 있고 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실험적으로 District Education Office에 파견되어 순회지도,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현지인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등교육 담당 대원이 사무소 등의 가나 현지 조사 기록에서 초등교육 대원에게 Feed back을 주기도 했다.

2. 북부의 주들은 빈곤 지역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다. VSO는 진학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졸업 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장애인 지원은 다른 NGO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실시 중.

4. HIV/AIDS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한다.

국별 전략과 Volunteer의 관계

1. 파견 직후에 대원의 JOB Description의 내용이 상대국의 개발 요구와 전략적 계획에 합치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2. 개발전략이나 전략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원의 활동이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해도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전체 계획에 합치되며, 공헌할 수 있을 경우 문제가 없다.

평가 체제

1. 종료시에는 Volunteer 자신과 파견기관, VSO 가나 사무소 3자가 평가 (평가 양식 입수 완료. 시행 착오 등을 고려 해 현재 양식 개정 중)
2. 생활면 평가 항목 중 비슷한 내용은 줄이고, 활동 성과 중심의 평가 항목을 채택하고 있다. 또 Volunteer 파견 전과 종료 시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 프로 의식이 중시되며, VSO도 개발 기관으로서의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
4. 2000년부터 우수 대원 선정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 제도를 실시, 시행 중이다. 가나에서는 best 4 대원을 선정했고, 다시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별 best 4 가운데 best 4를 선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영국 본부에서 지역별 best 4 가운데 최종 best 4를 뽑게 된다. 가장 뜻 깊은 변화를 가져온 대원의 활동을 선정해 양이 아니라 질적인 accountability를 보여 주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인재 확보

1. 대원 선발 시에 현지에서의 활동이나 생활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나이, 경험, 특히 해외 체재 경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대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 앞으로 파견을 확대하게 되면 비즈니스계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즈니스계 인사가 대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가족 동반시의 경비도 일부 부담하는

등 방침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68만 가나 세디 이상 되는 생활비는 VSO 가나 사무소가 부담한다.

수요 발굴

1. JOB description을 기술할 때에는 유사 분야의 대원이 적극 협력한다
2. 각 섹터별 균형은 연차 계획 속에서 %로 관리하고 서서히 변화를 주도록 한다.

DfID¹⁾와의 관계

1. 지시가 내려올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DfID 직원과 가나 측의 인식 부족 문제, 수속 상의 차이점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다.
2. DfID의 프로그램은 금액이 커서 효과도 큰 경우가 많으며, 중앙 중심적이므로 VSO의 방침과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3. 국별 전략은 VSO와 DfID가 공유한다.

□ 특기사항 / 총괄

1. 5개년 국별 전략과 연차 계획, 대원 평가 시트 등은 JICA와 같으므로 활용 및 참고할 것이 많다.
2. 대원 파견 및 중점 분야 설정을 위한 전략 계획을 더 논리적으로 짜기 위해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3. 가나 사무소에는 프로그램 오피서 4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 외 개발 조사와 예산 담당 있음) JOCV와는 달리 생활면은 대원 자신이 책임지게 하고 있으며 활동 지원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질병에 노출되는 비율이 JOCV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DfID와의 연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서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존

1)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영국 정부의 국제 개발국

재하고 있다. 다만, 중복 문제 검토나 과거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측면에서의 연계나 협조는 촉진될 필요가 있다.

5. VSO에는 나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서인지 단원이 (과잉보호를 받지 않고) 좀 더 '어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이 JOCV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2. 가나 현지 조사 기록 (프로그램용)

(1)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1)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8일 (수)

☐ 세부내용

과제명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질의 향상
프로그램명	① 가족계획·모자 보건 추진 프로젝트 ② 전염병 대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①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무상/지방기초의료개선계획 일반대원/약사·방사선기사 청소년 초청/보건의료 ②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노구치 연구소 전염병 대책 무상/아동 보건 무상 (소아마비 예방 접종 전체 투여) 기획행정원-조정원/ 국제 기생충 대책 지원 (제3국 연수) 제3국 연수/ 기생충 대책 전염병 대책 특별 기자재 (*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설정한 요소component-를 설정, 반드시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일시	2000년 11월 8일 (수) 16:00~18:00
방문지	JICA 사무소
면담자	오이카와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전문가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업무 조정), 이와다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장기 전문가 (노구치 전염병 대책/ 업무 조정) [오가타 의료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1. 각 프로젝트의 개요 설명

(모자 보건) 1997년부터 실시. 보건부 안에 연수 시스템을 3개 주에서 실시. 예전에 추진하던 모자보건과는 달리 연수 정보 시스템 정리와 구축이 주가 된다. 5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1명 결원.

(노구치 연구소 전염병 대책) 20년 전부터 시작되어 3번째로 4명의 장기 전문가를 파견. 기초 의학 연구기관이 없었으므로 기초 의학 연구소 창설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 연구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현재 7개 연구 분야와 실험실 안전기준 분야를 포함해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공동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각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초기에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조산 분야, 시스템 엔지니어 분야 대원 파견의 협력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무소의 판단 아래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있지 않다. 프로젝트 종료 후, 3개 주 이외의 곳에 시스템 엔지니어 대원을 파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3. 대원과의 연계 가능성

전문가와 대원은 물과 기름 같은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역할 분담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원은 청소년 육성과 기술협력이라는 2 가지 측면이 혼재하므로 JOCV 사업은 목적을 더욱 뚜렷이 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노구치 연구소 전염병 대책 사업의 경우 에이즈 계몽 활동용 교재와 정보 제공, 기생충 연구결과의 마을 보급을 위한 시청각 교육 분야 대원 및 지역 개발 분야 대원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 특기 사항 / 총괄

1. 대원과 협력대의 연계는 JOCV 관계자에 따라 대원이 프로젝트의 명령 계통 아래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렬적인 협력이라고 해도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의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이나 무상협력 사업의 뒤따기식, 전문가의 대응으로 왔다는 뉘앙스로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 대원 파견은 누

구의 요청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중요(가나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전문가의 요청인가).

2. 대원 측에서 보자면 관리당하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반면 전문가에 비해 대우가 나쁘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3. 전문가와 JOCV와의 구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업무 내용, 소속 기관의 수준, 수도/지방 등) 대원과 전문가의 차이점은 활동하는 눈높이, 평가되고 있는지 여부, 봉사활동과 자발성이라는 측면과 비즈니스의 연장이라는 자세 또 대원은 활동 수행 정도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4. 직종(분야)이 전혀 다르고 경쟁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원 간에 보완할 수 있어 좋은 관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OB 대원의 의견)

5. 파견인원수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대원의 질을 높이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6. 나이가 어린 대원들에게는 기술협력, 기술이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 개개인의 인물 됴됨이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JOCV 사업은 기술협력이라는 타이틀을 그만 떼고 인적교류라는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또 협력대 파견에 반드시 코워커를 지정하려 하지 말고 일손 제공형(맨파워용)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7. 대원들을 좀 더 어른으로 대접해야 한다. 자주성을 중시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 (생활비 등의 대우도 달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원을 대하는 방법 제도 등을 말하는 것) 현행 집단적이며 규칙 중시 방식으로 이뤄지는 파견전 국내 훈련을 포함해 대원들을 어린 학생처럼 다루는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8. 대원에 따라 수준차가 크게 난다. (상식, ODA, 지식과 견해, 사회생활 여부 등) 하지만 파견 전 국내 훈련에서는 이렇게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9. 이번 조사는 전문가나 대원 등 JOCV, JICA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상대국, 무역 상사 해외 주재원 등 외부 인사에게도 JOCV 사업을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

10. 먼저 청년해외협력대(JOCV)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 대원(隊員-군대를 연상시킴) 또는 협력이라는 용어가 군대식이어서 오해를 살 수 있다.

(2)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2)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7일 (화)

□ 세부내용

과제명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질의 향상
프로그램명	가족 계획·모자보건 촉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개발복지 지원/가족계획·영양 개선·기생충 예방 일반 대원/조산
일시	① 2000년 11월 7일 (화) 10:00~1:00 ② 2000년 11월10일 (금) 11:00~2:00
방문지	① 니야메 마을 (이스턴 주: 아크라에서 약 3시간) ② JICA 가나 사무소
면담자	① 오오하시 대원 (10/3) Mrs. Susanna Osam, Area Manager 외 순회 지도원, 가나 가족 계획 협회: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of Ghana (PPAG) = 대 원 파견 기관 겸 개발 복지 지원 프로젝트 실시 기관 [혼다 기획 행정원-조정원, 사토 기획 행정원-조정원, 오가타 의료 행 정원-조정원 동행] ② 혼다 기획 행정원-조정원 (의견 청취만)

□ 시찰/ 협의 내용

1. 모자 순회 방문 지도 활동 현장을 시찰한 후, 대원과 의견 교환 실시
2. 가족 계획 및 reproductive health를 중심으로 가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NGO로 1967년에 창설, USAID, 국제가족계획연맹, JOICEF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개발 복지 지원에 따라 1998~201년에 이스턴 주에서 IPII 프로그램 실시. 그 활동 장소에 대원이 임지 변경으로 파견되어 활동 중.
3. 일본의 NGO인 JOICEF의 활동: 가나에 주재원이 없으므로 1년에 몇 번 출장하는

식으로 협의. 현재 PPAG(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of Ghana)의 활동을 지원 중.

4. 대원은 PPAG가 틀이 잘 잡힌 조직이며, 활동 내용도 대원 없이 수행 가능하므로 후임 조산 분야 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

5. PPAG에 지원하는 것은 2001년까지의 3년간으로 예정. 그 활동의 성과는 이미 나왔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모자 보건 활동은 확립되어 갈 것이다. 사무소는 PPAG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개발 분야 대원 (PPAG 활동 자금을 얻기 위한 생계 향상 등) 파견을 계획 중. 또 PPAG가 활동을 전국에 펼치고 있고 보건부가 그 활동을 인정해 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원 파견 확충을 검토할 수 있음. PPAG는 조직의 양상으로나 활동 면에서나 대원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상이다. 따라서 조산 분야 대원의 파견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볼 때 PPAG와 같이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분야나 지역사회 중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에 지역 개발, 영양사, 농업 분야 등의 대원을 파견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다.

6. NGO에 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 파견하는 것과는 달라서 아주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지 어떤지가 아주 중요하다. 기동력이나 유연성이라는 점에서는 NGO가 뛰어나며 풀뿌리 지역사회 민간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활동 영역의 폭이 넓으므로 조직 자체의 리더십 예산, 인재 수급의 연속성, 대원의 주거와 활동이 확보 가능하다면 대원을 파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개발 복지 사업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원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기획 조사원의 의견).

☐ 특기 사항/총괄

1. 대원은 개발복지사업에 파견되면 JICA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2.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의 경우 적어도 3~4일이 걸리며, 사무소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생각하자면 시간을 낸다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나의 경우 대원 68명에 행정원·조정원 2명, 의료 행정원·조정원 1명 체제다. 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감염률이 가장 높은 (100%를 넘음) 상황 속에 의료 행정원·조정원은 보건 의료 분야 대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다.

3. JICA의 여러 가지 틀과 제도를 설명해도, 결국은 대원 자신이 어떻게 융화해 가는

나와 2년간의 활동 계획을 어떻게 짜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과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3) 기초 교육 확충 관련 프로그램 (1)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9일 (목)

□ 세부내용

과제명	기초 교육 확충과 질의 향상
프로그램명	과학 및 수학교육 현직 교사 연수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초중등 과학 및 수학 교육 개선계획
일시	2000년 11월 8일 (수) 14:00~16:00
방문지	JICA 가나 사무소
면담자	다나카 시니어 대원, 오오하라 대원 (10/2), 아마모토 대원 (11/1)

□ 시찰/ 협의 내용

1. 현재 과학 및 수학 교사는 약 30명. 시니어 대원, 수학 분야 대원, 물리 분야 대원 3명이 협의 실시.
2. 가나에서는 과학 자원 센터(Science Resource Center) 학교가 있으며, 위성학교 들은 센터 학교의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반 사정을 살펴보자면 관련 시스템이 착착 가동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4명이 센터 학교에 파견되어 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는 VSO도 파견되어 있어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다. 잘 기동되고 있는 또 다른 학교에는 수학 분야 대원이 파견된 것이어서 실험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머지 1개 학교도 직전 학기까지 실험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1개 학교는 신규 대원 파견 중이라 아직 이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
3. 시니어 대원은 교육부 중등 교육 부서 (Secondary Education Div.)에 2번째로 부임하여 대원들을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요 요청 배경 조사를 담당한다. 또 현지 부서 담당자 (Div. Director)가 바뀌면서 새로이 Monitoring and Evaluation Research Unit이 설치되어 가나 국민 3명과 함께 기획에 참여해, District Office에 대한 업무도 시작했다. 현재 과학 및 수학 교육 분과 모임에서 정리한 강의계획(실라버스)에 대한 제언을 Unit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명

확한 TOR이나 목표는 아직 고려 중이다.

4. 분과 모임은 예전에 작업 분담에 대해 feed back이 적다고 느끼는 대원이 있었으므로 지금은 자발적인 참가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많은 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운영은 수학과 과학교육 분야 대원이 맡고 있으며, 교과서나 문제 작성 등은 반드시 교과별로 진행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는 또 주말 학교(holiday school), 장학금 심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과학 및 수학교육 분야 대원들 간에 서로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준비 노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 특기 사항/총괄

1. 대원들의 노력으로 수업 내용이 향상될 수 있지만 학교 측의 협조 방식이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시니어 대원이나 교육 전문가를 통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대원들은 중고교에서 수식 계산 같은 기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 협력이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고, 대원 자신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개시 전에 대원에게서 설명을 들었었다 지금은 기술협력 개시 이후이므로 다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대원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현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4. 타나카 시니어 대원과 오쿠가와 전문가는 정보 교환을 해도 서로 전혀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굳이 경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5. 두 사람 다 파견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정보 교환과 업무 연계를 기대한다.

(4) 기초 교육 확충 관련 프로그램 (2)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월)

☐ 세부내용

과제명	기초 교육 확충 · 질의 향상
프로그램명	① 교육 정책 지원 프로그램 ② 과학 및 수학 교육 현직 교원 연수 및 교원 양성 프로그램(2)
프로그램 구성	① 개별 파견 전문가/ 교육 자문관 (Adviser) ②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초중학교 과학 및 수학 교육 개선 계획 시니어 대원/ 과학 및 수학 교사 일반 대원/ 과학 및 수학 교사 (국별 특설, 청년 초청)
일시	2000년 11월 10일 (금) 09:00~11:30
장소	JICA 가나 사무소
면담자	오쿠가와 개별 장기 파견 전문가 (교육 자문관 Adviser), 요코세키 프고젝트형 기술협력 장기 전문가 (리더), 오나카 프로젝트형 기술협 력 장기 전문가 (업무 행정원·조정원), 쿠로다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단기 저평가 (국내 위원장), 다나카 시니어 대원

☐ 시찰/ 협의 내용

1. 조사단이 조사 내용을 설명

2.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 협력은 주로 고등학교에 파견된 과학 및 수학교육 대원이
초등교육에서 과학 및 수학교과와 중요성을 지적해 사업을 형성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런 사정에 의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JOCV는 고
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도리어 직접적인 연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유의할
것은 가나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 봉사대원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전문가 중에 JOCV 귀국단원(OB)이 있으므로 의미 있는 의견 교
환이 이뤄졌다.

☐ 특기 사항/ 총괄

국별 사업 실시와 협력대의 나아갈 방향

1. 협력대와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여부 검토 전에 국별 사업 실시계획의 어느 부분에 협력대의 위상을 설정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계 여부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2. '국별 사업실시계획과 JICA 봉사단 사업과의 Matching, 그리고 다른 사업별 수요와 JICA 봉사사업의 연계는 관련은 있어도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3. 연계에는 moderate와 같은 형태에서부터 패키지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와 수준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4. 협력대 중에는 국가 계획 등 큰 틀 속 어디에 자신의 활동이 속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타입의 분들도 있다. 특히 요즘은 개발 원조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인재가 늘어나고 있어 2년간의 협력 기간 동안 자신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늘었다.
5. 갑자기 전체 틀 속에 자신의 활동 내용을 넣게 되면 대원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흥미가 있고 없고 간에 대원 모두에게 큰 틀 속에서의 위상 정립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해당 직종에 혼자만 파견된 경우, 지방대원인 경우 등은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전체 사업 틀이 나중에는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6. 틀의 일부로 활동하게 될 대원들에게는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이를 언급해 파견 전에 본인에게 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 JOCV

1. 원래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은 JOCV의 요청 수요를 반영해 형성되었다.
2. 현장에서 정책 입안한 실증형 수요이므로 현장의 의향을 잘 소화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대를 총괄할 시니어가 있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3. JOCV와 의견 교환 및 넓은 의미에서의 연계를 실시 중

JOCV와 다른 협력 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안

1. 파견 전 훈련 실시 시에는 파견국의 교육사정 등 보다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2. 국내 훈련 기간을 줄이고, 현지 훈련 기간을 늘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어학이나 상대국 사정 교육.
3. JOCV 연수의 나이 제한에 제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가 35세의 연령 제한에 걸려 파견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JOCV의 코워커(카운터파트-Counter Part)를 따로 모아 그룹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빈곤층의 생계 향상 관련 프로그램 (1)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금)

☐ 세부내용

과제명	빈곤층의 생계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
프로그램명	생활 · 건강 개선 종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	사회 개발 종합 프로그램/개별 전문가 일반 대원/ 지역 개발 보급 대원 개발 복지 지원 사업/ 여성 생활 향상 지원 프로젝트
일시	2000년 11월 9일 (목) 10:00~11:30
방문지	JICA 사무소
면담자	오오노 개별 장기 전문가, 츠지모토 협력대 행정완조정원, 오가타 의료 행정원-조정원

□ 시찰/협의 내용

조사단이 협의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1. 다양한 JICA 협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과를 드높이는 JICA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따로 따로 점점이 추진되었던 협력사업을 선으로 이어 제한된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북부 3개 주를 활동 대상으로 하여, 현재 단기 전문가 1명이 농촌 개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계획과 농촌 개발 계획 단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2. 가나에서는 중기 5개년 계획 (2001~2005년)이 있지만,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앙관청이 아니라 District에서 수요를 받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풀뿌리 기초 지역사회의 개발 복지 지원 사업도 이미 연계를 이뤄가고 있다
4. 대원은 연계를 계획하면서도 대원이 아니면 안 되는 분야(보건 관계나 농촌 개발과 같은 생활 활동 관계 등)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직종이나 활동의 내용은 TOR을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의 여지를 폭넓게 열어놓을 것인가를 아직 검토하고 있다.
5. 현재 타마레에 지역개발 대원이 1명 있으므로 이 대원의 경험 (활동 내용, 파견 방법, 현장의 요청 등)을 재검토했다.

6. 이미 일반 단기로 프로그램 오피서 수요를 요청했다. 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대원을 받고 싶다는 의사는 있지만 프로그램 오피서를 먼저 파견해 수요 조사를 정리한 다음 연계 방안에 대해 고려할 생각이다.

7. 기존의 JICA 사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원과 KR2 같은 전별 자금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 사업처럼 잘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다.)

□ 특기 사항/ 총괄

대원과 연계할 경우 유의점 및 제안

1. 행정원-조정원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면 원활하게 업무가 진척될 수 있다. (대원 파견의 활동 목표 조율 조정, 사전 협의 및 건강 문제 조언)
2. JICA 틀에서의 연계라고 해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수요 발굴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대원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프로그램 오피서(Program Officer: 일반 단기 전문가 또는 시니어 대원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
4. 대원에게 사전에 자세히 연계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5. 같은 기관에 파견하지 말 것. 업무 내용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활동의 내용을 달리하는(활동 대상을 한 쪽은 광역 지자체인 '주(州)'로, 한 쪽은 기초 지자체인 마을로 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리 함)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그룹 파견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생겨 곤란해지기 쉽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²⁾.
8. 사회 개발 종합 프로그램의 경우, 필요한 업무를 모두 생각해서 그 중 대원이 할

2) JICA에는 팀제 파견 외에 그룹 파견-1개 기관에 같은 분야 대원을 여러 명 파견-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어 2005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동하기 적합한 부분에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과제

1. 빈곤에 정면으로 맞서자는 목표를 생각할 때 가나에서도 극빈 지역인 북부 3개 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말라리아가 극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대원 파견 지역은 의료 행정원조정원과 상담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2. 빈곤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빈곤 대책 접근을 JICA 사업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 암중모색 중이다.
3. 연계 문제에 있어 어디까지 명확하게 대원의 TOR을 규정할 것인가, 비교적 포괄적인 수요를 가지고 대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4. 원래 사무소, 사무국, 본부를 비롯한 관계자가 협력대를 다른 JICA 사업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별도로 취급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별 사업 실시 계획 수립 때부터 행정원-조정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여해 대원의 활동을 좀 더 국별 계획 하나하나에 맞춰 넣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개발 종합 프로그램은 협력대를 비롯한 각종 협력사업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다

(6) 소규모 관개농업 기술 개선 관련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6일 (월)

☐ 세부내용

과제명	소규모 관개 농업 기술 개선
프로그램명	관개 소규모 농업 진흥
프로그램 구성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관개 소규모 농업 진흥 계획
일시	2000년 11월 6일 (월) 14:00~18:30
방문지	가나 관개 개발 공사 아샤만 관개 사업지 (아샤만)
면담자	이토 장기 전문가(업무 행정원-조정원) 등 장기 전문가 5명, 단기전문가 1명 [츠지모토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조사단이 조사 내용 설명을 실시한 다음 협의를 계속함

이 프로젝트는 4명의 장기 전문가가 협력대 OB대원 출신으로, 협력대가 활동하고 있는 실시 기관(사업 실시 현장도 같음)에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을 시작했다. 경험에서 우러난 예측 속에 전문가(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 협력대원의 연계에 대한 유의 사항, 전문가와 협력대의 의의 비교 등에 대해 활발한 협의를 했다

☐ 특기사항/ 총괄

Volunteer와 전문가를 연계할 경우 일어나기 쉬운 문제점

1.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기자재 등의 투입량이 크다는 점과 전문가가 실시 기관의 방침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국의 실시기관 측에서는 대원에게는 충분한 협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예산 면에서나 코워카-카운터파트-설정 등)

2. (전문가 · 대원의 관계) 전문가가 상사이고, 협력대원이 아래에 있다는 식으로 되어버리기 쉽다.
3. 전문가 측에서는 대원이 프로젝트의 일부(예를 들어 팀의 일원)로 활동해 주길 바라지만, 이것은 협력대가 본래 갖고 있는 자주적인 활동과 거리가 생기기 쉽다
4. 대원 측에서 전문가와 비교해 대우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이나 기술 수준에서 대원이 오히려 전문가보다 나이가 많거나 기술이 높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가능)
5.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적인 상황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6. 두 사람 사이를 조정할 사무소가 어떻게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그 후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 대응 방법 및 유의점

1. 똑같은 기관 똑같은 현장에 두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시 기관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 기술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경우가 생기므로 그럴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대원 요청 전, 프로젝트 개시 전에 대원과 전문가의 연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전문가와 대원의 T/R 경계 설정과 위상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인식을 모든 관계자(사무소, 해당 사업부서, 사무국, 전문가, 협력대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협력대를 프로젝트 일부로 볼 것인가, 별개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위 내용의 전제 조건으로 관계자와 연락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 협력 사업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5. 연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대우 문제 입장 정립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대원에게는 설명하여야 하며, 되도록 전문가에게도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대원의 경우 모집안내서에 기재해야 하며 전문가도 모집 선발 단계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파견 초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전문가와 대원 모두가 각자의 성격이나 기술 수준을 파견 전에 잘 파악하여 조합을 이루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원은 특히 개인 지향적인가(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인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고 배우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가(다른 분들에게서 배우고 싶다. 개발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등)하는 점에 대해.

7. 완충제 역할을 겸해서 시니어 대원을 파견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행정원-조정원이나 직원이 직접 완충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시니어 대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

8. 대원은 발전을 하고 있는 인재로서 전문가에게 배운다는 쪽으로 입장을 확실히 설정한 인재를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9. 국내에서도 인재 수급이 원활한 분야(의료 등)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별한다면 연계가 원활하게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10. 보급이나 지방 중심의 분야는 비교적 연계하기 쉽다.

11. 전문가, 대원의 연계 조합 방법은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 협력대 사업의 특성(전문가와의 차이점 포함),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언

1. 협력대는 전문가처럼 성과중심(결과중시형)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을 필요는 없다.

2. 협력대는 시험을 치러야 하겠지만 전문가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3. 전문가와 대원은 국제협력의 근본 의식은 같다

4. 근본은 같아도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래저래 얹매이는 것들이 많다.
5. 한편 협력대는 '협력대'적인 이상 추구가 가능. 협력대 정신에 입각한 부분이 크다.
6. 전문가: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협력대 대원: 발전을 하고 있는 사람(발전도상형)
7. 업무 압박의 질이 다르다.
8. 협력대는 본인 주도로 활동에 즉시 임하는 성격이나 유연성 등이 크다
9. 협력대는 현장(농민 등)에 가깝다. 풀뿌리 민간 협력. 주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간다.
10. 협력대도 전문가도 의식하기 나름이며 결국 자발성을 띤 Volunteer이니 국제협력의 원점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예: 대학 교수나 의사 출신의 전문가를 장기 파견하는 것은 Volunteer의 의미가 크다)
11. 협력대는 청년 육성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이고 시니어 해외 Volunteer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야 할 것이다
12. 특히 협력대로 임기 만료 귀국한 학생을 보면 협력대가 인재 육성 수단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JOCV 사업의 일부(절반 정도)를 NGO나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소규모 NGO에게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JICA가 담당하는 대담한 개혁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14. Volunteer 등 모든 것을 '정부(관·官)'이 주도해서 실시하는 시대가 아니니 민간의 활동을 좀 더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쓰레기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7일 (화)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 대원/야채 개별 단기 전문가/쓰레기 재활용 퇴비
일시	2000년 11월 7일 (화) 15:00~16:30
방문지	가나 대학 카테 농업시험장
면담자	사이토 대원(10/3), 타나카 개별 단기 전문가 [동행자:츠지모토 행정원-조정원]

□ 시찰/ 협의 내용

실험실 및 시험 농장의 시찰을 실시한다음 조사단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관에는 예전에 장기 및 단기 전문가 파견이 있다 (농업공업대학과 가나대학교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 전문가 파견 당시 단독으로 기자재를 공여한 실적이 있다. 농업 시험소 공유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교수 1명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은 의문스러운 일인데, 교수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자재 관리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것은 대원에게는 좋은 자극이 된다. 단기 전문가 (2주 정도 활동 기간을 예정에게도 생활면, 활동면에서 대원이 있다는 것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3. 대원의 코워커(카운터파트)라고 해도, 이 코워커가 선생님이므로 대원은 그 아래에서 일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 또 항상 옆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원의 위상이 문제

시 된다.

4. 대원은 임지 변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 활동의 장이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 특기 사항/ 총괄

1. 다음 관점에서 서로 전혀 경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 ① 한 쪽이 단기 전문가(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 ②전문분야가 다르다(연구나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배운다 ③연령과 기술 등에 큰 차이가 있다(현직에 있는 대학 조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처럼) ④ 단기 전문가 측에서도 대원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 실험 종류를 조정한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2. 대원에게도 (일본에서 현지로) Supervise 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경우에는 농공대학교)이 있다면 든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원-조정원도 기술적인 점은 조언하기가 곤란하다. 기술고문 제도가 있지만 현지 상황이나 특화된 기술에 반드시 정통한 것은 아니어서 유사시에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또 많은 기자재를 대원이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기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

(8) 직업훈련소 신축 관련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금)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실시 계획에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 대원/청소년 활동 풀뿌리 민간협력 무상 자금/ 직업훈련소 신축 교사 건설
일시	2000년 11월 9일 (목) 14:00~16:00
방문지	아고메다
면담자	시부야 대원 (10/3) [동행자: 츠지모토 행정원-조정 원]

□ 시찰/협의 내용

1. 직업 훈련학교의 현재 교실 및 풀뿌리 민간협력 무상자금협력을 통해 건설 중인 신축교사를 시찰한 다음 대원의 자택에서 조사단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원은 아고메다 ICCES 직업훈련학교를 재건축하고 이 학교에서 타이핑 수업 실시, 청소년 클럽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가나 측에서 대원이 파견되면 자금도 따라 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지만, 이 경우에는 풀뿌리 무상자금협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했다 현재 대원도 필요하다면 지원경비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신축 교사 건설은 직업훈련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손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의 NGO인 SYTU(Student Youth Travel Organization)의 Volunteer가 엔지니어로 참여하고 있어 크게 지체되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교사 건설

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욕도 높아지고 있다.

5. 영국계 Volunteer와의 교류도 있다. 또 이웃 마을의 미국 Peace Corps단원(물리 및 과학과 수학 교육)과의 교류, 청소년 모임에서 AIDS/STD의 주말 강습 모임을 2회 실시. 현지 NGO와 강습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또 야구 분야 대원에게 야구 지도를 부탁한 후 청소년 클럽 참가자도 늘어났다.

6. 대원이 국가 개발 계획 등 커다란 프레임워크에서 자신의 위상을 알고 있을 경우 갖게 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해매게 될 경우에 커다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방향성이 있다면 자신처럼 처음 3개월을 고민하면서 지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 한편 계획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갭 때문에 고민하는 대원도 있을 수 있다.

□ 특기 사항/ 총괄

1. 풀뿌리 무상협력과 대원의 연계는 좋은 예다

2. 다른 나라나 현지의 NGO, 다른 대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Peace Corps와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연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연계를 대원과 다른 NGO, 다른 Volunteer 기관의 Volunteer, 대원 사이에도 자주 살펴볼 수 있다.

(9) 야구 관련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00년 11월 10일 (금)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실시 계획에 설정되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 단기 대원/야구 일반 대원/야구
일시	2000년 11월 9일 (목) 9:00~10:00
방문지	운동장 (아크라 시내)
면담자	마츠모토 단기 대원, 아나구라 일반 대원 (12/1) [츠지모토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1. 야구 수업 광경(이웃 학교의 여학생들을 지도)을 참관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2. 지금은 단기 단원이 중심이 되어 야구 소프트볼 협회 운영, 야구 보급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단원이 코치로 일하고 단기 단원이 운영 및 보급에 대한 인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처음 이 지역에서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주도해서 야구를 시작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60개교에서 야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곧 JOCV 파견이 야구 인구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JOCV 야구 분야 단원은 현재 활동 중인 단원을 포함해 단원 2명, 일반 단기 단원 2명이 있다. 청소년 활동 분야 단원이 파견되어 있는 마을에 야구 출장 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출장 지도로 청년 클럽에 마을 청년들이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스포츠의 부차적인 장점을 충분히 살린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공작 기계, 육상, 과학 및 수학 교육 단원도 여가 시간에 이웃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등 단원들 사이에도 야구 보급과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 단원의 특성은 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과 단원 활동이 다른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게 된다는 인

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 특기 사항/ 총괄

1. 스포츠는 풀뿌리 기초 교류 고유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개발이라는 큰 틀이 특별히 필요하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코치 기법이나 협회 운영, 스포츠 보급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위들과 같다. 특히 상대국의 우선 순위가 낮고 스포츠 분야에까지 자금이 돌아오지 않으며,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수요가 잘 정리되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2. 국별 실시 계획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협력형 단위 파견과는 달리 스포츠 진흥 청소년 육성 면에서 기여하게 된다. 다른 단위 활동과 연계 가능성도 높다.

제 3절 잠 비 아 방문

1. 잠비아 현지 조사기록 (사무소 등)

(1) JICA 잠비아 사무소 방문 (1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2000년 11월 13일 (월)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명	JICA 잠비아 사무소 (1)
일시	2000년 11월 13일 9월) 15:00~18:00

면담자	이시카와 소장, 오오타 차장, 코도 협력대 행정원-조정원, 스에오카 협력대 행정원-조정원, 하마다 전문가(기술협력개발계획), 후타기 전문가 (농업 개발계획), 후지사와 전문가 (직업 훈련 개발 계획), 나카무라 전문가 (교육 협력 계획), 이와다 광역기획조사원, 토요요시 기획 행정원-조정원, 코우라 직원 (JICA 아프리카 · 중근동 · 유럽부 아프리카과)
-----	--

□ 시찰/ 협의 내용

1. 먼저 조사단이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2. 오오타 차장이 잠비아의 JICA 협력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 (JICA의 잠비아 협력 5대 중점 과제, 개발 과제 매트릭스)
3. 전문가 측이 이번 조사 내용 및 협력대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전문가는 계약, 보수 지급 관계이므로 활동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점 등)이 있었다.
4. 각 섹터별로 JICA Volunteer 사업 및 다른 협력 사업의 연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협력대 사업을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설정할 경우에 대한 전문가 측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실행 운영 계획 (rolling plan)에는 이미 대원 활동이 설정되어 있다.
- 초중학교에 JOCV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히로시마 대학과의 연계도 검토 중) 영국의 협력에 따라 resource center (지방 진출 위함)에서의 교사 교육 (프로젝트 방식 기술 협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험 지구(pilot 지구)를 설정해 그 곳에 JOCV를 파견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룹 파견¹⁾을 해서 현장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협력대 사업의 이점을 잘 살린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교육부에 시니어 해외 대원을 파견하는 것도 한 번

1) 그룹 파견 제도는 2005년 현재 없어졌으며, 팀제 파견으로 대체됨

생각해 볼 만 하다.

- 단, 교육부의 생각에 제약 (ESSIP와 연계)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기대대로 진척 될 상황은 아니다.

② 농촌 개발 분야

- 대원의 생각도 다양(단순히 해외에 나가고 싶다. Volunteer로 일하고 싶다. 국제 협력 경험을 쌓는 첫 걸음으로 삼고 싶다 등)하다. 그렇지만 어떤 대원이라고 해도 전문가와 활동을 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농업 관계 대원은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별 계획에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활동의 내용 자체가 충분히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합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원의 이점은 각자의 적성을 살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너무 자세히 TOR을 규정해버리면 융통할 수 있는 여지(flexibility)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단 벼 재배 분야로 파견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는 유통이라든가 도로 건설인 경우와 같이 크게 파견 분야 배치 오류가 생기는 것은 대원에게 불행이다. 또 좀 더 산출물(output)을 내어야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연계는 기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생길 법한 문제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전문가와 대원의 입장 정리(지휘 명령 체계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전문가가 대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해도 단원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점 등)를 충분히 이해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파견되는 대원의 기술과 능력의 어느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Needs에 맞춰 대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필요하다)

③ 빈곤 대책 분야

- 빈곤에 대처하는 틀을 살펴보자면, 대원의 파견 요청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보수가 서로 다른 Volunteer 사업과 전문가 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결과를 중시하는 전문가와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 다른 공여국은 Volunteer 사업과 ODA 사업을 조합하는 연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를 들어 VSO 가나 사무소의 경우에는 VSO 본부에서 DfID와 협조를 원하는 지시가 있으며 또 USAID 동경 사무소도 Peace Corps와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수요가 많다고 코멘트한 적이 있다는 점을 조사단 측이 설명했다.) ‘얼굴이 보이는 원조’와 성과 주의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JICA Volunteer 사업은 상대국 정부로부터 굳이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식은 받고 있다. 일본층의 특수법인 정리법과 ODA 예산 삭감과 같은 흐름, 또 원조 대상국의 공여국 협조 흐름 등을 봐도 (다른 협력사업이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Volunteer 사업은 그러한 삭감이나 철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Volunteer 사업은 국내에서의 효과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조 전략의 틀에 넣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계하는 경우에는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 연계가 되는 것이 좋다.

- JICA 각 협력 사업을 조합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보급을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대원을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식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현지 NGO를 활용하는 쪽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더 낫다는 견해 다수.

④ 기술 협력 개발 분야

- 대원의 기술 수준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대원에게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가 나오면 이 성과를 중심으로 연계나 보다 진일보된 지원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좋은 제언이나 아이디어를 넣어서 리포트를 작성한 대원도 많으므로 이러한 리포트 내용을 어떻게 소화해 대원을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협력대원은 점점이 나뉜 점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어서 면의 활동

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structure)가 필요하다.

- 전문가에게서 조언을 받는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전문가와 대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여야 할 것이다.

⑤ 직업 훈련 분야

- 협력대 사업은 청소년육성이라는 의의가 가장 크므로 상대국 측이 갖게 되는 효과보다 대원 본인이 얻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 대원은 상대측 교사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전문가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등 일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 서로 얻는 게 많은 연계를 할 수 있다. 또 직업 훈련 학교에서는 기술 뿐만 아니라 교수법 노하우, 실습만이 아니라 강의의 지식, 조직을 운영하는 시각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지원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대원이 자신의 활동 기준, 위상, 목표를 알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도움이 된다.

- 특히 잠비아에서는 운영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금이 부족해서 수업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대원 한 명이 들어가서 활동하고자 해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자재나 교재 등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⑥ 의료 분야

- 정책 통솔은 전문가나 시니어 해외 Volunteer(예를 들어 말라리아 대책 등)가 담당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보급하는 것은 JOCV(경우에 따라서는 팀제 파견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음)가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 중.

⑦ 행정원

- 행정원은 (측면 지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대원들과 자주 대면하며 지원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요즘 대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모집 선발의 문제일까)
- 협력대의 전문가를 비롯한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 Involvement 그 자체는 좋지만, 지나친 기대나 과욕을 갖지 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수요는 꼼꼼하게 조사한다고 해도 대원 파견 시점에서 적잖이 변경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착실히 정보를 모아서 공부한 다음 파견에 임하는 대원일수록 변경 내용 등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몽그의 대원 (그룹 파견)은 연계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오히려 더욱 효과적이고 틀에 박히지 않은 유연한 연계 활동을 보이고 있다.
-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전문가와 일하는 분야가 달라 대원의 TOR에 있는 활동을 펼치기 쉽다는 정도의 환경만 조성되어 있다면 단원과 전문가의 연계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 먼저 전문가는 지방에 출장을 갈 경우 되도록 사전에 해당 지역의 단원이 쓴 보고서를 읽어보고 가서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조망을 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공식적인 공부 모임 등도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5. Volunteer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했다.

① Volunteer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고찰할 때 협력대 사업을 예로 들자면 ‘청년’이라는 개념을 갖기 쉬우므로 연령이나 기술력 면에서 가까운 편인 시니어 해외 Volunteer와 전문가를 비교하는 것이 논의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② 예를 들면 전문가 (특히 개별 전문가)는 앞으로 정책 자문관(Adviser)형 전문가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는 담당분야를 폭넓게 관찰해 JICA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과 조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JICA oriented (JICA 주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시니어 해외 Volunteer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이나 현장에서의 편의

에 초점을 둔 "Recipient Country Oriented (상대국 위주)"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③ 커리어 형성형 (ODA의 부분. 주니어 전문가 같은 위치로 전문가의 지휘 명령 체계에 들어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과 자발적 전개형 (자주 활동) 등의 구분 방법도 있다.

④ Volunteer는 NGO나 국제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파견과 다르다.

⑤ Volunteer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적용하자는 논의를 하더라도 일을 진척시키는 데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다.

⑥ Volunteer사업에 대해 청년 육성의 관점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대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을 육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방법에 따라서는 Volunteer 사업은 ODA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JICA의 소관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청년 육성을 위한 Volunteer를 받게 되는 상대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국의 부담 없이 일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파견하게 된다는 식이 되어 아주 커다란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⑦ 한편, Volunteer 사업에서도 Volunteer의 프로를 파견하자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Volunteer라고 해서 TOR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 특기 사항/총괄

1. 잠비아의 전문가 중에는 협력대 귀국단원(OB)가 여러 명 있는데 (가나와 마찬가지로) 협력대와 다른 협력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나 조사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연계'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경계심이나 저항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 연계에서 딱 정해진 수요까지 넓은 의미의 연계 개념으로 조사에 임했다. 연계의 개념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개념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2. 전문가와 시니어 해외 Volunteer를 비교하여 Volunteer 사업의 특성을 추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 Volunteer 사업이란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설정되었는지의 유무, 본인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상대국의 개발 계획이나 일본의 원조 계획에 합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생각된다.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프로그램 일부만을 설정해 둘 것인가, 아니면 협력대 단독으로도 설정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 (단, 이러한 검토는 먼저 지역부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금까지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 협력에서 나온 레벨이나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는 (폴뿌리 차원의 문제에서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종료 후의 2단계 등의 명칭을) '시니어 해외+협력대'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JICA 잠비아 사무소 방문 (2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1월 21일 (화)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 명	JICA 잠비아 사무소 (2)
일시	2000년 11월 21일 (화) 15:00~16:00
면담자	오오타 차장, 쿠도오, 우치다, 스에오카 협력대 행정원-조정원

□ 시찰/협의 내용

현지 조사 보고

1. 파견국에 대한 일본의 원조 전략 등에 대해 파견 전 훈련에서도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또 그 내용 중 대원을 요청한 각 수요가 갖는 위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대원과 전문가, 또는 대원끼리의 자발적이고 유연한 연계에 대해 사무소가 그 내용을 파악해, 지원과 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사무소 기획에 따른 농촌 개발 분과 모임에서 전문가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사례도 있음)
3. 풀뿌리 차원의 활동 전개를 하는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의 연계는 서로에게 유익하다.
4.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강제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원도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

이 시의 적절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과학 및 수학 교육 분야는 단지 잠비아인 교사 부족(더욱이 인재 부족이 아니라 인재 유출이 주된 이유인 상황 속에서)을 채우는 대체 요원으로 과거 20년간 120명 이상의 대원을 파견해 왔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의문을 품는 대원도 있다. 이런 배경 아래 BESSIP의 움직임이나 Zonal Resource Center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대원 쪽에서 그와 같은 센터에 시니어 대원이나 시니어 해외 Volunteer를 배치하고 주변 학교에 대원을 파견한다면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6. 초등학교에 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초등 교육에 외국인 Volunteer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점에서 특수 케이스라 하겠다. 과학 및 수학 교육 교사는 기초 학력의 저하(주로 형상이나 공간 파악 능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초등학교에 파견하는 대원들의 지도 교과 (체육, 음악) 등은 효과적이다. 박물관 분야 대원과 연계해 정보조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되도록이면 후임도 계속 파견하여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면 협력의 효과(impact)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사무소에 보고하여 사무소 차장, 행정원-조정원과 협의를 실시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력대도 JICA사업의 일환 또는 다른 공여국의 Sector wide approach가 펼쳐나가고 있으나 일본의 원조 resource의 유기적인 통합과 협력은 추진해야만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견해가 없다.

2. 조사에 동행했던 행정원-조정원이 처음에는 이번 조사의 취지라 할 수 있는 '대원을 국별 사업 계획 중에 설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조사에 동행하며 함께 하는 동안 너무 짝 죄어진 각종 협력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거부감이 있지만, 같은 분야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교환 등에 유연한 연계를 해 가야 할 것이라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3. 수요 요청 배경 조사를 좀더 정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과거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으나, Volunteer 사업이어서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별 사업 실시 계획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대원에 대해서는 그 섹터별 파견 전략을 명확히 한 다음 각 대원의 파견 이유를 확실히 정하여 파견 전 또는 파견 후에 사무국이나 사무소가 대원에게 잘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4. 대원은 원조 resource로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다 (1999년도 아프리카 지역별 회의). 한편, 오늘날 빈곤삭감이 바람직한 개발 협력으로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이 분야에는 대원의 존재가 크게 유용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의 전문가나 NGO가 수립 도는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대원이 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연계 방안이 나오고 있다.

5. 협력대의 국별 파견 계획 작성에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숫자 맞추기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 사용법도 애매하다. 국별 파견 계획의 큰 틀(프레임 워크 framework)의 정리, 왜 대원이 파견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조사단의 성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겠다.

- 수요 요청 배경 조사는 프로젝트 형성 조사라는 인식 아래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직종 및 분야 중시 시점과는 다른 수요 접수 가이드라인 작성.

-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등과 면담을 하면서 연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유의점, 과거의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작성.

- 모집안내서에 청년 해외 협력대 사업 단독의 파견 전략을 게재한다. 지금은 직종 및 분야 위주이고, 파견국가가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구성이지만 이와 반대로 먼저 국가별 전략을 문장으로 만들어 기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자세한 내용

을 기재하는 방법을 취한다. 직종이나 분야는 그 다음에 하나의 index로서 기재한다.

7. 기타 근원적인 질문이었지만 Volunteer의 정의를 확실히 내린 다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었다.

8. 잘 짜여진 파견전략 수립 위에 파견을 실시한다고 하면 후보 단원의 선발 기준을 준수해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양보다 질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의견 일치를 봤다.

9. 대원 평가와도 관련된 이야기이었으나 대원 보고서의 협력대 사업 및 JICA 사업에 유효한 환류(Feed back)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일본 NGO 방문 (1차)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5일 (수)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일본 NGO
방문지 명	AMDA (Association of Medical Doctors in Asia) Zambia Office
일시	2000년 11월 14일 (화) 16:00~17:30
면담자	Dr. Mambo, Director (UNV 자격으로 파견) [쿠도오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AMDA Zambia의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

1. AMDA Zambia의 설립은 1997년, 운영 자금을 일본 AMDA HDQ에서 받고, 활동 자금은 JICA 관련 (PHC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및 루사카시 미계획 주거지구 주거환경 개선 계획 개발 조사) 사업에서 조달.
2. PHC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관련 프로젝트로 ① 성인 문맹자 교육 ② 봉제 ③ Community farming을 실시 중이다. PHC는 직접적인 보건 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생활 개선을 위한 Community dev. Activities가 필수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활성화 및 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3. 그 중 ③ Community farming에 따른 수확물은 지역주민의 음식 재료로 실제 쓰이게 되므로 급료 대신에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참가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기도 한다. 또 Income generation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재 파견 예정중인 ③과 관련 활동을 하게 될 JOCV에게는

Agro-farming 및 community mobilization의 업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4. 이외에도 현재 실시 중인 프로젝트 중 Micro Credit이 있다. George Compound에서 실시하는 소액금융(Micro credit)은 관계자가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해 와 중단되었으며 현재 제공되었던 자금의 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Bauleni Compound에서 작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 중인 안건 (개발 조사에 따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2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훈련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1단계에 18만 콰차, 2단계에 15만 콰차 예정). 또 이러한 Micro Credit 수요의 성사 여부 상황에 따라 UNDP의 자금 공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5. 현재 PHC에 직접 관계된 부분을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이, 주민 활동이나 기타 부분 적인 내용을 AMDA Zambia가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 JICA의 프로젝트 방식이 종료되어도 AMDA Zambia는 PHC 프로젝트를 계속해가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이 경우에는 보건 의료 분야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서 JOCV 파견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 특기사항/ 총괄

방문 전에는 실시 중인 AMDA Zambia의 독자 프로젝트 및 JICA 관련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 앞으로의 전망을 듣고자 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AMDA Zambia가 기본적으로 PHC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며, 또 실질적으로 JICA의 부차적인 업무는 대부분 AMDA Zambia 독자적인 의사 진행 속에 프로젝트를 발굴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그 후 인터뷰 내용은 JICA 관련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설명을 듣는 것에 그쳤다.

(4) 일본 NGO 방문 (2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2000년 11월 15일 (수)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일본 NGO
방문지명	SCDP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NGO 사무소 방문 및 소장 인터뷰
일시	2000년 11월 15일 (수) 14:00~15:00
면담자	하야사카 소장, (야스이 직원, 나가다 연수생) [쿠도오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SCDP 활동 내용 설명

1. '토쿠시마의 국제협력을 생각하는 모임'과 자매 결연을 맺은 단체로, 자금 원조 있음.
2. 활동 중에는 집을 짓는(창시자는 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이 있으며, 이 집의 임대료 수입(보건부에서 10년간 토지 무상 제공. 이후 집 하나씩 반환 계획)도 얻고 있지만 1995년 이후에는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활동 자체는 일본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3. NGO로서 1996년 발족, 1997년 조사, 1998년부터 사업 시작. SCDP의 목적은 빈곤 지구에서 생활환경을 개선 (특히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함)
4. 현재 루사카의 음고베 지구 (인구 약 4만명: 1998년부터 불법 점거지구에 겨우 병원과 학교가 생겨난 곳으로 인프라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주로

영양 개선 교실 (영양 조리 지도 및 영유아 검진)을 실시. 지금까지 10개 그룹, 120명의 졸업생이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인원이 늘이기보다 졸업생 후속 지원 (Follow)을 중점적으로 실시.

5.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강사는 급여도 제공한다. 일본인은 현재 4명 체제. (난민을 돕는 모임 직원 출신이 많다)

JICA와의 연계

1. '토쿠시마(일본의 지역 이름)의 국제협력을 생각하는 모임'이 일본 우정성(한국 정보통신부-예전의 체신부-에 해당)의 Volunteer 저금 지원을 받아 잠비아에서 콜레라 대책 프로젝트 (의료 키트의 배포와 기술 지도)를 PHC 프로젝트로부터 조언을 받아 실시.

2. 잠비아 주재 일본인 여성을 통해 SCDP 활동을 시찰했으며, 프로젝트로 건설된 집에 JICA 전문가가 살고 있는 정도의 왕래는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중의 연계나 협력관계는 거의 없다. 또 대원을 통해 대사관의 Japan Day에 초청을 받아, SCDP의 소개를 실시하는 정도.

3. 풀뿌리 무상협력 사업으로 구급차의 사령 센터 (무선 등)에 협력한 실적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SCDP에게는 벅찬 감이 있다.

4. 자금 쪽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SCDP의 활동에는 만족하고 있으며, 외부의 조력, 간섭은 필요 없어 보인다. ODA와는 근본 방침이 다르므로 연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 특기 사항/ 총괄

1. 이 NGO는 자금 제약이 있고 활동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스스로의 사업 폭을 결정해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는 협력대 대원과 유사한 면이 있다.

2. ODA는 자금 면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쉽게 드러난다는 점이 부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혀 연계 등의 의사가 없는 모양. 대원 파견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나 정보 교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원이 견문을 넓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잠비아 교육부 방문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21일 (화)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교육부
방문지명	잠비아 교육부
일시	2000년 11월 20일(월) 14:00~15:00
방문지	교육부
면담자	교육부 Assistant Director Mr. Patson Simwawa 나카무라 전문가 [쿠도오 행정원-조정원, 필리 재외전문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1. 먼저 교육부 측에서 과학 및 수학교육 대원 파견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잠비아인 교사가 부족했는데 대원을 파견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교재 작성,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잠비아인 교사가 부임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JICA 대원들이 활동해 주고 있어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사의 뜻과 중요성은 교육부와 과학 및 수학교육 대원과의 간담회에 장관이 개회 시작부터 폐회 때까지 줄곧 참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2. 수요조사에는 단원 파견의 시기, 파견기간의 연장, 담당할 학년에 대해 나와 있다. 파견 시기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1월부터가 되길 희망한다. 파견기간은 3년간 파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3년 파견을 희망했다. 또 10~12학년의 3년간을 대원이 맡는 담당학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JICA측에서는 파견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모집 때 12월 부임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제

시할 수는 있으나, 합격자에게 12월 부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3. 보츠와나를 비롯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잠비아의 교사부족 해결을 위해 BESSIP에게 의뢰, 교사의 질 향상 및 교사 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계은행, IMF의 권유로 교사의 급여를 올리는 것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나카무라 전문가가 BESSIP의 교사 수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잠비아 대학의 협조를 얻어 2년간 Intensive Course를 개설했다. 첫 해에는 실습, 두 번째 해에는 교육 실습을 실시,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사자격증 취득 후에는 지방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에 대해 JICA에서는 파견기간에 대한 요청사항은 이미 받았으나, 어느 지역에 교사를 먼저 배치하고 싶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PSMD라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특기 사항/총괄

1. 잠비아 측은 건잡을 수 없는 교사 부족 현상 속에서 수행 능력이 뛰어난 협력대원 파견이 계속되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JICA측과 대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20년간 120 이상의 과학 및 수학교사를 파견해왔으나 단순히 후임 단원 파견을 통한 단원 교체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파견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비아 측에서는 교사의 배치 계획이 있다면, 시니어 대원, 시니어 해외 Volunteer 또는 현재 잠비아 사무소에서 검토 중인 히로시마 대학과의 산학협력 대원을 어느 지역의 Zonal Resource Center에 파견하고, 그 주변에 협력대원을 파견하는 방법도 프로그램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 잠비아 현지 조사 기록 (프로그램명)

(1) 소농 지원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모리와라 확인: 오부치
- 일시 : 2000년 11월 10일 (금)

□ 세부내용

과제명	농촌 중심의 빈곤 대책 지원
프로그램명	소농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고립 지역의 참가형 농촌 개발 전문가 (제3국)/ 참가형 농촌 개발 지원 (3개월) 전문가/ 지역개발계획 전문가/ 농업 정보 보급 (3개월) 전문가/ 중업 정보 보급 (00~01) 국별 특설/ 농협 진흥 계획 JOCV 그룹 파견/ 몽그 지역 농촌 개발 계획
일시	2000년 11월 10일 (금) 9:0~17:00
방문지	JOCV 그룹 파견/ 몽그 지역 농촌 개발 계획
면담자	카나자와 시니어 대원 (벼 재배), 오오이즈미 대원 (9/2 벼 재배), 카타오카 대원 (10/2 지역개발 보급원), 스지다 대원 (11/3 농업토목), 사사키 대원 (12/1 야채)

□ 시찰/협의 내용

1. 수요 요청 배경, 수요 개요 본 안건은 1988년 2월부터 1992년 2월 농업 실증 조사, 1994년 2월부터 1995년 8월 개발 조사, 1996년 5월부터 1998년 4월의 무상 자금 협력과 같은 3단계의 협력에 따라 관개 시설이 건설되어 세프라 지구를 포함한 몽그 지역에 4가지 분야 대원 요청이 있었다. 현재 시니어 대원 (벼 재배, 그룹 리더)의 지휘 아래, 세프라 지구에서 활동 대상을 고르고 있으며, 협력 사

업으로 건설된 관개 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시니어 대원을 뺀 4명은 국별 사업 실시 계획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활동 내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원의 요청 그 자체는 개발 조사, 무상과 같은 것들을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사무국에서는 반드시 이 관개시설에 대해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보다 넓은 지역을 활동 대상으로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현지의 사무국에서는 이 관개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위상 정립과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처에 고심했다.

(2) 현재는 시니어 대원의 지휘 아래 PDM(별지 참조)을 작성해 활동 대상을 이 관개 시설의 이용률 향상으로 좁히고 있으나 이전과 비교해 활동 목적이 명확하고 협력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3) 활동의 방향성이 정해져서 특별히 웅색하고 불편한 것을 느낀 적은 없다.

3. 다른 기술 협력 사업과의 연계

(1) 개발 조사, 무상협력사업과의 연계 이 그룹은 이 안건의 개발 조사, 무상협력, JOCV와의 교류 등에 연계의 단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 더 이른 단계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활동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다고 한다.

(2) 전문가와의 연계에 대해 이 JOCV 그룹은 농업 식품 수산부 (MAFF) 본부에 파견되어있는 전문가(농업개발계획)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연계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커다란 프레임워크 (SRDP 등)의 존재를 전달하고 JOCV의 활동 방향성을 지

원.

② JOCV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JOCV의 기술적 질문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③ 또 JOCV 측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받을 경우에는 동시에 스스로도 실현 노력을 펼친다. (관계자와 협의에 들어간다든지, 전문가의 기자재 공여비와 같은 금전면에서 지원 등).

4. 여러 분야를 조합한 그룹 파견의 유효성에 대해 JOCV 측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기술 지도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에서 농촌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및 대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목표 달성을 향한 효율적인 협력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파견보다도 협력효과는 높다고 사료된다.

(2) 단 당초 그룹 파견의 의도는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활동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고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프레임워크 속에 위상을 설정하는 것을 더 명확히 했으면 한다.

(3) 또 그룹 활동의 방향성이 변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소에서 그룹에 대한 기대가 팀 파견과 거의 변함없는 위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그룹 파견에 그룹 리더가 파견되고 있으며, 현재 활동에 대해서도 타겟이 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그룹 파견보다도 팀 파견에 가까운 양상), 팀 파견처럼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쪽 사이의 구별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

□ 특기 사항/총괄

1. JOCV에 파견국별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데 대해 대원 자신이 커다란 틀(프레

임워크 framework) 속에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활동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또 '성과'를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 따라서 관련 수요에 따라 파견국별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요에 대해 본부 사무국의 파견 방침(무상협력사업과의 연계 의도 없음)과 현지 사무소의 파견 방침 (무상협력과의 연계 의도 있음) 사이에 괴리가 있어, 파견된 대원 측에서 혼란이 생기므로 수요 요청 단계에서 JOCV 대원의 위상을 설정하는데 본부 측과 현지 사무소 측의 의도를 충분히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 이 JOCV 그룹 자신이 작성하는 PDM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년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또 5년째에는 국별 접근 방식의 시점에서 협력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룹 파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다른 기술 협력 사업과의 연계

(1) 개발 조사, 무상 개발 조사/ 무상협력사업에서 JOCV 대원 파견으로 이행하는 경우, JOCV의 TOR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획 단계에서 단지 JOCV 파견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JOCV의 특정 능력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한정적)인 목표와 활동을 설정해야만 한다. (무상협력사업 수요 목표 산하에 작은 협력대의 범주를 설정하는 이미지)

(2) 전문가의 이번 수요는 JOCV와 전문가 사이에 좋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연계 포인트가 교훈으로 제시되었다.

- ① 커다란 원조의 틀(프레임워크)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JOCV의 활동 방향 설정을 지원.
- ② JOCV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JOCV가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시의 적절한 조언을 제공한다.
- ③ JOCV 측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언 및 협력을 실시한다.

3. 이번 수요에서 그룹 파견의 유효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룹 파견의 위상 및 파견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파견된 JOCV 대원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번 수요에서 보듯이 대원 개개인의 코워커(카운터파트끼리)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 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소속기관에 영향력도 끼치게 되고, 나아가 그룹 전체의 협력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시니어 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니어 대원 파견 후에 그룹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여 그룹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시니어 대원 파견은 효과적일 것이다. 단, 시니어 대원에게도 본부 사무국 측과 현지 사무소 측이 바라는 의도가 서로 다르기 일쑤이므로 시니어 대원 파견의 위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본부와 현지 사무소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2)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관련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15일 (수)

□ 세부내용

과제명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명	PHC의 충실도와 효과적인 reference system 정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기초 보건 간호(primary health care)
일시	아프리카 지역 특별 연수/ 의료 기자재 감리 및 보수 (기초) (AMDA, Care International 등과 연계)
방문지	현지 시찰 및 전문가 인터뷰
면담자	조지 콤파운드 헬스 센터 관계자 (잠비아 측) 마츠오 리더, 사사키 행정원-조정원, 세노오 전문가 (보건교육), 히로다 전문가 (공중위생), 오우라 직원 (JICA 아프리카 · 중근동 · 유럽부 아프리카과) [츠치모토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먼저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한 다음, 프로젝트 사무소에 이동해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1. 조지 콤파운드 (프로젝트의 실험 지구: 루사카 지구 중 특히 빈곤층이 많은 지역으로 무상협력사업에 따른 급수 시설 공여 실적이 있다. 또 개발 복지 사업 실시중)에 있는 시설이나 프로젝트 활동 시찰. 현지의 쓰레기 수집이나 화장실 설치(12존), 헬스 센터, 공중 화장실 등을 견학.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시 초기에는 프로젝트 활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졌으나 장기 전문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꼭 원활하게 진척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장기 전문가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의 순회지도 조사 실시 이후에 프로젝트 협력을 크게 다음 3가지 영역으로 집중시켜 활동하고 있다.

- (1) 실험 지구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PHC 추진 (주민의 보건 수준 향상을 주민 참가형으로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실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헬스 센터 기능의 향상과 referral 체제 확립
- (3) 학교 보건 모델 구축

이어서 NGO, 협력대와의 연계에 고나한 프로젝트 측의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

1. 현재 AMDA는 JICA에서 2가지 종류의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 PHC프로젝트의 사회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JICA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연계 강화비 (JICA 본부 예산 → AMDA 본부)로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프로젝트 의약품 Reforging 조사, 커뮤니티 농장 사업을 실시. 또 올해 PHC 현지 업무비로 문맹 퇴치 교육을 실시.
2. ‘연계’라고 하는 말이 R/D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공식’, ‘비공식’이라는 관점에 정리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전문가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에서 AMDA와 JICA의 관계가 ‘공식’적인 의미의 연계인지 의문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 프로젝트 내에 인식이 반드시 완전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인다).
3. 정보교환 수준을 포함한 협력 강화의 의미는 NGO 또는 공여국, 대원과의 교류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활발해질수록 좋겠다. (특히 정보나 노하우의 교환, 지원 등).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은 풀뿌리 활동을 펼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NGO와 대원과의 연계가 특히 효과적이다.
4. 현재 대원과의 협력관계는 대원의 농촌 개발 분과 모임에 전문가가 강의 (잠

비아 JICA 사무소의 기획)하는 경우도 있어 대원만이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시청각 대원에게 비디오 촬영 협조를 받았다. (프로젝트 현장 쪽에서 공문으로 요청). 의료 관계 대원(잠비아에서는 현재 직접 의료 행위를 하는 현장에는 파견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의료 교육 기관에 파견 중)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 협력 현장의 병원을 견학하는 것과 건축 분야 대원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실험지구인 컴파운드 시찰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 관련 현장 방문 예도 있다.

5. 또 불가리아에서는 대원 부임 시에 전문가 총회를 실시해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 교환을 한 예도 있다.

6. 전문가 쪽에서는 대원보다 전문가가 위에 있다는 식의 상하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원이 전문가에게 말을 걸기 어렵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실상이다. 따라서 전문가에게도 사무소가 대원들과 보다 서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문가와 대원의 정보 교환의 필요성에 따라 사무국에게 더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7. 이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예를 들어 보건부에 파견 예정인 자동차 정비 분야 대원이 구급차의 고장을 수리할 수 있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기 사항/ 총괄

1. NGO와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의 연계로 AMDA · CAERD International과의 관계, 나아가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 무상 · 개발 조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인터뷰할 예정이지만, 연계의 개념을 공유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며 어느 정도 협의를 완전히 마치는 것은 이뤄지기 어려웠다.

2. 이번 건을 포함해 풀뿌리 커뮤니티나 주민에 대한 접근 또는 지방 진출 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원과의 연계가 유익하다.

3. 전문가, 대원의 각각의 자세와 받아들이는 허용도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서로 의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연계 (정보 · 노하우 교환 포함) 의 여지가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연계는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일 처음 단계에는 사무소의 주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요약하자면 협력대원과 연구형 프로젝트 측에서는 협력대원과 보급형 프로젝트 관계자 간에 원활한 연계가 기대된다.

(3) 가정연료 개선 프로그램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15일 (수)

□ 세부내용

과제명	광물 자원에 편중되지 않는 산업개발
프로그램명	가정 연료 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JOCV 그룹 파견/ 점토 화로-곤로 제조 기술 보급 계획 기자재 공여 후속조치(Follow-up)/ 조개탄 생산량 확충 계획
일시	2000년 11월 15일 (수) 15:30~18:00
방문지	국립 과학기술연구소 (TEXCOME 프로젝트) 현지 시찰 및 대원 인터뷰
면담자	카츠야 시니어 대원, 키토오 대원 (도자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관계자 (10/2 프로젝트 카운터 파트, 공장장 등) [쿠도오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이번 건은 1987년부터 대원 파견, 1988년 이후에는 전문가 파견, 1991년부터는 소규모(미니) 프로젝트로 실시되었다. 94년 소규모(미니)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단기 전문가와 대원 파견. 현재 도자기 (후임자 파견 결정 완료), 시장 조사 (후임자 미확보로 현재 재모집중) 및 카츠야 시니어 대원 등 3명 파견으로 그룹 파견을 이루고 있음.

다만 초기 대원 및 미니 프로젝트는 조개탄의 연구와 제조에 주안점을 뒀으나 지금 파견되어 있는 단원은 (조개탄을 포함한 다른 가정용 연료를 위한) 점토 화로-곤로의 개량·생산·보급, 이에 대한 지역의 연수와 순회 지도가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프로젝트 설명 (국립 화학 기술 연수소 측 설명)

1. 조개탄, 화로-곤로에 대한 설명: 화로-곤로는 개량을 거듭해 현재의 주조형 화로-곤로를 15000ZK의 가격으로 판매.
2. JICA 전문가는 기술개발분야, JOCV는 시장 조사와 생산 등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행능력이나 성과는 다르지 않다. 단, 전문가에게는 필요 없지만, 대원 쪽에서는 특별히 파견 초기에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룹 파견 (대원 2명을 인터뷰)

1. 대원끼리 같은 직종 및 분야가 아니고 서로의 활동 현장도 달라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동을 잘 진행해 왔으므로 전체적으로 좋았다.
2. 시니어로서 파견된 점에 대해서는 코워커와 같은 인식을 받는 정도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좋다. (프로그램 오피서나 대원과 같은 위치였다면 그 정도 발언권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코워커는 연구 체질로 사무실에 있는 유형이지만, 대원(도자기)은 컴파운드를 순회하는 활동 중이라 서로 근무지가 다르다. 코워커가 아주 바빠서 같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4. 대원이나 전문가 같은 일본인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잠비아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일도 부드럽게 진행하기 쉽다.
5. 그룹 파견이라는 말은 모집 안내서에 나와 있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잠비아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료를 받았으며 하시모토 산업(조개탄 프로젝트 전문가 다수 파견 중)을 소개받아 단원 스스로 기술 보완 연수를 JOCV 사무국에 의뢰, 하시모토 산업에서 연수를 받은 다음 잠비아로 파견됐다. (도자기 분야 대원)

6. 전문가와 탄자니아에서 만난 적도 있고,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들었다. (시니어 단원은 탄자니아 귀국 단원 출신-OG)

7. 3명의 성격이 다 스스로 의견을 조율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등 인간관계도 순조롭다.

8. 대원은 전문가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봤다. 자동차나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가는 사무실 업무, 대원은 현장 업무라는 식으로 업무 구분이 있으면 연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 자신의 업무나 행동을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또 대원과 전문가에 대한 소속기관의 대우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스스로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프로젝트의 상황

1. 순회 지도를 위한 자금(강사료, 연료비, 재료비를 비롯한 강좌 개최비와 홍보 활동)은 풀뿌리 자금협력의 지원을 2번 받았다.

2.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현재 시니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틀을 확실하게 만드는 PDM을 작성하고 있다.

□ 특기사항/ 총괄

전문가와 대원과의 연계

1. 이번 조사의 3명 (시장조사대원은 이미 귀국했으므로 먼저 인터뷰 마침) 모두 포용력이 있고 성숙한 분들이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교류를 통상적으로 행해온 대원들이라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절차탁마의 기회나 의견교환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대부분의 대원은 전문가 아래에서 관리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조언이나 지원은 필요로 하며 또 바라고 있다.

3. 이번 조사의 경우, 대원은 과거 미니 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 ('미니 프로젝트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등) 조개탄 관련 프로젝트와 점토 화로 관련 활동을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경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좋은 활동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룹 파견(* 현재 팀 파견으로 통합)

그룹 파견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시니어 대원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하며 후임에 대한 인수인계를 쉽게 하며, 개개인의 활동이 성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4)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1)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1월 21일 (화)

□ 세부내용

프로젝트 명	초등·중등 교육의 질 개선과 보급
프로그램 명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과학 및 수학교사 (1)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과학 및 수학교사
일시	2000년 11월 20일
방문지	과학 및 수학교사 대원 (치랑가, 카웨)
면담자	本城대원 (11/1), 타나카 대원 (11/3)

□ 시찰/협의내용

本城대원의 파견기관 및 주거환경 시찰, 대원과 면담

1. 교감(갓 새로 부임, 부임 3주차) 선생님 인사 (교장선생님은 방문 마지막에 인사 나눔)
2. 바크란즈 중등학교는 몇 년 전까지 초등학교였으며, 실험실이 좁아서 가장 기초적인 기구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 실험실 기기 등을 도둑맞아 현재 새로운 실험실동(棟)을 만들 계획이다. (공여국 측에 어필하기 위해 현재 기초 공사를 독자적으로 실시)
3. 교사들 중에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사(일종의 시간강사)도 2명 있고, 월급도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4. 한편, 미니버스 1대를 학교 측과 학부모 모임(PTA)이 절반씩 부담해 구입(루사카~치랑가 왕복), 컴퓨터도 1대 구입해 문제집 작성을 계획하는 등 학교를 운

영하는 데 있어 교사의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5. 오후 수업은 수업료가 비싸 선생님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별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오후 수업에 많다: 오전 학생 7775명, 오후 학생 540명)

6. 처음에는 생물도 가르쳤지만, 지금은 오전과 오후 수업을 합쳐 1주일에 36시간의 화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생물도 함께 가르치던 예전에 비해 화학 1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대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7. 대원 자신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이야기 있었음.

8. 독자적으로 화학 문제집을 만들어 널리 배포,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타나카 대원의 파견 기관 및 주거 환경 시찰, 단원과의 면담

1. 파견 기관인 학교는 남자학교로 진학률이 높은 학교라고 한다. 1939년 설립된 오랜 전통의 미션스쿨(United Church of Zambia). 보건소와 탁아소까지 갖춰져 있으며 거의 전원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다. 컴퓨터도 5대 있어 컴퓨터 수업도 실시하고 있다.

2. 타나카 대원은 물리와 수학을 담당.

3. 학교에는 스위스인 (농장의 농기구 정비 관계)도 있다.

4. 물리 수업의 학생은 48명.

5. 기숙사는 14개 동이 있다. (1번 도둑이 든 적이 있어 최근에 수리 보수를 한 것도 있다)

Mr. Louis N. Nawa 교장과 인사, 면담

1. 교장 선생님도 80년대에 JICA의 과학 및 수학 대원과 함께 일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원 파견을 강력히 희망해 이번에 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2. 대원 활동에 대해 그럭저럭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3. 수업에도 익숙해졌고 일본어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
4. 대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5. 'Volunteer'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
 - (1) 생활·문화의 공유(일본의 시간관념, 노트 작성법 등)와 기술 상호교류
 - (2)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
 - (3) 다른 교사들에게도 자극 (수업 방식,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
 - (4) commitment
 - (5) 위와 같이 물질적인 공헌보다는 정신적인 공헌을 기대.
6. 미션스쿨의 특징
 - (1)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
 - (2) 다른 운영비용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적다). 수입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충당. 이 학교의 경우에는 수십 ha(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있어 야채 등을 재배해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팔아서 수입도 거두고 있었다(현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 확대를 계획 중)
 - (3) 교사의 채용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4) 올해에는 센서스(국세-國勢)를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사에 동원돼 변칙적인 학기 편성과 운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국세 조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 (5)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설비가 갖춰져 있는 학교가 많다. 또 정부에

서 받는 지원이 적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 자제들이 입학하고 있고, 진학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한편 비싼 수업료로 수업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 특기사항/ 총괄

1. 대원의 파견지인 학교 (미션스쿨인가 정부 공립학교인가, 남학교인가 남녀공학인가, 전원 기숙사제도인가 통학하는 제도인가, 학생들의 수, 대원이 맡은 수업 시수, 비품)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대원의 활동도 크게 다르다.
2. 설비가 갖춰져 있고, 수업을 비롯한 활동이 쉬운 학교에 대원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가, 지방의 공립학교를 비롯한 설비가 갖춰져 있지 못한 학교에 단원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판단을 JOCV가 내려 적어도 대원을 어떻게 파견하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파견할 것인지 또 설비가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3. 한편 교장의 리더십이나 학교의 운영 방침, 또 다른 교사들의 의욕은 대원의 환경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다.
4.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 수가 많고 교사는 부족한 형편이어서 각 대원이 맡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꽤 많고, 수업의 준비나 시험 준비를 합치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학이 되어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5. 잠비아의 경우에는 교사 경력자 없는 대원이 대부분(2명만이 교사 경력자)이지만, 각 대원들은 파견기관의 환경에도 익숙해져가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노력을 기울여 수업 내용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5)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2)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1월 21일 (화)

□ 세부내용

과제명	초등 · 중등교육의 질 개선과 보급
프로그램명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 (2)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과학 및 수학과 교사
일시	2000년 11월 20일 (월) 15:20~17:20
방문지	JICA 사무소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대원과의 의견교환)
면담자	本城대원 (11/1), 타나카 대원(11/3), 나카무라 대원(11/2), 나카무라 개별전문가(교육) [쿠도오, 우치야마 행정원-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시라이 대리가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 그 후 잠비아의 과학 및 수학교사 파견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대원 활동

1. 대원 모두 수요조사에 써 있었던 내용과 현재 활동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일본 학교 수준과 비교해 현재 파견된 학교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한다.
2. 대원 스스로 자기 성장을 강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교수법과 생활 태도에 대해 주위 분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있어 활동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대원들의 의견.
3. 대원의 영어능력 향상 필요성은 모든 대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
4. 대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일본인으로서 잠비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각을 하지 않는다. 시간을 지킨다.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장래 가능성)

5. 파견기관에 따라 대원의 활동이 크게 다르다 (남학교인가 남녀공학인가. 미션 스쿨인가, 지방 학교인가 하는 문제와 학교의 역사 및 학생들의 학업 능력 수준)

잠비아의 교육 현황

1. 현지인 교사 중 시간 강사를 비롯해 전체 교사의 40%가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육성회 측에서 매달 16만 과차를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월급이 적기 때문에 교사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 보츠와나 같은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월급을 못 받는 것은 IMF 세계은행의 구조조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2. 학생들의 능력: 학생들에게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2차원에서 3차원에 이르는 입체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니 상상력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노력해서 알아야겠다고 하는 의욕도 부족하다.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원 파견은 잠비아의 교사 인력 부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나라의 교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대원 의견도 있었다.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 대원 (전문가 및 행정원-조정원과 인터뷰)의 제언과 아이디어

1. 기초 분과 모임(교사 회의)에서는 팜플렛 작성과 워크숍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활동에는 변화가 없으며 잠비아인 중심이 아니다. 또 문제집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다. 실제로 문제집을 작성하는 것보다 잠비아인들에게 문제집 작성 방법을 가르치는 쪽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 수요조사에 워크숍도 활동의 일부로 적어둔다면 (미리 자신의 업무 및 활동의 일부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교사회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원들이 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3. 영국이 만든 리소스 센터에 대원이 파견된다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아

이디어가 나왔다. 교육부가 계획하는 Zonal Resource Center(전국에 640개교)에 대원을 보내는 안을 전문가가 제시했다.

4. 대원의 파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비아의 중장기 교사 계획과의 적합성과 JICA 자체의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 및 행정원-조정원의 의견) 또 빈곤지역인 루앙프라 주에 대원을 많이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난민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다.

5. JOCV 자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파견된 대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원은 미시적인 세계(미크로)인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술협력사업은 거시적인 세계(매크로)여서 지원체제 없이는 연계하기가 곤란하다.

6. Peace Corps처럼 오지에 파견한다면, 시니어나 차량을 운영해 물류 조달(로지스틱스 logistics)

7. 7월에 부임한 1차대 (역자 주: JICA는 1년에 3번 단원을 파견하며, 년도별로 2003년 1차대, 2003년 2차대, 2003년 3차대라고 기수를 부여한다)의 경우, 생활과 수업준비가 이뤄져 시간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잠비아의 학기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파견 종료 시기가 학기 중이었던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학기 중에 임기가 끝나는 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해도)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든지 하는 생각에 고심하는 대원도 있었다. 상황에 따라 임기 연장도 가능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침-가이드라인-을 JOCV 사무국에서 검토중)

JICA의 다른 협력사업과의 협력과 협력관계

1. 자기 주변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일본인뿐만 아니라 잠비아 현지인이라도 좋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전문가 쪽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다.

□ 특기사항/총괄

1. 파견 역사가 오래된 잠비아 과학 및 수학교육 대원의 파견에 대해 대원 자신의 활

동 자체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정도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잠비아의 교육 상황의 발전이 느리다는 것과 BESSIP를 비롯한 프로그램화의 흐름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잠비아의 초중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과연 대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2. 시니어 대원의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과학 및 수학교육 분야 대원의 활동 보고와 교훈을 모아 앞으로의 파견 방침과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 가운데 국별 실시 지침과 대원 활동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와 JICA의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파견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원 지원 방법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교사 경력이 없는 대원이 많아 대원 각자가 새로운 것을 여러 모로 시도해보고 있어 스스로도 많이 변했고, 성장했다고 느낀다. 이런 점에서는 대원 본인에 대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이나 학교 동료에게도 영향력은 크며, 잠비아의 '청소년 육성'의 하나를 맡고 있다. 기술협력이라는 점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몇 군데로 집중시키는 활동이나 Resource Center를 중심으로 시니어나 팀제를 파견하는 방법도 시범 사업(Pilot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기초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3)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확인: 시라이
- 일시 : 2000년 11월 22일 (수)

□ 세부내용

과제명	초등 · 중등교육의 질 개선과 보급
프로그램명	기초교육기회 접근 향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무상/루사카시 초등학교 건설계획
일시	2000년 11월 21일 (화) 9:00~11:00
방문지	타카마도 초등학교 시찰

2) 역무제공형, 맨파워(Man Power)로서의 존재. 인력수급이 딸리는 곳에 대체자원으로 투입됨

면담자	Mrs. Phiri (타카마도 초등학교 교장) [쿠도오 조정원, Mr. Ezekiel Phiri(JOCV 컨설턴트) 동석]
-----	---

□ 시찰/협의내용

초등학교 교장에게 인사, 인터뷰 및 학교 시찰

1. 이 학교는 작년 12월 천황 일가의 잠비아 방문 후속조치로 작년에 개교(일본 무상 원조로 건설된 4개 학교 중 하나)했다.
2. 개교 1년째로 7학년과 9학년에는 아직 학생들이 없다. (올해 12월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학년이 다 갖춰지게 된다)
3. 교사는 현재 24명 (이 중 남자 교사는 6명뿐)
4. 잠비아의 다른 초등학교와 이 학교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 4가지
 - ① 각 동에 비품실을 설치
 - ②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사용하기 편함
 - ③ 수도와 전기가 완비
 - ④ 교사들을 위한 주거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음 (교장 사택만 있음): 따라서 이번에 파견되는 대원의 경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외적³⁾으로 JOCV 측에서 주거비를 부담할 계획
5. 오는 12월 초등학교 교사 (체육 physical education 담당) 대원 (2000년 2차대)이 파견될 예정이다. 잠비아에서 초등학교에 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 체육 대원 이외에도 앞으로는 양호, 음악 교육 대원을 무상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초

3) 역자 주: 2005년 JICA는 다음 국가에만 주거비를 제공하고 있다. 잠비아는 주거비 제공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예외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JOCV가 주거비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대원의 주거비는 상호협력 원칙에 따라 모두 상대국 정부 부담(JOCV 사무국 국내과의 답변).

주거비 제공 국가: 모로코, 바누아투,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베네수엘라, 피지,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통가

등학교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야는 잠비아 교육 중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분야이며, 교육부에 관련 담당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원 파견도 잠비아 정부가 일본에 초등교육 분야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실험적pilot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

□ 특기 사항/ 총괄

1. 무상협력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학교 건물이 건립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원 파견이 이뤄진 최초의 케이스다. 따라서 대원 파견에 따른 성과, 바꿔 말하면 일본과의 협력의 유효성을 잠비아측에 내비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무상 원조와 JOCV 사업을 비롯해 JICA 사업의 연계 방법과 효율성이라는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기초교육 분야에 대원이 파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므로 꼼꼼하게 그 활동성과를 기록해 정리한 다음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체육 교육을 비롯한 정서 함양 교육 분야에 대해 수업계획서(syllabus)는 있지만, 잠비아의 현실에 맞춘 자료나 보고 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원의 활동 지침이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조사결과는 대원 파견 후 변화를 살펴본 다음 비교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평가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잠비아측에 결과를 제시할 때도 활용가능하다.

3. 이번에 초등학교에 파견되는 대원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 파견되는 과학 및 수학교육과 기초교육 실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 박물관에 파견된 시청각교육 분야 대원(후임자는 청소년활동 분야 대원)의 파견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상 여러 가지 연계나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사무소 측도 이러한 대원간의 협력에 대해 추진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기타 프로그램 (1)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5일(수)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실시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시장조사
일시	2000년 11월 14일(화) 9:00~10:30
방문지	Society for Family Health (미국 NGO)
면담자	스즈키 대원(98년 3차대) Director, Society for Family Health [쿠도오 행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대원 사무실을 시찰한 다음 SFH 소장을 인사차 방문, 이번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SFH의 개요를 전해 들었다.

1. SFH는 미국 NGO인 PSI의 잠비아 지부로 자금의 90%는 USAID로부터, 나머지 부분은 UN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또한 다른 공여기관에서 콘돔 기증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직원은 국제 직원들과 현지 고용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60여명이 있다.
3. 봉사단원은 Peace Corps, VSO를 비롯한 봉사단원이 이 기관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기부여와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 상하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수하나 반면 문제점은 단원 파견의 적절한 시기와 잠비아인의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대원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1. 정부부처 파견형 대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활동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대원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경향도 크지만, 이곳처럼 국제 NGO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2.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반 안건의(Common Agenda)의 하나로 추진됐고 치파타에는 지역사회개발 대원(1998년 3차대)도 파견하고 있다.
3. 직종은 시장조사이나 마케팅이 주 업무였다. 현재 단원이 하고 있는 일인 인구 통계 업무를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부임 전부터 업무 범위를 한정시켰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세로 임했고, 그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
4. 한편 본연의 업무인 통계 업무 외에도 콘돔 프로모션 등 현장(필드)에 보급하고 계몽하는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파견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나의 존재가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견기관에서는 대원에게 원래는 통계업무를 해 줬으면 하고 기대했지만, 대원의 현장활동에도 차량을 제공해 주는 등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5. 파견국에 대한 일본의 원조 전략에 대해서는 파견전 훈련 등에서 사전에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같은 직장에 일본인 전문가가 파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하관계가 발생되거나, 영어가 공용어인 직장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단, 직종 또는 사무실이 다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로에게 자극이 되거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다.

□ 특기사항/총괄

1. NGO에 직접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은 봉사사업의 큰 특징으로, 전문가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 국제 NGO는 상대국 정부기관과 비교해 조직체제와 예산 처리가 자리잡혀 있는 경우도 많아 봉사단원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NGO에 파견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파견국의 개발 계획, 일본의 원조 중점 분야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파견 전 훈련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기타 프로그램 (2)

□ 개요

- 기록자: 오리다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14일 (수)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들어있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 지역사회개발
일시	2000년 11월 14일 (화) 11:00~12:30
방문지	카투바
면담자	히구치 대원 (2000년 1차대) [쿠도오 행정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파견기관인 Christian Child Fund(CCF)에서 대원의 활동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다.

1. CCF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Foster Parents(양부모)를 모집하는 등을 실시, 잠비아의 23곳에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대상 지역의 아이들을 심사해 등록한 다음 등록이 끝난 아이들에게 학비, 교복, 콩, 담요, 슬리퍼 등을 제공하고, 레크레이션 커뮤니티 학교를 연다.
2. 대원은 현재 CCF의 이 지역 담당 Health Worker가 반년동안 부재중이기 때문에 클리닉에서 5세이하 아이들의 건강검진 보조, 영양실조 아동의 가정 방문, 영양 및 공중위생 지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3. Health Worker가 돌아오면 다시 영양사로서의 활동을 특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4. CCF에서 받았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는 영양지도 외에도 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와 참여 계획, 스포츠 진흥(대원 이력서에 배구에 대한 내용이 써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이 있었다. 또 현재 축구 팀을 결성해 활성화시키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낮에 술을 마시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JOCV 대원 2명이 다른 NGO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등 대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다른 대원들은 농업 분야). 서로 활동 현장을 견학하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다.

2. 같은 지역에 대원이 배치될 경우, 그 지역(마을)의 기본 정보가 빨리 입수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을 기본정보를 빨리 입수하면 활동에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 한편 같은 분야라면 사전정보 때문에 파견기관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되기 쉽다. 따라서 서로 분야가 다른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SFH(미국계 NGO. 스즈키 대원 활동중)의 요청에 따라 HIV/AIDS 워크숍을 개최. 이때에는 카키누마 대원(지역사회개발 분야)도 함께 도왔다. 앞으로 CCF 스태프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강습회를 여는 것을 SFH가 검토하고 있다.

4. 12월 지역사회개발 분과 모임 개최시 참가 예정이다.

□ 특기사항/총괄

1.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활동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원 스스로가 활동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성이 아주 높은 직종이다. 같은 지역사회개발 대원 중에서도 ①활동 범위에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②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대원이 활동의 방향성을 잃어버림)로 크게 나뉘어진다. 같은 직종 중에서도 이렇게 자세가 다른 경우 상이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연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기본 틀 만들기(목

표 설정 등)가 아주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대원과 전문가 또는 대원들간의 자발적이고도 긍정적인 연계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며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방법론이 가장 효과적이다.

(9) 기타 프로그램 (3)

□ 개요

- 기록자: 모리와라
- 확인: 오부치
- 일시 : 2000년 11월 21일(화)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계획에 들어있지 않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지역사회개발
일시	2000년 11월 15일 (수) 14:00~16:00
방문지	카나칸타파 지구 농촌개발 계획국
면담자	스기야마 대원 (99년 2차대/ 지역사회개발)

□ 시찰/협의내용

1. 단원 수요 요청

동 수요는 '잠비아'의 개척 정책에 따라 카나칸타파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들어간 이주민들의 자립 영농 촉진 계획의 일환으로 요청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풀뿌리(지역사회 민간협력) 무상협력사업으로 건설된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각종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자 함이다. 더불어 지역 전체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 무상자금협력(훈련 농장, 도로 등의 건설), 전문가 4명 (영농, 원예, 농기계, 관개), 협력대원 (가축 사육, 작물, 지역사회개발)이 협력 사업을 실시해 왔다.

2. 대원들의 의견 청취 내용

(1) 부임 초기에는 위의 초등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기획, 여성들의 소모임(그룹) 활동 지원(편물, 자수 교실 등), 문맹교육 교실 등의 활동을 했으나, 현재

는 보건소(클리닉) 건설을 위한 원조 신청, 농민 자치 조직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같은 업무로 아주 바쁘다. 처음 신청한 청소년개발 분야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로도 손이 모자란 형편이다.

(2) 위의 보건소(클리닉) 건설은 처음에는 풀뿌리(지역사회 민간협력) 무상협력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해 현재는 잠비아 정부기관(ZAMCIF)에 자금 원조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3) 전임 협력대원(96년 2차대, 지역사회개발)은 당초 후임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풀뿌리 무상협력으로 건설된 학교에 협력을 지속해간다는 점에서 잠비아 사무소 측이 후임을 요청했으며, 이에 현재의 대원이 파견됐다고 함(사실 관계 미확인)

(4) 활동 기관에서는 활동 내용 변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체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맡겨주는 편이다.

(5) 국별사업 실시계획 등 큰 틀에서 활동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JICA의 '협력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방침이 있지만, 전문가의 뒤를 이어 파견됐기 때문에 실제 농민에 대한 기대가 크고, 활동의 위상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② 현재, 활동기관의 동료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원 자신도 활동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 고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 제시된다면, 활동기관의 비전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6) 예전에 파견되었던 전문가의 협력사업 성과가 활동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도 자립과는 거리가 멀고 예전에 실시됐던 야채의 출하도 운송(transport), 자금 부족 등의 원인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는 한편 적절한 후속조치 또한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 또 대원 자신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7) 대원 자신은 농업 쪽 배경지식이나 경력 등이 없기 때문에 농업식품수산부(MAFF)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농업개발계획)에게서 적절히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전문

가 수행 프로젝트를 견학하는 등 도움을 받고 있다.

(8) 이 지역에는 무상 자금 협력으로 각종 설비가 건설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민들을 '수동적'인 자세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특기사항/총괄

1.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전문가는 기술 이전을 담당하고 대원은 그 협력효과를 보급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

2. 또한 무상자금협력, 전문가파견과 같은 협력사업의 흐름과 협력대원과의 관련(연계의도)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원의 활동 방침이 더욱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의 동료 등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원의 임지배치 결정시 수요 요청기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수요요청에 따른 기술협력측면과 그 이외의 측면 어디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느냐가 대원 활동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5)① 참조)

4. 위에서 본 대원의 의견처럼 이 활동기관에서는 개척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고,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척지 전체를 총괄하는 방향성 및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려 한다면, 시니어 해외 Volunteer를 자문관(Advisor) 으로 파견하는 등 협력대원과 다른 협력사업 사이의 연계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수도 루사카에서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시니어 해외 Volunteer의 파견이 가능)

(10) 기타 프로그램 (4)

□ 개요

- 기록자: 마츠모토
- 확인: 오리다
- 일시 : 2000년 11월 17일(금)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미기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생태 조사
일시	2000년 11월 16일 (목) 16:00~19:00 2000년 11월 17일 (금) 13:00~18:00
방문지	현지 시찰 (사우스 루앙와 South Luangwa 국립공원) 및 대원과 동료 면담
면담자	키무라 대원 (2000년 1차대 · 생태 조사) Mr. Moses Mukumbi, Park Ranger [쿠도오 행정원 동석]

□ 시찰/ 협의 내용

대원 활동기관

1. 관광부 국립공원 야생생물국 무해 담당지역 · Chinzombo Research Station(CRS)
2. 대원 활동 기관인 Chinzombo Research Station(CRS)는 잠비아의 동부지역에 있는 사우스 루앙와 (South Luangwa) 국립공원 안에 있다.

프로젝트 설명 (잠비아 현지인이 설명해 줌)

1. CRS는 ZAWA(Zambian Wildlife Authority) 산하에 있지만, 이 ZAWA의 활동 중 약 40%는 노르웨이 원조기관인 NORAD의 LIRD(P(Luangwa Integrated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1988년부터 실시)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정부 재원 및 관광 수입으로 충당)
2. NORAD의 프로젝트에는 차량, 순회에 필요한 활동 자금을 비롯해 국립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장기 및 단기 전문가 각각 1명씩 파견) 등 관광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의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CRS 포함, 사우스 루앙와 공원에는 180명의 직원이 있다.
4. 다른 공여국에서는 덴마크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있다.

5. 노르웨이, 덴마크 단원들도 직종과 소속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JOCV는 업무상 관련이 적고,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
6. 현재 NORAD는 LIRD II(1999~2002)를 계획하고 있다. 사우스 루앙과 국립공원 야생생물국 무해 담당지역의 새로운 사무실과 직원용 주택은 벌써 짓고 있다. (키무라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CRS 라보도 포함) 단, EIA(환경 액세스먼트)가 아직 끝나지 않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비용은 NORAD의 프로그램 정보센터와 기자재 범법행위 방지, 공원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비용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7. ZAWA는 국영이었으나 현재 반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조직재편성중이다. 이에 직원도 30~40% 줄어든 실정이다. 3년후에는 완전히 민영화될 예정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동 프로그램은 3년 프로그램으로 노르웨이의 프로그램 지원금액도 줄어드는 실정을 볼 때 앞으로 ZAWA의 운영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관광수입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8. 환경 자원의 보호가 ZAWA의 주 역할이나, 관광 진흥 또한 중점사항이다. 관광 관련해서는 민간 관광업자가 숙박시설(Lodge) 경영자의 신축계획에 따라 폐기물의 공원 내 투기 금지를 비롯한 환경 지도를 하고 있다.
9. ZAWA 자체 조직은 환경과 관광을 분야별로 나눠 양 분야에서 지도와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JOCV 수요 요청 (잠비아 측)

1. 인력이 부족한 국립공원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전문가, 시니어 해외 Volunteer의 파견을 바라고 있다.
2. 국립공원에는 관광용 숙박시설도 많아 식사를 포함해 기초생활 및 긴급시 의료 수송도 갖춰져 있어 문제가 없다.
3. 예를 들어 일본에 어류 밀획자 대책 모니터링(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대책 시스템을 작성) 등을 수요요청할 예정이다.
4. 키무라 대원을 비롯해 7대째 생태 조사 대원 파견에 대해서는 이번 공원의 조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전임 대원은 공원지도도 작성해주었으며, 지도 판매로 수익도 계속되는 등 크게 공헌을 해 주었다. 물론 대원과 직원 간의 인간관계도 양호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키무라 대원 활동

1. 원래 동물을 좋아했고, 캠프를 이동해가면서 조사활동을 하는 현재 활동은 아주 적합하다.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한다.
2. 국별 계획에는 잠비아에서의 환경 또는 관광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주변의 주민과 커뮤니티와의 환경 문제 등 조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현재의 현안이다.
3. 대원 7대째인 현재, 과거 대원 중에는 자신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하는 대원도 있었다고 들었다. 7대째에 이르는 대원 모두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활동 상 조사 데이터 덕분에 공원에 있는 야생동물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4. 지속적으로 대원을 파견해 준 덕분에 잠비아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5. 현재, 잠비아인 6명(조직 개편 전에는 10여명이었음)과 함께 하마의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인원수는 줄어들었으며, 인원수 부족에 따라 개개인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잠비아인 동료의 대부분이 다른 관청과 비교해 월급 수준도 높은 편인 듯하고, 월급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적었으며, 또한 조사를 위한 연료비를 비롯한 문제도 전혀 없다.

□ 특기사항/총괄

1. 야생동물 보호 분야 대원은 현재 7대째 활동을 하고 있다. 광활한 무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생태조사는 끝나지 않을 활동이며, 장기적인 관점을 세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또한 공원의 반민영화로 인재 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에 대원의 지속적인 파견이 요구된다.

2.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의 방향성이나 다른 공여기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또 잠비아의 국립공원 운영방법을 생각해본다면 환경과 관광은 떼레야 떼 수 없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대원의 활동 방향성이나 활동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기타 프로그램 (5)

☐ 개요

- 기록자: 모리와라
- 확인: 오부치
- 일시 : 2000년 11월 11일(토)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미기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구성	일반대원/환경교육
일시	2000년 11월 11일 (토) 15:00~17:30
방문지	Zambia Wildlife Authority, 카웨 국립공원
면담자	오노 대원 (98년 1차대 · 환경교육)

☐ 시찰/협의 내용

1. 수요요청

이 수요는 잠비아 최대의 국립공원인 카웨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전을 위해 환경 교육을 통해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대원을 요청했다. 현재 활동 중인 오노대원은 잠비아 각지의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학교를 실시, 주변 지역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 워크숍의 실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도서 대출 서비스, 환경 교육 교재(생물 표본 등)의 정리 등 다

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국립공원에는 예전에 생태 조사, 무선통신기, 토목 설계 분야의 대원도 파견된 바 있으며, 전문가 3명(팀제 파견)도 파견한 적이 있다.

2. 국별 사업실시계획

(1) 이 대원은 국별 사업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나, 큰 틀(프레임 워크 framework)에서 대원의 활동 위상을 정립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했다. 대원과의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원 각자가 활동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단, 모집과 파견시에 위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활동 중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대원과 JICA 사무소, 소속기관 3자간의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히 하여, 활동 중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계자들 사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 대원의 경우에는 활동 분야가 '환경'인 관계로 특별히 JICA로부터 위상이나 지위를 지시받지 않더라도 큰 틀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며, 활동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위상 정립의 유무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2) 국별 사업 실시계획에 JICA가 협력 접근을 '환경'에서 '관광'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대원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속기관이 공기업(공사)으로 바뀌면서 독립 채산제가 되었기 때문에 Income generation에 따른 독자 재원의 확보가 급선무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관광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다른 직종의 대원과의 연계에 대해 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비아에 많이 파견돼 있는 과학 및 수학교육 대원들의 '과학 및 수학교육 교사 모임'에서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육 여름학교 PR을 하고 있으며, 각 대원 소속기관에 홍보해주도록 대원들에게 부탁한 결과 2개 학교가 이번 여름학교에 참가했다.

3. 다른 기술협력 사업과의 연계

(1) 전문가와의 연계

단원에게서 들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팀제 파견의 전문가가 작성한 이 국립공원의 개발 계획 위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의 성과물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전문가는 대원과의 연계 의도를 시사하고 있는데 수요 요청서에는 연계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발 계획은 2개월 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실현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 오히려 계획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다. (사용하기로 한 건물 매각 등)

② 위의 ①에서 전문가가 남겨놓은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파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국별 사업계획의 존재 및 JICA에서 계획의 위상을 파견 전에 전달 하여, 국별사업계획에 대해 대원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 등)

(2) 작은 하트 프로젝트 부임지의 마을내 초등학교 기숙사에 기증할 침대와 매트리스는 현재 신청중

3. 기타 의견(연수 관련) : 국립공원 운영에 관한 JICA의 연수는 일본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국립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상황이 비슷하고, 더 발전적인 운영방식과 역사를 쌓아 온 다른 개발도상국(케냐 등)에서 연수(곧 제3국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3국 연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특기사항/총괄

1. JOCV에서 국별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큰 틀위에서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이는 파견 중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다른 기술협력 사업 틀과의 연계에 대해 이 수요는 전문가의 팀제 파견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대원의 활동을 요청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대원의 활동과 다른 기술협력 사업에 연계되는 경우 그 위상 및 연계 의도 유무를 단원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3. 학교에 배치된 대원과의 연계는 교육 현장에 대한 활동 홍보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12) 기타 프로그램 (6)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22일(수)

□ 세부내용

과제명	(국별 사업 실시 계획에 기재되지 않았음)
일시	2000년 11월 21일 (화) 11:00~12:00
방문지	루사카 국립 박물관
면담자	Mr. Mutenta 관장 타지마 대원 (98년 3차대 시청각교육) [쿠도오 조정원, 필리 제외(해외현지인)전문조정원 동석]

□ 시찰/협의내용

1. 관장이 타지마 대원의 활동개요를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0년 6월에 부임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원의 활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관장 측에서 잠비아 전체의 박물관 상황을 미뤄볼 때 어떤 협력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찾아가는” 프로그램(직접 방문형 아웃리치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지금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박물관 측에서 학교를 찾아가 고국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 Community Based Research: 루사카 박물관은 다른 단원 1명이 활동하고 있는 리빙스톤 박물관에 비해 전시품이 아주 적다. 전시를 할 만한 유산은 아직도 마을 곳곳에 남겨져 있다. 먼저 마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잠비아인이 이 조사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부족간의 편견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일본인이 이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Tourism: 리빙스톤에는 동물이나 폭포와 같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관광 상품이 많다.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 상품에 전통적인 미술 감상(박물관 방문)을 넣는다면 좋을 것이다.

* 그 밖에도 현재 수집하고 있는 미술품을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 등을 이용해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큰 과제다.

2. 대원은 시청각교육 분야로 이 박물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박물관의 존재를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각 분야 활동 외에도) 팸플릿 작성, 신문 광고 등도 하고 있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포트하우스 제작(전통 계승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 공작 실습이나 종이 접기 지도, 또 거리의 아이들(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점토 공예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3. 대원 자신이 네덜란드 박물관의 예(조사 당시, 조사와 교육 담당자가 공동으로 조사해 그 후 활동에 일관성을 갖도록 했으며, 여러 직종의 대원이 함께 박물관 한 곳에 파견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활동을 미루어 살펴볼 때 청소년활동 분야 대원을 후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후임으로 청소년활동 분야 대원을 신청했다. 후임 대원 배치 결과 등을 봐서 여러 직종의 대원을 파견하는 것도 결정된다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활동은 급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잠비아 측의 의욕을 높인 다음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특기사항/총괄

1. 루사카 박물관장 및 대원과의 단시간 면담을 통해 루사카 박물관뿐만 아니라 잠비아에 있는 박물관 4곳이 현재 갖고 있는 과제와 이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수요요청 배경 조사 당시에는 대원 개인에게 바라는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해당 분야의 과제 중에서 대원의 위상을 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과 협의를 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이 사무소의 파견 전략 수립에도 이러한 내용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2. 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들렀던 무상자금 협력사업으로 지은 초등학교에 90년(H12) 2차대로 체육 분야 대원(교사)이 파견된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자화상을 그리라고 하면 머리에서 바로 손발로 넘어가버리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많다. 이처럼 정서함양 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초

등학교에 파견된 대원이 박물관의 대원과 협력해 정서함양 교육과 환경교육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정서함양 교육과 환경교육에 대해 박물관 대원도 적극적이었다. 기초적인 계산 능력, 공간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린 시절의 교육 및 놀이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의 어린이들은 종이접기를 통해 형태와 공간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대원들끼리 협력하는 것은 사무소도 지원과 협력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영국, 프랑스

1. 영국 현지조사 기록(사무소 등)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JICA 사무소
방문지명	JICA 영국 사무소
일시	2000년 11월 23일(목) 11:00~12:30
면담자	카미야 소장, 사토 직원

□ 협의 내용

카미야 소장이 이번 조사연구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1. 청년해외협력대 파견의 목적은 예전부터 이것저것 많이 논의돼 왔다. 1971년~72년경에 '청년육성과 기술협력'이 목적으로 대두됐다. 기술협력도 전문가와 같은 기술협력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협력이었다. 이러한 목적이 1981년경에는 '대원 한 사람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주위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됐다고 전했다.
2.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Volunteer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정리하고 이 Volunteer의 정의와 국별 사업실시계획과의 관계, 또 신규파견국 판단기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사연구이며, 건드려야 할 부분도 많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예전에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의 좋은 연계 사례, 예를 들어 그저 뒤따라주기 형식의 후속조치가 아니고, 단순한 기자재 공여나 무상자금 제공도 아닌 형식의 연계 사례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 방식 기술협력과 봉사단 파견 사업의 연계가 좋지 않은 이미지만을 남긴 것처럼 보인다.
4. 신규파견국을 검토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견규모를 축소하거나 파견 철회, 철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사단 측에서 가나, 잠비아를 조사를 마친 현 시점에서 아직 거친 구성이긴 하지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원 파견은 개발 협력을 위해 아주 효과적인 투입 자원이 되고 있다.
 2. 수요요청 배경 조사는 원래 프로젝트 형성조사와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도 이런 생각의 공유 없이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3. 최근 ‘광역 기획 조사원¹⁾’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파견되어 대원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는 행정원과 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수요 요청 배경 조사를 프로젝트 형성 조사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개발 과제 중에서 개별 수요 요청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생각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대원들에게 JICA의 설명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5. 위와 같이 수요 요청 배경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키워드는 “행정원(조정원)”이다.
- 이에 대해 카미야 소장은 얼마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방될 것인가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 역자 주: JICA의 또 다른 제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몇 개국을 돌아다니며 기획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프랑스 현지조사 기록 (사무소 등)

(1) 프랑스 해외봉사단파견 기관 방문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26일(일)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외국 선진국 Volunteer 기관
방문지명	Centre d'information sur le Volontariat International
일시	2000년 11월 24일(금) 14:00~15:00
방문지	Centre d'information sur le Volontariat International
면담자	Nicolas Jaunet Charge de mission Communication [Anni LANGE(JICA 프랑스사무소 현지 직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1. 목적과 활동분야: 법률에 따르면 '국제 Volunteer는 문화, 환경, 기술적 · 과학적 · 경제개발, 인도적 원조에 대해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참가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발전에 기여하는 프랑스의 활동에 공헌한다'라고 나와 있다.
2. 이 센터는 2000년 10월에 설립됐다. 설립 1개월 만에 인터넷으로 등록한 등록자 수는 1,400명 정도. 설립 후 상황으로서는 만족.
3. 파견국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 분야는 개발협력 외에도 프랑스 기업의 현지 법인, 어학학교, 대사관, 연구기관, NGO 등이다. 비율을 보면 약 60%가 프랑스 기업 쪽에 파견된다. 최근에는 NGO 파견도 약 30%로 증가하는 추세다.
4. 기업에서 활동하는 Volunteer에 대해 기업의 약 90%가 활동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직원으로 계속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에 Volunteer 중 약 56%가 동의하고 있다.

5. 활동 기간: 6개월~2년. 활동 기간 중에는 파견 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전체 활동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번에 한해 연장 가능. (곧 4년까지는 활동할 수 있음)

6. 수당 등: 국가공무원 244호봉의 반액(현재 3460프랑스 프랑/월)을 기본수당으로 한다. 또 파견국에 따라 조정 수당이 가산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모두 면세. 기업에 파견되는 Volunteer의 경우 7,000프랑스 프랑~18,000프랑스 프랑/월. NGO의 경우에는 3,500프랑스 프랑/월이 대부분이다.

□ 특기사항/총괄

이 기관은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 전략 등에 따라 단원을 파견하는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매칭 시스템은 이 기관에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2) AFVP 방문

□ 개요

- 기록자: 시라이
- 확인: 마츠모토
- 일시 : 2000년 11월 26일(일)

□ 방문일지

방문지 종류	외국 Volunteer 기관
방문지명	AFVP(Association Francaise des Volontaires 여 Progres)
일시	2000년 11월 24일 (금) 17:00~18:00
방문지	AFVP
면담자	Mme. CHOULET-LISSE, Chef 여 Sercive Formation, Direction 여 Volontariat [Annie LANGE (JICA 프랑스 사무소 현지 직원) 동석]

□ 시찰/협의 내용

1. Volunteer 파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축약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1번.

① 2년간의 활동을 통한 연대 의식(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로의 국가간 · 시민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을 양성하고 또 이를 프랑스 사회에 환원한다 (JICA의 국제협력 특강²⁾과 비슷함)

② 개발도상국의 개발

곧 개발이 Volunteer 파견의 제1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년(1999년)의 경우에는 약 350명이 파견됐으며 각각의 프로젝트를 잘 육성해 실시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형성은 현지사무소의 수요요청을 근거로 해서 AFVP 본부의 프로그램부와 Volunteer부가 공동으로 검토한다. 각 프로젝트는 통상적으로 단원 1명이 파견되며 단원과 함께 현지인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의 능력이 있는 인

2) 역자 주: JICA에서는 summon campaign이라고 부른다.

재를 고용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프로젝트 기간은 4~7년 정도. 전임과 후임이 되도록 같이 있으면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집 선발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가 문제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만약 후임자가 오기까지 사이에 시간이 비게 된다고 해도 현지인들이 보충(Follow)해 주고 있으므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2. 국별 전략은 따로 없지만, 프로젝트 예산은 프랑스 외교부, 프랑스 개발사업단(AFD), 유럽 개발기금(FED), 세계은행 등에서 출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발협력의 흐름과 반대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빈곤 완화 관련이 많다. 인근 국가인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70%가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라고 한다.

3. Volunteer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 활동 중에는 현지 대표자가 매달 진척사항을 확인한다. Volunteer는 6개월, 12개월, 24개월차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임기 만료시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프랑스 외무부가 파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관계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활동할 수도 있으며 대우(수당 등)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특기 사항/총괄

1.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발은 프랑스 Volunteer 파견의 제1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그 활동은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향하도록 갖춰져 있으며 또한 옛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서의 협력 활동이 많다는 데서 오는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모집 선발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Volunteer를 파견하는 시점부터 2년간 그 후임자를 찾는 것도 가능하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다.

2. 예전에는 AFVP도 JOCV 협력대처럼 대원을 한 명씩 연관성 없이(면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같은 형식으로) 파견해 왔다. 이를 여러명의 대원을 파견하는 프로젝트 단계를 거쳐 지금처럼 대원은 1명을 파견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는 대원의 Program Officer형 파견으로 바꿨다. 이는 위에서 보듯 인맥과 local cost 부담이 있어 처음에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JICA JOCV 협력대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상호)이해를 제1목표로 삼으면서도 개발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을 세워 그 정책 아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국내에서 협력대사업의 개요

(1) 모집

협력대의 모집은 매년 봄(4-5월)과 가을(10월-11월)에 실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 약 270회에 걸쳐 실시하는 모집설명회를 시작으로(2002년-평성 12년도 가을 모집에서는 총계 약 1만명의 참여자가 있었음), 포스터 게시, 신문·잡지광고, 각종 홍보지 등 갖가지 매체를 통하여 모집을 행하고 있다. 근년에는 1모집기당 4,000명 전후의 응모자가 있었다.

협력대의 응모자격 연령에는 20세에서 39세까지로 제한이 있지만, 최근의 실제의 응모시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은 약 26세이다. 요청 내용 및 직종에 따라서는 당해 직종에 관련된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선발

협력대의 선발시험에는 제1차 선발과 제2차 선발이 있다. 제1차 선발은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과목은 「기술」, 「영어」, 「협력대원 적성 테스트」(이상 모두 필기 시험) 및 「건강진단(서류심사)」이다. 또한 제2차 선발은 동경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과목은 「개인면접」, 「기술면접」 및 「건강진단(문진)」이다.

(3) 기술보완연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파견요청에 적확하게 응하기 위해 그 협력활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기술·기능 등의 향상 및 교수법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기술수준은 합격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개개의 요청 내용에 비추어 보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요청에 입각한 적성기술의 연수를 실시한다.

2) 기술의 기초지식은 합격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실천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험직종에서의 실무면에서의 연수를 실시한다.

(4) 파견전 훈련

2차 선발 합격자는 「대원예비단원-후보생」이 되며, 약 80일간의 파견전 훈련을 받는 것으로 한다. 훈련은 대원으로서 2년간에 걸친 현지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배양할 목적으로 행하며,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어학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중에는 외국어 학습이외에도 파견국 사정,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의 강좌를 시작으로 사례연구 및 자주계획 등이라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2. 해외에서 협력대사업의 개요

(1) 부임시기 및 활동기간

협력대의 부임시기는 연간 3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수별로 통합하여 파견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는 4월중순 훈련개시, 7월중순 출발, 2차는 9월 상순 훈련개시, 12월 상순 출발, 3차는 1월 상순 훈련개시, 4월 상순 출발한다. 활동기간은 원칙 2년간이다.

(2) 대우·각종제도

현지 생활비는 파견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2002년-평성 12년도 현재 : 270 US\$ ~ 700 US\$/월), 매달 대원에게 지급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퇴직 혹은 학교 졸업 후 바로 협력대에 참가한 대원에 대해서는 월액 약 10만엔의 국내 적립금이 지급된다.

또한 각종 제도로써 JICA 부담(公費) 일시 귀국제도(업무 일시귀국, 휴가 일시귀국, 요양 일시귀국 등) 및 문병 일시귀국 등의 본인 부담(私費) 일시귀국제도 및 파

전국 연수 여행 등의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3) 파견대상국

1965년-소화 40년의 사업발족당시는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인 아시아 국가로부터 파견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케냐(1967년-소화41년), 엘살바도르(1968년-소화 43년), 시리아(1969년-소화 44년)로 서서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근동으로 파견지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1971년-소화 46년에는 서사모아(현재의 사모아)가 추가되어 대양주 지역에도 협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1년-평성 3년에는 헝가리가 추가되어 동구지역에의 협력도 확대하여 특히 1998년-평성 10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인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협력대상지역이 되었다. 1)

(4) 신규 파견국의 선정

2002년-평성 12년 12월 현재, 파견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는 75개국이지만, 가까운 장래 파견협정 체결이 예상되는 국가도 이미 여러 나라가 된다. 상대국 정부로부터 협력대 파견에 관한 요망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충분한 파견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행하며, 파견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조정을 추진하고 대원파견을 결정하게 된다.

(5) 부문별 파견실적

부문별로 살펴보면, 누계에서는 교육문화부문이 가장 많으며(28.6%), 다음으로 농림·수산부문이 많아졌다(22.5%). 또한, 2002년-평성 12년 12월 현재의 파견중 대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순위는 바뀌지 않지만, 교육문화부문의 대원이 36.6%인데 대하여 농림·수산부문의 대원이 18.3%로 차이가 크게 난다.

(6) 팀 파견, 그룹 파견

대원으로서 파견된 경우에 팀 파견 또는 그룹 파견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팀 파견은 다른 직종 또는 같은 직종의 대원을 여러 명 파견하고, 유기적 또는

1) 상기 해에는 파견실적에 관해서는, 2002년-평성 12년 12월 현재의 누계로는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이 모두 31.3%이며, 이 다음으로 중남미지역이 20.4%가 되지만, 동년 동월 현재의 파견중 대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남미지역이 27.0%로 제1위이며, 다음으로 아시아지역(25.8%), 아프리카지역(25.7%)가 된다.

종합적인 협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전개하고, 통상의 파견보다도 커다란 협력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수원국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사람, 물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사무국(또는 사무소)와 수원국 정부간의 협력실시에 관한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그룹 파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팀 파견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대원을 동일 지역 또는 동일 기관에 파견하여, 유기적 또는 종합적인 협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전개하는 것이지만, 팀파견으로 개시하는 데에는 제반 조건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에 의해 팀 파견은 하지 않는 경우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7) 안전대책

협력대 사무국에서는 「해외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대책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파견 전 훈련 중에 각지의 교통 상황 등을 참고하면서, 현지 사정에 즉각 대응하는 강좌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도 재외 사무소의 지도하에 교통안전을 위한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란, 재해 등에 의한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연락무선망의 정비확충, 재외에 있어서 안전관리 매뉴얼의 작성, 협력대원에 의한 안전대책 연락협의회의 충실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

(8) 건강관리

협력대 사무국에서는, 협력대원의 건강관리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① 고문의

협력대 사무국에 감염증,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등의 전문의를 배치하여, 세세한 건강관리의 지도체제를 취하고 있다.

② 현지 고문의 파견국에 있어서 협력대원의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발병 시에 적절한 지도, 조언 등을 행하는 현지 고문의를 정하여, 위탁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③ 의료행정원

협력대원의 파견국에 의료행정원을 배치하여 대원의 건강관리지원 대원의 임지에서 의료 수급체제 정비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도상지역에 상세한 인재를 파견하는 것에 의해 대원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다양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긴급이송, 각종 보상제도

대원이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과 고문의 의 판단 하에 질병 요양 일시귀국의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또한 적절한 의료가 시행되도록 제3국에의 긴급이송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에 관해서는 JOCV 재해보상제도 및 노재보험에 의해 또한 업무 외 질병에 관해서는 국제협력 공제회에 의해 여러 가지 각종 보상·급부가 이루어진다.

3. 귀국 후의 진로

귀국대원의 진로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사무국내 및 국내기관에 진로상담 카운터를 배치하고 있다. 귀국 대원은 카운터와 상담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998년-평성 10년도(1998년-평성 10년 4월 ~ 1999년-평성 11년 3월)에 귀국한 대원 887명의 진로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2002년-평성 12년 4월 현재), 취직(40.7%), 자영(2.7%), 복직(19.6%), 가사·아르바이트 등(14.5), 복학(8.3%), 진로 미결정자(3.9%), 진로 미확인자(10.3%)가 된다.

4. 국내에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개요

(1) 모집

국민참가형사업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연2회 모집설명회를 개최하여 널리 응모권장을 행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 공모제에 의해 연2회의 모집기간중, 응모서류의 제출하여 응모를 접수하고 있다. 협력대와 같은 모양으로 포스터 게시, 신문·잡지광고 등을 실시하여 모집을 행하고 있다. 역시 파견시점에서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발

선발은 우선 제1차 선발로서, 서류심사, 기술심사, 제1차 건강진단심사를 실시한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선발(제2차 건강진단, 면접 및 어학시험)을 실시한다.

(3) 파견 전 연수

제2차 선발 합격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약 3주간의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5. 해외에서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개요

(1) 부임시기 및 활동기간

시니어 해외봉사단원의 파견시기는 매년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걸친 시기 및 10월부터 11월 걸친 시기이다.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 또는 2년간이다.

(2) 대우

이 사업은 봉사단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교하여 제수 당등은 낮게 수립되어 있으며, 현지생활비, 기자재비는 상대방 정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파견대상국

2002년-평성 12년도 12월 현재의 파견대상국은 30개국이다(1999년-평성 11년까지의 대상국 :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네팔, 몽골,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파나마, 페루(파견 재검토중), 파라과이, 우루과이, 통가, 사모아, 피지, 요르단, 2002년-평성 12년도 신규파견대상국 : 캄보디아, 부탄, 파키스탄, 마셜, 미크로네시아연방, 파푸아뉴기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시리아, 모로코, 튀니지, 잠비아, 우즈베키스탄)

총론

1. 조사연구실시의 목적 및 배경

(1) 목적

지금까지 JICA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별·지역별 접근 강화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JICA 봉사단원 사업(여기서 「JICA 봉사단원사업」이라 함은 청년해외협력대, 시니어대원,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일본계 사회청년봉사단원, 일본계사회 시니어 봉사단원 등을 포함한다)에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JICA 봉사단원사업은 풀뿌리 민간 협력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풀뿌리차원에서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봉사단원 자신이 현장에서 자신의 활동내용을 수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봉사단원 자신이 협력대상인 사회나 사람들로 부터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하는, 봉사단원 사업이 본래 지니고 있는 상호학습이라는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업 계획 수립, 실시에 있어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며 JICA의 다른 사업과 같은 형태의 전략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별 사업 실시계획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타 사업과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대사업에 관해서는 사업개시에서 JICA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대원의 안전 확보, 활동지원을 위해 주재원 사무소 또는 행정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한다. 개설된 주재원 사무소/행정원 사무소는, 협력대 사업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다른 JICA 사업의 추진거점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력대의 신규 파견이 다른 사업의 전개를 촉진하는 임무로 갖기 때문에, JOCV 신규파견을 검토할 경우에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협력요구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면적,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책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JICA 사업 중에서도 협력대의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지역에서 모델국가를 선정하고 협력대 사업을 포함한 JICA 봉사단원 사업계획의 수립·실시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을 조정하는 반면 국별·지역별 접근을 적용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신규파견국을 선정, 대원파견을 전개할 수 있는지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경

본 조사연구는, JICA 봉사단원 사업에 대하여 금전적인 것보다 JICA가 노력해 오고 있는 국별·지역별 접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과제에 대한 노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인지 JICA의 다른 사업 및 JICA 봉사단원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 외적 요인

- ① 21세기 ODA 간담회의 제언 : JOCV 사업을 포함한 JICA 사업의 평가 체제 강화의 필요성
- ② 일본의 NGO 성장 : 일본에서도 NGO가 급성장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봉사단원 사업을 실시하는 의의의 명확화 필요성
- ③ 정보공개 : JICA 봉사단원 사업에서도 비용 대 효과를 포함한 책임성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 ④ 특수법인 개혁법안 : 동법안과 관련된 동향에 대비한 JICA Volunteer 사업의 효과 정리·명확화의 필요성
- ⑤ 원조국간 원조전략과의 정합성 : 전략적 투입계획(Strategic Investment Programme : SIP), 빈곤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Common Basket 등, 타 원조국과의 협조가 요구되는 오늘날 이러한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및 봉사단원사업을 포함한 일본 ODA 각 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이론구축의 필요성
- ⑥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의의 제고 : 얼굴이 보이는 원조, 참가형 사업으로서 그 의의를 제고시키는데 주목을 집중하고 있는 JICA Volunteer 사업의 강화 필요성

2) 내적요인

- ① 봉사단원사업의 다양화 : 청년해외협력대 사업에 있어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위치부여의 명확화, 전문가와의 상위성에 대한 명확화 필요성
- ② 제3차 JICA 업무개혁 : 국별 접근(이 중에서도 프로그램·접근)의 강화, 사업 목표·성과의 명확화, 우량 사업 담당자의 확보, 국내·해외에의 전달기능의

강화 등이 검토항목의 핵심이 되며, 이러한 시기적인 것과 합치한 사업의 재 검토 필요성

- ③ 제3차 JICA 중기사업전망 : 제3차 중기사업전망 작성의 시기에 맞춘 사업 재 검토의 유효성
- ④ 예산감축 경향 : ODA 예산의 감축에 따라, 향후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예산 삭감이 있는 경우, 신규 파견 등에 관련된 scrap and build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 또한 보다 선택적·전략적인 사업전개의 필요성

또한 본 조사연구의 고찰 과정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의 특성 정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에는 JICA 봉사단원 사업은 「얼굴이 보이는 원조」로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업 변혁의 가능성 모색까지 포함한 특성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 연구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성이 요구되어 향후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장소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발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2. 조사연구의 개요

(1) 검토내용

본 조사연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를 하나의 분회가 담당하였다.

- ①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정리
- ② JICA 봉사단원사업에 대한 국별 접근의 적용방법 고찰
- ③ 국별 접근을 기반으로 한 신규 파견국 선정과정 검토

각 요소의 검토내용과 구체적인 output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요소	검토내용	담당 분회	구체적 output
①	JICA 봉사단 원 사업의 특성 정리	일반적인 「봉사단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타국 공여국이 실시하는 봉사단원 파견사업이나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체제와 JICA 봉사단원사업과의 비교검토하며, 본 조사연구의 대전제가 되는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 (= 좋고 강한)에 따라 정리함과 동시에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에서의 기술협력체제와의 연계형태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또한 상기를 기초로 JICA 봉사단원사업의 미래상에 관하여 제언한다.	제 1 분 회	. JICA Volunteer 사업의 특성에 관한 분석 . JICA Volunteer 사업의 미래상에 관한 제언
②	JICA 봉사단 원 사업에 대한 국별 접근의 적용 방법 고찰	상기에 의해 명확하게 된 JICA 봉사단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JICA 봉사단원사업에 대한 국별접근의 적용방법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협력 중에서 협력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아프리카제국에서 모델국 3개국(가나, 잠비아, 니제르)을 선정하여, 주로 다음 3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의 사무소직원, 행정원, 전문가, 협력대원과의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 2 분 회	. JICA Volunteer 사업에의 국별 접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청년해외협력대 국별 파견 계획의 새 양식(안)
③	국별 접근을 기반 으로 한 신규 파견국 선정과 검토	종래부터 청년해외협력대의 신규파견국 선정을 위해서는, 「조건적 지표(치안, 생활환경, 의료사정 등이 일정수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과 「전략적 지표(협력대의 파견이 그 국가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라는 2종류의 판단지표를 기초로 검토하지만, JICA 전체의 국별 접근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보다 전략적인 협력대 각 판단지표를 협력대의 특성 및 국별 접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파견국 선정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또한 본 조사연구의 모델지역인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 파견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예를 표시하고 타 지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제 3 분 회	. 신규파견국 선정 가이드라인(안)

(2) 실시체제

1) 특별반

- ① 본 조사연구의 실시를 위해서는,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특별반을 설치한다(다만, 인사발령을 수반한 특별반으로 하지 않고, 업무의 일환으로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 ② 특별반 사무국은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 해외 제과에 설치한다.
제1과 에 설치한다.
- ③ 특별반 구성원은,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의 각과, 아프리카·중근동·구주부 아프리카과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상기(1)의 방법대로, 조사항목에 대응한 3개 분회에 의해 구성된 각 특별반 분회 책임자 아래, 필요에 따라 동시에 병행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다만, 각 특별반 구성원은 소속 반 분회이외의 검토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조사실시에 있어서는, 특별반 구성원 이외에도 폭넓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무성 경제협력국 기술협력과 및JICA 지역 각 과 담당자, 전문기술위탁, 국제협력 전문가 등의 회의 출석 등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조사연구 특별반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국내작업을 담당 또한 현지조사에 참가하고, 전문적 관점에서 조언, 정보수집 등을 행하여, 본 조사의 원활한 실시에 공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구체적 사항을 담당한다.

- ① 특별반 및 기타 사전 타협회의에의 참가 이와 관련된 의사록 작성
- ② 기존자료의 수집·정리, 정보 분석
- ③ 조사방침안 및 질의서 작성
- ④ 관계기관에의 청취결과·관련 자료 수집, 정리
- ⑤ 국가개발계획·국별 사업 실시계획 등과 대원파견의 정합성에 관한 현상분석·평가
- ⑥ 협력대 사업과 타기술협력 체제와의 연계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분석과 제언
- ⑦ 타기술협력체제의 협력대 사업에 대한 요구 확인
- ⑧ 특별반 및 기타 협의에의 참가 이와 관련된 의사록 작성
- ⑨ 귀국 보고회용 조사결과안 작성

(3) 실시일정

2000년 4월-6월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조사방침 등 확인
2000년 7월4일	제1회 특별반(향후 추진방향 확인 등)
2000년 8월9일	제2회 특별회(전체 골자 작성)
2000년 9월6일	특별반 분회검토회(제2 특별분회)
2000년 9월13일	“ (제1 특별분회)
2000년 9월27일	“ (제3 특별분회)
2000년 10월4일	제3회 특별반(현지조사협의)
2000년 11월4일-12월3일	현지조사
2000년 12월 13일	제4회 특별반(귀국보고회)
2001년 1월23일	제5회 특별반(골자확인)
2001년 2월 13일	제6회 특별반(골자확인)
2001년 2월-3월	보고서집필·내용조정

3. 조사연구결과 요약

(1) 전체 요약

본 조사연구에서는, JICA 봉사단원사업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업인 한편 거기에 「기술」이 개재하고, 다른 JICA 체제와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의 특성상 다른 체제와는 독립된 형태로 실시해 왔지만 국별·지역별 접근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안에서 각 체제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개발과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별 사업 실시계획안에서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위치부여를 명확히 함에 따라 JICA 봉사단원의 신규 파견국을 선정할 경우에도 각 체제와의 연계를 전제로 하면서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JICA 전체의 국별·지역별 접근의 강화라는 움직임 속에서, JICA 봉사단원 사업도 이와 축을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JICA로서 일관성을 갖고 개발과제에 대한 노력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각 조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2) 각 분회의 조사결과

1) 제1분회

① 정부가 실시하는 봉사단원 사업으로서의 청년해외협력대사업은 사업개시 이래 35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민참가형으로 풀뿌리 지역사회 민간협력차원에서의 사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봉사단원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NGO의 활발화, ODA 예산의 삭감, 정보공개 등의 요인에 따라 보다 투명성이 높은,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실시가 요구되었다.

② 이러한 상황인식에 입각하여, 봉사단원사업은 그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각 봉사단원가 지니고 있는 「기술」을 발휘하여, JICA의 국별 사업실시계획안에서 명확하게 위치부여하고, 각 사업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더욱 협력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또한, 봉사단원사업은 국민참가형 사업으로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업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봉사단원 정신이 풍부한 국민이 한층 더 참가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제도로 하는 것이나(JICA 봉사단원 사업제도 자체의 정리를 포함한다), NGO와의 연계도 이제까지 이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2) 제2분회

① 국별·지역별 접근에 의한 사업실시체제가 정비된 가운데, 대원 등 현장에서 활동을 행하고 있는 봉사단원과 같은 접근에 대한 의식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현장 및 본부의 각 관계자간에 충분한 의식의 공유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② JICA 봉사단원 사업에 관해서도 국별 사업실시계획의 개발과제속에서 반드시 위치부여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나 음악 등의 직종의 경우에서도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의 개발계획 전체 속에서의 위치부여를 행한다.

③ 국별사업실시계획 속에서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위상을 명확히 하며, 또한 사업의 프로그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개발과제를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④ 종래부터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에서 작성해 온 국별과건계획은 앞으로도 작성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부여에 관해서는 국별사업실시계획의 별책자료로 한다.

⑤ 사업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요청배경조사를 통일요망조사에 포함하지 않지만, 정보의 공유화 등에 의해 이제까지 이상으로 효율적인 요청 배경조사를 행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요망조사와의 동시실시도 검토한다.

3) 제3분회

① 신규과건국 수립의 경우 가이드라인(시안)은 다음과 같다. (절대조건)

- ODA 대강에 의거한 원조대상국이다
- 안전상황에 문제가 없다
- 긴급대응이 가능하다
- GNP per Capita가 일정수준이하(판단지표,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 JICA의 원조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봉사단원 사업투입의 우위성이 확인되어 있다
- 상대국이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 요망직종·분야가 상대방 인재확보 사정과 일치하고 있다
- 일정의 과건규모 확대가능성이 있다
- 상대국이 과건취지를 준수할 수 있다
- 재외사무소·재외공관이 이미 존재한다.

② 수립에 있어서는, 이하의 과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

봉사단원 사업의 특성을 모든 JICA에서 이해한다/ 모든 검토대상국에 관하여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별 사업실시계획에 준한 협력방침을 수립한다 / 제도·지원요원체제의 재검토를 도모한다/ 앞으로는 기과건국을 포함한 봉사단원 과건계획(과건종료를 포함한다)을 수립한다.

4.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과 제언

(1) JICA 봉사단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

1) 2001년(H-평성13)에 36주년을 맞는 청년해외협력대사업은 파견인수가 매년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신규파견국도 매년 2-3개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은 2000년(H12년)부터 상당히 많은 사업 확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으면서도, JICA의 실시하는 봉사단원사업의 JICA에서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별·지역별 접근을 강화할 때 비중이 높은 봉사단원 사업을 경시할 수 없으며, 반대로 봉사단원 사업을 중심에 의거한 각 체계의 사업전개가 오히려 요구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3) 또한 프로그램식 접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가운데, 봉사단 사업과 다른 각국의 협력사업 체제와의 연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 논의된 국별사업실시계획에서 봉사사업의 위치부여를 명확히하며 각 사업과의 연계의 한층 촉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제언

1) 위와 같이 JICA가 실시하고 있는 봉사단원 사업에 관해서도 각 개발과제에 응하여 다른 체제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투입 및 활동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JICA 봉사단원 사업의 장점 단점을 이해하는 반면 파견전략이 입안될 필요가 있으며, 각 관계자간에 충분한 의식의 공유화가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행하는 사무국에서 청년해외협력대사업 시니어 해외봉사단원 사업의 구축에 관해서 세미나 등을 통해 이제까지 이상으로 내외에의 홍보·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또한, 이제까지 어땠는지 말하면 그 사업의 특성 때문에 다른 체제와는 독립한 형태로 행해져 왔던 JICA 봉사단원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는, 각 사업의 시작(예를 들면 수요요청 발굴, 안전 검토 등)의 단계에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어떤 개발과제에의 가장 유효 또는 효과적인 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3) 이번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공여국(공여국)이나 NGO 등과의 비교를 행하면서 JICA가 행하는 봉사단원 사업의 정의부여를 시도하였지만 현지조사에 있어서는 JICA 봉사단원의 정의의 명확화를 강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향후, 본 조사연구의 논의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한층 더 검토를 계속하고 모든 JICA로서의 봉사단원사업의 정의부여 위치부여에 관한 논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JICA 전체로서 일관한 개발과제에의 노력을 행해갈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단원 사업에의 국별·지역별 접근의 적용」에 관한 조사연구는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 내외의 유지에 의한 특별반에 의해 행해진 것이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논의의 내용은 이제까지의 어느쪽인가 하는 「봉사단원 사업은 그 특성 때문에 다른 체제와는 다르다는 혹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크게 전진한 것이며, 그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0년(H-평성, 헤이세이- 12년)도부터 시니어 해외 Volunteer 사업의 급격한 확대경향은 금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시기, 시대에 부응하는 봉사단원 사업에 관해서는 재고도 필요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조사결과를 최종지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JICA 봉사단원의 정의의 논의와 맞추어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